APR 1 4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797 1982년 4월 14일(수) |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 Wednesday, April 14, 1982

확대일로의 쌀전쟁

팬아시아 법적압력계속·소비자는 이득

지난 1월부터 비롯된 토론토 한국 식품업계의 「쌀전쟁」(*한국일보2월10일자)은 점차 전면전의 양상을 띄고 있다.

한국식품 미시사가지점 신설로 총10개에 달한 토론토인근 식품소매상들은 도매상에 따라 D.Y.계열과 팬아시아계열(한국식품계열)로 나뉘어 가격인하전쟁, 법정고소뿐 아니라 영업시간 연장, 주7일 영업, 배달지역 확대등으로 고객확보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립적으로 알려졌던 동양, 제일, 고려식품 3개업소는 쌀, 라면등 주종품목등을 한쪽 도매상에서만 공급 받고 있다.

이들은 작년까지 화요일 또는 일요일, 주1일 휴업하던 영업시간도 이제는 일제히 일주일 내내 영업하며 배달지역도 시내전역으로 확대, 써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이같은 와중에서 팬아시아 계열째 지난주 「가주 특산미」를 $13.95(50파운드짜리)에 세일한다고 선전, 경쟁에 불을 붙였다.

팬아시아계통은 그동안 동식품의 고유상표인 팬아시아장미쌀을 선전해 왔으나 이번에는 경쟁자인 D.Y.수입상사의 주종품목 「D.Y.가주미」의 비슷한 이름의 「가수특산미」를 더 싸게 내놓은 것이다. 이것은 D.Y.가주미의 최근가격(3월27일-4월10일 2주간 세일)및 자신들의 주종품목인 팬아시아 장미쌀(13일 현재) $15.95보다 2달러가 싸다.

D.Y.가주미의 토론토도매를 전담하고 있는 D.Y.수입상사대표 오기환씨는 13일 "팬아시아가 선전하는 가주특산미는 D.Y.가주미와는 전혀 품질이 다른 쌀이다. 이것은 가주미의 인기가 높아지자 비슷한 이름을 부쳐 가주미의 인기를 깍아내리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쌀 전쟁」을 지켜보는 많은 교민들은 "쌀값등이 싸져서 좋다. 그동안 미국지역보다 쌀값이 높다는 소리는 들었으나 이제는 미국가격에 가까운 값으로 인하됐으니 이것은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가 가져온 이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팬아시아 대표 이창복씨의 변호사는 지난 1일자로 본사를 비롯, 삼복, 한밭, 서울식품및 도매상 D.Y.수입상사에게 재차 통지서를 보내 앞서의 고소통고에 대한 반응을 재촉했다. 이 통고문은 "3월1일자 고소통고문(*한국일보 3월10일자)에 대해 귀사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나는 한국일보 1월25일자 광고가 내 고객의 명예를 훼손한것임을 이씨에게 충고 해왔다. 앞으로 2주내(4월15일이내)에 한국일보에 전면사과문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즉각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요지이다.

이같은 팬아시아의 사과주장과 고소문제에 대해 한교민은 "식품업자들이 가격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은 좋으나 법정문제로까지 비화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차라리 막대한 소송비용을 가격에 반영시켜 물건값을 더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1월25일자 광고는 삼복, 한밭, 서울식품등이 팬아시아 대표인 이씨가 그동안 독점도매상으로서 과당 이윤을 남겼고 부당하게 차별정책을 썼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고 팬아시아측은 광고주뿐 아니라 본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앞서 통고했었다.

We have not received any response from either you or your solicitors with respect to our notice to you dated March 1, 1982 in respect of your advertisement in the Korea Times Toronto. Again, we have advised our client that the statements in that advertisement are defamatory, constitute malicious falsehoods and slander of our client's goods.

If we do not have a response from you within two weeks time, and in particular if you have made no proposals with respect to an appropriate apology to be published in the Korea Times Toronto, we have been instructed to commence immediate legal action on behalf of our client for substantial damages arising from your publication.

◆팬·아시아측 변호사가 본사에 보낸 독촉장

◆신용조합정기총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홍렬전무

신용조합 정기총회

서준경·김병권 신이사

조합원수 1100명의 한인신용조합은 신용대출한도액도 5천달라로 늘리고 자산은 2백만달러를 돌파, 82년말까지 3백만달러를 목표로 하고있다.

지난8일 조합사무실에서 갖은 제6차 토론토한인신용조합(이사장 한상훈) 정기총회는 지난2월23일 이사회에서 채택된 정관개정안의 인준, 현행 이사수 5명을 7명으로 늘이고 대출위원의 일부개편, 감사위원3명 인준등이 있었다.

한 아사장은 "외환은행의 확장, 한일은행, 조흥은행등 국내계열은행들이 토론토 진출 금융계의 경쟁시대가 도래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서준경, 김병권씨가 신임이사로 추가되고, 임기가 만료된 윤호영, 김창환씨는 유임됐다. 대출위원도 일부개편, 심재환, 윤여경씨가 사임하고 최[illegible]권, 김종조씨가 새로 선출됐다. 김창범씨는 유임됐다.

이사회에서 이미 임명, 이날 추인받은 감사위원은 방남주, 심재환, 정필주씨이다.

이날 하오7시 25명이 출석한 가운데 한상훈이사장의 사회로 이사회보고, 업무보고, 대출위원보고, 감사위원보고, 정관개정순으로 진행됐다.

업무보고를 한 이홍렬전무는 82년도 예상대차대조표 설명에서 조합원대출금, 조합원예치금 및 조합원출자금이 81년도의 150만달러, 140만달러, 19만달러에서 270만달러, 260만달러, 29만달러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전무는 동조합의 목적은 이익을 조합원에게는 환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시중은행보다 대출이자는 낮고 예금이자는 높아질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신용조합의 대출이자는 19%, 예금이자는 14.5%이다.

대출위원보고에서 김창범대출위원은 작년에 총535건의 융자신청을 승인했으며 그중 501건은 사업자금, 34건은 개인용도로 대출되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융자신청을 승인했다고 하는 김위원은 융자심사기준으로
1. 개인의 신용도
2. 사업의 전실성
3. 보증인의 신용등을 들었다.

김위원은 대출해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금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위원회는 조합원들의 보다나은 금융면의 편의를 도모키위해 이사회에
1. 상환기일 연장
2. 긴급을 요하는 자금에 대한 신속한 승인절차
3. 융자신청절차의 간소화
등도 건의했다.

社告

이민사 자료수집

본사 병설 한인이민사연구실(실장 이석현)은 캐나다 전국 한인이민사에 참고가 될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 비치함으로써 이땅 한인이민사 정립에 뒷받침이 되고자 전국에 걸쳐 자료를 모으고 있읍니다.(당장 이민사를 기술하는 것은 아님).

이 연구실은 전국의 교포단체, 개인들에 이르기까지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항상 문을 열어, 이용의 편의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각지역의 해당자료들(행사안내서, 문화행사 초청장, 프로그램, 포스터, 기관지, 동인지, 주소록, 동창회지, 학술발표문등 아무리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이라도)을 보내 주시는 친절을 기대합니다.

개인으로 볼 때에는 별로 쓸모 없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도, 자료실에 모아 비치하면, 장래에 소중한 자료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많은 협조(자료송부, 참고조언)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접수처:
한인이민사 연구실
The Korean Immgration Resource Centre C/O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Tel: 1-(416)
533-2361

한국일보사

오늘의 예금금리 (3월22일현재)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일	14%	
	90일	14.25%	
	180일	14.5%	12.75~15%
	365일	15%	
	2년	16%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82 세계 미스코리아대회

5월15일 세종회관에서

금년도 한민족의 최고미녀를 뽑는 미스코리아 세계 결선대회가 오는5월 15일(토)하오5시 서울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미녀중의 미녀"진"은 유학의 특전과 1천만원 장학금·국제대회 출전경비를

"선"은 국제대회 출전경비 300만원, "미"는 국제대회 출전경비 250만원, "미스·한국일보"는 국제대회 출전경비 200만원, "미스·태평양"은 국제대회 출전경비 2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서울서 열리는 세계대회 결선에는 국내 각시도 대표와 캐나다를 비롯, 미국 6개도시, 일본, 호주, 브라질등 해외미녀들이 경연한다.

캐나다의 미인대회는 오는 24일(토)하오 6시 홀러데이·인 (토론토시청 뒤)에서 열린다.

후보제3호 권미리양

만능형 음악의 수재

캐나다미스코리아 후보제3호는 만능형 음악도 권미리양(17세).

아버지(악단장)의 소질을 100%이어받은 듯, 피아노, 플룻등 악기는 다 잘 다루고, 노래도 뛰어난다. 특히 피아노에 뛰어나고, 타이프(타자)도 전교 1등으로 뽑힌일이 있는 베테란이다. 따라서 취미도 악기다루기와 노래부르기.

장래 희망도 피아니스트. 서울 보광국교 3년을 마치고 75년5월 토론토로 이민, 현재 고교10년에 재학중이다.

권순근씨와 임경자 여사의 1남1녀중 딸로태어 났으며, 신체조건은 키 5피트 4인치, 무게 125파운드에바스트 34인치, 웨이스트 27인치이다.

후보제4호 이은주양

시도쓰고, 연극·무용에 능해

청순하고 훤칠한 미녀형 이은주양(19세)이 후보제4호로 등록을 마쳤다.

문예를 비롯 행동예술에도 발군의 실력파로 무용, 피아노, 시 쓰기, 희곡 창작은 물론 연기도 곧잘하 여학교 예술제때면 의례껏연기자로 뽑히곤 한다. 취미는 시짓기·그림그리기등다양하다.

그러면서도 장래 희망은 각도가 다른 심리학자 지망이라서 듣는이를 어리둥절케 한다.

부동산업을 하는 이훈모씨의 1남2녀중 둘째딸로서 울 홍은국교 3년때인 71년 7월 토론토로 이민 왔으며 고교13학년에 다니고있다.

신체조건은 키 166cm, 무게 105파운드, 32-23-33이다.

후보제5호 이사샤양

대가를 꿈꾸는 미술학도

활동형이며 지적인 재치를 느끼게하는 인상의 이사샤(Sasha 21세)양은 미인후보 제5호.

철저히"예술에 살련다"고 미술, 문학(시창작), 연극(연기), 피아노에 프로급인 사샤양은 장래의 꿈을 일류화가가 되는것으로 굳히고 있다.

취미로는 여행과 의상디자인, 시짓기로 삼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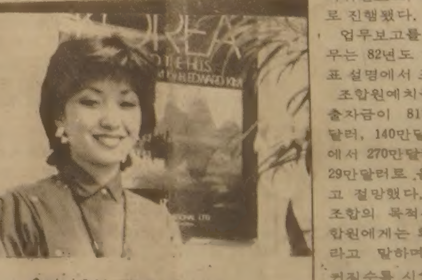
그래서 현재 온타리오미대 3년에 적을두고 패인팅(서양화)과 조각을 전공중이다.

서울서 홍은국교 5 년때(71년)부모를 따라 캐나다 이민, 정칠[illegible] 여사의 장녀이다.

신체조건은 키 162cm, 무게 100파운드, 35-24-35이다.

◆미녀후보 제3호 권미리양

◆미녀후보 제4호 이은주양



◆미녀후보 제5호 이사샤양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김명규
편집인: 이석현
인쇄인: 박점서
고부장: 송광호

SUNLIFE
백용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배재동창회 볼링 대회

아래와 같이 배재동창회원들간에 친목을 위한 볼링대회를 갖고저 하오니 부디 많이 참석 하셔서 하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거의 개인연락을 취할수없으므로 참여희망 동문들 께서는 연락처로 즉시 신청하여 주시면 여러가지 준비관계상 많은 도움이 되겠읍니다.

일시시: 1982년4월17일(토)오후2시정각
장소: NEWTON BLOOK BOWLERAMA 5837 Yonge St.(2블럭 North of Finch)
참가비: 선수당(남,녀) $10(볼링 FEE, 슈즈및 음료수 포함)
상품: 남1등~5등(트로피)
여1등~5등(트로피)
연락처: 부회장(송우진 781-5083)
총무(김정현 924-3905)
체육(라명운 533-6702)
재무(이학현 563-6334)
기획(이동규 929-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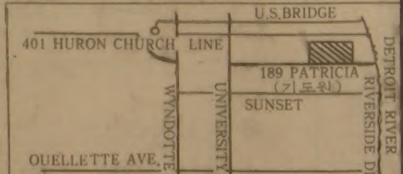
토론토 배재동창회회장손명수

† 기도원봉헌예배초대 †

순복음 윈저 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도원 헌당 예배와 교회이전예배를 드리고저 하오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기도 합니다.

강사: 조이식 목사(순복음캐가다교회)
특별초청: 허림 집사(한국연예인 교회)
전일용 집사(한국연예인 교회)

때: 1982년4월24일(토)오전11시
장소: 순복음 윈저 기도원(189 Patricia Windsor, Ont.)
전화: 519-73-5945, 519-948-8354
519-253-1077(기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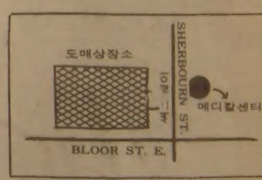
※또 본교회 선교부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카셀테잎과비데오테잎을 준비하고 원하시는 분에게 매주 우송해 드리고 있읍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카셀테잎 6개월$50 개당$2)

순복음윈저기도원

꽃·화초 도(소)매상

◎토론토 제1의최대규모

⊙가장 저렴한 가격



대표 정해붕·박동효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교민복지· 사회봉사 지향

한인총연합부인회 창립

최초의교민여성단체, 회장에 양혜신씨

◆한인총연합부인회 창립총회 광경. 왼쪽부터 이상훈총영사, 오기송연합회장, 양혜신회장, 축사를 한 드코르네일신부부처 및 친구, 맨 오른쪽은 강신봉연합회이사장.

캐나다 교민사회 최초의 여성단체인 캐나다한인 총연합부인회가 창립됐다.

당초 대한부인회라는 이름으로 발기준비된(준비위원: 양혜신, 전영도, 이근향, 오정숙, 김옥자, 이상환) 이 단체는 캐나다 정부와의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한인총연합회 산하단체로서 이름을 총연합부인회로 바꾼 것이다.

"대대적으로 회원간의친목을 도모하여 이민생활에서 일어나는 여성들의 여러가지 문제해결을 도와캐나다 사회에 적용케 하여 교민의 복지와 지위향상에 기여함과 민족문화보전 및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한 연합부인회는 10일오후5시 한인회관(20 **Mobile Dr.**)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양혜신 창립준비위원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회칙을 통과했다.

이날 회장으로 추대된양혜신 준비위원장은 인삿말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에대한 언급은 없이"마음속의 3.8선을 없애고 모두가 단결해서 한인사회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것"으로 회원들은 순종의 미덕을길러달라고 당부했다.

회칙에 나타난 연합부인회의 사업은 회원의 친목 및 동포애증진, 자선및 구호, 여성지위향상, 단체간친목, 지원 육성, 자녀교육, 복합문화참여, 부녀상담실 및 결혼상담실 설치등이다.

여성들만이 모이는 모임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30여명의 남성들을 포함, 약150명의 여성들이 참석한 이날총회는 오정숙한 인회간사의 사회, 강신봉(한인연합회 이사장)씨 의 보조진행으로 엮어졌다.

개회사, 국민의례, 국가봉창, 창립경위보고에 이어만장일치의 박수로 회장에추대된 양씨는 총회가 끝난뒤 구체적인 여성권익사업계획에 대해 여성의 권익을 찾는운동은 윤리도덕을 지키는 한민족의 여성으로서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여자는 여자의 도리를 지키며 순종하는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답변, 당초 캐나다 대한부인회 창립총회란 제하의 공고에 밝힌 취지와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취지내용은 오간사가 작성한 것으로 그저 양념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양씨는 캐나다 한인총연합부인회의 사업으로 양로원의 한국노인들을 위한위문사업, 한글학교 증가운동, 가정주부를 위한 어머니교실, 재캐나다 한인예술가들을 위한 뒷바라지 등이라고 말했다.

준비위원회가 작성한 원안그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자 박수로 만장일 치 통과된 회칙에 의하면 회원은 21세에서 65세까지이며 총회원은 50명, 회칙 개정은 재적 3분의2이상의찬성으로, 집행부 임원은 회장1명, 부회장1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축사로 복합문화성장관을 대신 참석한 돌란스·드코르네일신부는"법적권리없이 남편의 종속물이었던 여성들의 지위와 권익은 그동안의 투쟁으로캐나다 새헌법에 명시될 정도로 확대됐지만 실제 여성운동을위한 길은 아직도 멀다. 캐나다 가정에서도남편에 구타당하는 아내가10명중 1명꼴이란 통계는 여성의 권익보호가 캐나다여성에도 큰 화제로서 여성들 자체가 힘을 합해 투쟁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하고 연합부인회의창립을 격려했다

축사는 이상훈 총영사, 오기송 한인연합회장, 박희민 장로교회목사등 모두남성들이 담당했다.

오기송회장은 연합부인회가 총연합회 산하조직기구로서 여성계에 공헌을기대한다고 말했고, 박희민목사는 현모양처의 본분을지킴으로써 전통적 한국미덕의 보전에 기여해달라고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이석현 작사 유희자 작곡의 회가합창에 이어 저녁식사후 김미영씨의 한국무용, 김그레이스, 김캐롤 두 어린이의 무용 및 김용순씨의 지도로 흥겨운 디스코춤을 즐겼다.

이날 후원금을 보내고내빈으로 참석, 부인회의 창립을 격려한 남성들은 오기송(연합회장), 강신봉(전한인회장), 황대연(의사), 전택균(Y이사장), 장영채(한인회부회장), 김춘탁(킹스카메라대표), 이상훈 (총영사), 조홍래(영사), 이인용(인쇄소대표), 박인순(한인회장)씨등이었다.

대미수출자진억제

한국, 철강파이프

(워싱턴17일=연합)미국상무부는 한국산 철강파이프수입을 억제할 계획은 없다고 7일 상무성대변인이 밝혔다

한국정부는 미국이 한국산철강파이프에 대한 수입억제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반발로 자발적으로 수출제한을 6일 결정했다

한국상공부는 금년 철강파이프 대미수출을 작년의 95%선인 총68만3천톤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은 작년 미국철강파이프수입의 24%를 공급했다.

민속문화제.

위니펙에서 7월에

(위니펙)82년도 캐나다민속문화제(캐네디언·헤리티지·페스티발)가 오는 7월14일부터 27일까지 마니토바주 위니펙, 셀커, 브랜돈에서 열린다고 복합문화성장관이 발표했다.

연방복합문화성이 25만달러를 지원한 민속문화제는 전국의 민속예술을 총망라하는 연례행사이다.

작년에는 브리티쉬·컬럼비아의 뱅쿠버에서 개최됐었다.

정부광고 전개키로

복합문화성 결정

(오타와)짐·플레밍연방복합문화성 장관은 5일 캐나다 사회의 다양한 면모와 각 민족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정부및 의회의 활동을 알리는 정부광고를 각 매스콤과 공공기관에 포스터로 싣기로 정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5계절

『나』라는것

석광옥(스님. 불광사주지)

◇석광옥 스님

인생을 사노라면 어차피 뜻대로 되기 어렵다는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크고 작은 뜻하지 않은 고난들이 멀고 가깝고를 점철한다. 그것이 한 개인에게만 오는것도 있고, 가족에게만 오는것도 있고, 온겨레와 함께 당하는 고난도 있다.

가장 가까이 우리의 가슴속에 찍혀져 사위지 않는 6.25의 경험처럼.

인생이란 왔다가 간다. 물 흘러가듯, 바람 달려가듯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간다. 그 사이에는 웃음도 있고, 한숨도 있다. 기쁨도 있고 고난도 있다. 그리고 성공이니 보람이니 하는가치의 수확도 있는것이다. 그러면서 언제나 바쁘다는 의식에 잡혀 지낸다.

일한것의 질량을 되돌아보면 우습도록 보잘것 없는데도 감당못할 분망이나를 지배하며 이구석 저구석으로 몰아붙이곤 한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나」인 것이다. 도대체「나」란 무엇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행위의 주체는 두말할것도 없이「나」인 것이다. 내가 먹고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울고 웃고 기뻐하고, 내가 걷고 달리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도 중요한 행위의 주체인「나」에 대해서 깊이 따져 생각해보지 않고 살기가 일쑤다.

「나」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나」인가?

우리들은 몸과 마음(망상심)을「나」라고 여기고있다. 이 몸뚱이를 살찌우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또 좋은 옷을 입혀주고, 이 몸뚱이를 편안하게 하기위해 별짓을 다한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만족과 쾌락을 갖기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다. 내 마음에 맞으면 좋아서 웃고, 기뻐하고, 내 마음에 안맞으면 짜증을 내고 화를낸다.

따지고보면 이 몸과 마음(망상심)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우리들은 온갖 노력을 다하고 애를쓰는 것이다. 이것때문에 갖가지 생활양태가 벌어지고, 갖가지 문제가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내 호적을 거둘때 과연 나는 무엇이런가?

우리는 이몸과 망상심을「나」라고 여기는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며, 이 전도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모든 시비, 고뇌, 고통이 따르게 된다. 꿈속의 내가 실이 아닌 것처럼 이 몸과 망상심은 실이 아닌것이다. 즉 나를 구성하고 있는 육체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인 오온(五蘊)은 공(空)한 것이다. 오온이 공한 도리를 알 때 모든 고뇌는 사라지고, 참 나를 알게 되는 것이다.

◆남가주의 하오—중서부와 동부는 폭설과 강풍의 때늦은 한파에 시달리고 있지만 남가주의 샌디에고 앞바다는 보트타는 사람들이 로맨틱한 실루엣을 드리운채로 여전히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이다.

교민·동정

◆박부용(전 한국일보사식자부장)=지난 1일 3355 Kingston Rd.의 가게(Jug Country)를 인수했다. 전화 267—2292.

◆정번헌=강신봉 한인회장 때 부회장을 지낸 정씨는 최근 세인트·캐서린에서 선물센터를 차려 성업중.

◆최영호(한인천주교회 친교부장)=지난11일(일)부활절에 세례를 받은 42명의 새신자 환영파티를 하오3시 성당지하 친교실 에서 열어 기쁨을 안겨 주었다.

동교회는 이들 신입교우들에게 신약성서를 각각증정했다.

◆정해봉(전경북향우회 회장)=과거 삼복정을 경영한바 있었는데 지난3일 시청앞(블루아×서본 써브웨이 뒤)을 빌려서 화초 도, 소매상을 개업했다. 2만3천스퀘어피트의 광대한 땅(파킹장)을 빌린 정씨는 "지난 여러차례 사업실패를 이번 사업으로 만회 하련다. 사실 이번 경우도 만 3년동안이나 끝다가 내가 맡게된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이 장소에 6층건물을짓게 되는데 이것도 전부 내가 맡기로 계약이 끝났다. 아직 자세한 구상을 말 할 단계는 아니나, 금년에는꼭 다시 일어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활절을 전후해서(사흘동안)약 1만5천달러의 매상을 올렸다는정씨는 사업에 성공만하면그간 신세진 여러사람을 잊지않고 보답하겠다고.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僑胞文人 移民소재册

本國서 붐

수필집·시집·소설등, 본국동포엔 教科書 역할

(LA지사)

미주지역 교포문인들이 이민생활의 현실을 소재로한 책을 본국에서 발행하는 경향이 늘고있다. 수필이나 시집, 소설등 본국출판사를 통해 나오는 책들은 교포사회로 역수입되기도 하나 본국 서점에서, 더 인기를 끌고있어 이민생활에 대한 본국인들의 관심을 대변해주고있다.

특히 일상생활에 가깝고 비교적 쉽게 읽히는 수필집은 미국생활에 필요한 상식과 교훈도 얻을수있는 교재의 역할도 갖고있기 때문에 잘팔린다고.

교포사회가 형성되면서 나오기시작한 이같은 책들은 처음에 새로운 사회의 생활에서 겪는 애환에 대한 호기심에서 독자들에게 읽혔으나 80년대에 들어서 각종 이민사회의 실질적 정보자료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포문인들의 본국출판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김성혜씨의 「이민가족」, 위진록씨의「이민10년생」등 수필집과 곽상회씨의 「바다건너 목관악」, 박남수씨의 「사슴의 관」등 시집들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미주지역으로 보급되는 이들 서적에 대한 교포들의 반응은 약하다고 LA지역 한 서점상은 전했다.

그동안 교포사회내에서 직접 출판된 책들도 종교관계서적을 제외하고는 거의 교포들에게 외면당해온 현실이 이같은 본국 출판의 경향을 더욱 부채질하고있는것으로 꼽힌다.

이민생활을 주제로한 수필집저자들도 서전에서 이민수속자, 이민희망자, 이민한 친지들 생활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임을 밝히고있어 본국독자들을 겨냥한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김성혜씨 「이민 가족」
위진록씨 「이민 10년생」
곽상회씨 「바다건너 목관악」
박남수씨 「사슴의 관」

金투자價値가 줄고있다

값계속떨어져 年內 온스當 2백50弗전망

蘇·南阿共·印尼·中東등 큰타격

생산·投資家들 비명

西方 高金利에 영향

금값이「기록적인 수준」까지 치솟았던 지난80년 금사재기에 여념이 없던 투자가들은 올들어 금값이 계속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고있다.

한때 「부의 영구보존수단」으로 간주됐던 금의 가치가 크게 떨어짐에따라 금생산업자나 투자가들 모두에게 큰 타격을 안겨주고있다.

세계적 경기침체를 부채질해온 고금리에 자극받아「금의 확보」에 몰려있던 엄청난 액수의 자금들이 이제는 증권투자쪽으로 급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지난80년 1월부터 온스당 최고 8백75달러까지 치솟았던 금값이 지난주에는 온스당 3백12달러를 기록하는 급락세를 보였는데 일부 분석가들은 금값이 금년중으로 온스당 2백50달러까지 떨어질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세계금시장의 이같은 동향은 각국에서 커다란 우려와함께 상당한 파급효과를 던져주고있다.

세계주요 금생산국인 소련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금값하락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있으며 중동의 투자가들은 유가하락의 효과를 상쇄시키기위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금을 방출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이다.

또 금값이 고등세를 보였던 지난80년 1백80만온스상당의 금을 사들였던 산유국 인도네시아도 현재 금값의 폭락으로 인해 크나큰 손해를 보고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의 안전한 투자수단으로서의 금의 중요성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의 폴랜드및 중미의 긴장 사태가 금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플레율을 웃도는 서방제국의 고금리가 금값하락의 주요요인으로 작용, 투자가들로 하여금 현금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분석가들은 금의 가치가 재정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지난80년 약30억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를 누렸던 남아공은 지난해 40억달러 가량의 국제수지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달초 처음으로 남아공의 화폐인 랜드화가 달러가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해버렸다.

온스당 1백달러의 금가 하락으로 인해 남아공정부는 약10억달러의 재정적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데 경제전문가들은 금값이 올라가지 않는한 이같은 적자폭은 올해중으로 10억달러수준 이상까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금값하락으로 인해 이윤을 내지못하고 있는 남아공의 일부 광산회사들은 경영이 건실한 회사들에 병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오웬·허우드 재무상은 최근 금년도 남아공의 금생산량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스위스의 한 금거래관계자는 지난2년동안 금을 사들이기에 여념이 없었던 세계여러 소국들의 중앙은행들이 요즘 외환보유고에 걸맞지않게 너무 많은 금을 확보하고있는 관계로 유동성의 문제를 안고있다고 지적했다.

장로. 집사취임예배

새로운 한인교회의 탄생과 함께 장로 집사의 취임예배를 드리고저 합니다. 형제 교우 여러분께서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때 : 1982년4월18일 오후 1시30분
곳 : 한 인 교 회
(West Minster United Church)
69 William Street (Lawrence Ave 북쪽과 Hwy 401 남쪽. Jane St. 과 Weston Rd 중간에 위치)
설교 : 이 상 철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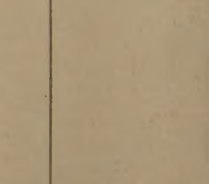
한인교회임시운영위원회삼가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 CASH & CARRY —

● KISKO $4.19
● KISKO KID $3.25
● SNACK IN MOUTH $5.80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



해병대 창설
33주년기념식및
제4회 정기총회

삼군에 앞장서는 해병이 카나다에서 33년전 한국 진해 덕산 비행장에서 창설한 찬란한 해병대의 전통을 자랑하는 기념식과 총회를 갖게 사오니 해병 전우회원 가족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할것

일 시 : 1982년 4월17일(토) 오후7시30분
오후 7시30분
장 소 : 크링톤 하우스
693 Bloor St. W.
회 비 : 10불
연락처 : 김 명 정 총무 (652-0370)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해병 전우회장
남 상 현

<법률상식>

Legally Speaking... a CLEO publication

자전거도 면허증 제도있어

운행시 일반도로교통법 적용

모펫·모터사이클 헬멧착용의무

곧 날씨가 풀리면 거리에는 자전거의 행렬이 등장한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혹은 레이크레이션용으로 자전거를 즐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자전거 전용도로가 따로 있으나 그렇지 못한 캐나다에서는 언제나 자전거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흔히 지나치기 쉬운 자전거나 모토싸이클 이용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도로법규, ●법적 권리와 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한다.

—자전거나 모토싸이클 이용자들의 권리와 책임—

(1)도로법규

당신이 10스피드(기아10단)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거리를 달리고 있을때 바로 앞 횡단보도를 보행인이 건너고 있다. 당신은 보행인을 피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 서지않고 그냥 지나친다. 흔히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광경이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분명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위반이다. 자전거도 모토싸이클이나 자동차처럼 도로법규의 영향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은 자전거도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자전거나 모토싸이클 면허는 주정부에서 발행하나 자전거면허는 시당국에서 발행한다. 타운이나 시의 행정당국은 독자적으로 주정차나 제한속도, 자전거 면허등과 같은 교통법규를 제정한다. 자전거에 모터가 달린 소위 말하는「모펫」(Mo-ped)도 자동차량에 속하지 않는다. 모펫은 모토싸이클보다 작고, 가볍고, 느리다. 따라서 모펫은 면허가 필요없으나 모토싸이클 운전자처럼 꼭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해진후 30분후부터 해뜨기 30분전까지를「밤」(어둠)이라고 규정하고 자전거와 모펫도밤에 꼭 라이트를 사용할 것을 명시했다. 앞에는 흰거나 노란라이트, 뒤에는빨간라이트나 반사경을 부착해야 한다. 또 자전거는 앞뒤에 1인치폭의 반사테잎 을 10인치 길이로 붙여야 한다. 앞은 흰색, 뒤는 빨간색의 테잎을 사용한다.

자동차가 지켜야하는 일반도로법규는 자전거, 모펫, 모토싸이클에도 적용된다. 즉 스톱싸인에서 서야하며, 회전할때는 손이나 부착된 회전라이트를 사용 신호해야한다. 다른자전거, 모펫이나 모토싸이클을 추월하려고 할때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량의 차선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자전거, 모펫, 모토싸이클에대한 도로법규에 대해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관계당국(The Ministry of Transportation)에서 정보를얻을수 있다. (내일 계속)

대머리도 치료된다

인삼·구기자등서 추출

백명중 74명이"효과봤다"

대머리도 치료된다고 한다. 중년이후 뜻하지않게 머리가 벗겨져 고심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다. 약은 일상의 식품에서 추출해낸 분말. 1~3개월간만 복용하면 새까만 머리카락이 다시돋아난다는 것. 최근 일본에서 효과가 입증돼 복용인구가 늘어나고 있단다. 치료약의 이름은 「가쓰론」. 녹색의 분말로 된 「가쓰론」의 주성분은 ▲다시다뿌리 ▲구기자 ▲적독사 ▲마늘 ▲캄프리(식물) ▲민물조개(재첩) 표고 등 8가지.

우리주변의 자연식품이 치료약으로 이용된셈이다.

이를 하루 차숟갈로 한숟갈씩 매 식후 3번씩 1~3개월동안만 먹으면 효험이 나타난다고.

약품이라기보다 건강식품에 가까우나 발모효과가 있을뿐만아니라 정력의 회복에도 특효라는것.

현재 일본에서는 이렇게 복용한 사람중 70~80%가 효과를 보고있다는 것이다.

반짝반짝할 정도로 벗겨진 머리에 솜털이 나고 1-2년간 장기복용한 사람은 검은 머리로 되돌아간 사람도 있다.

일본 산리현에 사는 H씨(53)는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지 2개월만에 백발의 머리에 검은 머리카락이 나서 이제는 흰머리와 검은 머리가 절반으로 됐다』고 했다.

또한 뒷머리가 벗겨졌던 Y씨(64)는 『1개월반 정도 복용했더니 뒷머리부분에 흑발이 길게 나기 시작, 두상부분을 둘러싸게 됐다』고 말했다.

「가쓰론」을 발명한 일본의 조진석사씨(52)도 대머리였다.

그는 각종 식품에서 대머리치료약을 개발하는데 몰두했다. 2년간의 연구끝에 자연식품중에서 원료를 뽑아내는데 성공했다. 자신의 실험으로 복용한 결과 효험이 있자 가까운 친구와 친지들에게 이를 권했다는 것.

74명중 41명은 완전히 머리카락이 나왔고 33명은 탈모증세가 중지됐다는 것이다.

가쓰론의 1개월분 값은 4천8백90엔(21달러)이다.

조깅하면 예뻐져요

직업모델인 푸른눈의 줄리·부토(18)양의 아름다운 몸매. 영국 웨스트 미들랜즈 출신의 부트양은 매일 집근처의 언덕을 조깅, 이같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

<캐나다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145)

팔리·모왓 원작·현재훈 옮김

아니 우리는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해야할것은 이들 원주민에게 그들의 땅에서 자신들의식량을 공급받을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어야 할것이다.

밀가루나 베이킹 파우더는 그들의 식량으로 대치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한사실이다. 북극땅은 이러한식량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 그땅이 공급해 주는것은고기이다.

문제는 어떻게하면 북극사람들에게 다량의 고기를 얻을수 있도록 하겠는가에 달려있다.

한때 북쪽에서 그많던고기가 어찌되었는지 알아보자. 사슴의 운명에 모든 동물들의 운명이 의존되었다. 어떤 아주 중요한 동물들은 거의 없어져 버렸다. 사향소, 일각고래, 그리고 일반고래들이 그예이다. 그외의 다른것들도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육지와바다는 옛날처럼 인간의 식량을 위해서 다량의 수확을 낼수없게 되었다. 동물의 피가 너무 무자비하게 흘려져서 불길한 그땅의이름이 사실인것을 증명하게 되었다. 즉 바렌,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바다에서 많은 동물의피를 흘렸고, 또 계속 흘리고 있다. 물개잡이 배들은 동쪽해안선에서 눈부신 활약을 해왔다. 고래잡이 배들도 이에 뒤질쎄라. 한때 허드슨 베이와 이 캐나다 대륙끝에는 모든 해협으로들어와서 살던 이른 젖먹이 동물들을 모조리 잡아 버렸고, 이와함께 그지역에살던 에스키모들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동물을해치우는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있다. 해안선 에스키모에게 가장중요한 바다동물이었던 해마(Walrus)의 숫자가 매우 심각하게 줄어들었는데 주로 R.C.M.P. 무역자들, 선교사들이 매년 개밥을 위해서 필요한 양의 세배가넘는 광장한 숫자를 죽여버리곤했다. 처칠에서는 최근 1949년 정부의 전면적인 허가를 받아 흰고래 가공공장을 세웠다. ("벨루가" 라고 더잘 불려짐)

이들 짐승들의 고기는남쪽으로 운송되어 여우를기르거나 정원의 비료로 사용된다. 북해도의 많은 에스키모들은 바다동물들 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선으로 주식을 대치하고 있지만생선마저 먹지못하는 형편이다.

1949년 에스키모들이 거의 생선만 잡아먹고 사는 지역에 노바 스코시아의배들이 몰려와서 새로운 생선가공공장을 열었다. 만일 그지역에 이렇게 악랄한 절도행위에 대하여 군인들이 개입해서 단호하게 막지 않았던들 여러명의북극 전문가가 맹렬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이 생선가공공장들 때문에 거기에 살던 에스키모들은 재난을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북극전연에 비일비재했다. 북극 사람들의 생명줄을 파괴해서라도 우리에게 어떤 금전의 이익이 생긴다면 우리들은 이들을 파괴하는데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정부의 한기관은 스포츠맨들로부터 수천불씩 받아내서 정부비행기로 카리브가 떼를지어 다니는 곳으로 데려다 주어 단지 스포츠를 위해 에스키모들의 목숨이 달린 주식을 마음대로 잡게하면서 한쪽으로 당국은 자연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당국은 또한 고기의 양이 많은 적은숫자의 야생동물들을 백인들의 스포츠와트로피 헌팅을 위해서 "오락용"이라고 법으로 규정 해놓고 이들 동물들을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이 생존의 목적으로 이용하는것을 거부하고 있다.

북쪽의 동물들을 대량히 살하는것을 지지하는 어떤 전문가들은 에스키모와 인디언들이 긴안목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문화권에 일부분이 되어진다면 우리의음식을 익혀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주장은 북극의식량인 동물을 마구 잡도록 정당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될까? 에스키모와 인디안은 주로 북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얻는 육류에 대해서 살아온 습관으로만 지탱할 수 있는것이다. 더욱 중요한것은 그들은 동물고기와 지방분에서 발견되는 특수한 영양분이 항상 필요한 것이다.

북쪽의 원주민에게 그들의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마치 우리들 이 우리땅에서 생산되는 원칙적인 주산물을 버리고 먼 외부로부터 수입해온 이상한 음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는것이 상식에맞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들이 이사람들의 입으로부터 강도질한 이식량을 어떻게하면 복귀시킬수 있는가 하는것이 문제이다. 그해답은 우리들이 이것을 해야만 될것이다. 카리브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는 명백한 예가 될 것이다. 만일 백인들이 자기들 중심의 욕심을 억제할수 있다면 바렌땅에남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식량을 쉽사리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형,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3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묵

외국면허소지 의사 및 치과의사를 위한

제6회 국가시험 시행공고

1. 시험종별 : 가. 외국면허 소지 의사 국가시험
   나. 외국면허 소지 치과의사 국가시험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외국의 의사 및 치과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당해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한자
3.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시
   가. 접수마감 : 82.6. 5까지 해당공관 또는 6.23까지 국립 보건원에 접수
   나. 시험일시 : 82.6.24 10:00시
4. 시험과목 : 가. 의사 : 국사, 보건의약관계법규, 예방의학
   나. 치과의사 : 국가, 보건의약관계법규, 실기시험
5. 시험방법 : 주. 객관식 병행하며 외국면허소지 치과의사 실기 시험은 학과시험 종료 직후 시행
6. 시험장소 : 국립보건원(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7. 구비서류 : 가. 응시원서1부(당관 또는 국립보건원 교부)
   나. 외국 면허증 사본1부
   다. 건강진단서1부
   라. 신원증명서1부
   마. 당해국 영주권 취득 증명서류1부 (공관장 확인)
   바. 사진6매(동일원판의 납모 정면 상반신 명함판)
   사. 수수료 : 2,000원에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 ($3.50)
8. 기타 상세한내용은 총영사관이나 국립보건원 보건고시과 (서울 전화 388-0091/8)에 문의 하시기 바람.

주 토론토총영사관

공 고

1982년도 본 이사회의 임원을 공고하나이다.

이 사 장 : 박 희 민 목사
부이사장 : 구 연 원
총 무 : 이 건 길
재 무 : 김 수 웅
서 기 : 강 철 용

1982. 4. 1

토론토한인합창단재단이사회
이사장 박 희 민

이사회"친목의 밤"에의 초대장

새 봄이 왔읍니다. 본 합창단 재단 이사회에서는 새봄과 함께 새로 취임하신 본회 이사 장 박희민 목사님과 새 임원진의 출범및 그 동 안 수고하신 구임원진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이사회 친목의 밤을 열며 각 이사님 내외분과 새로 이사회에 가입하실 분들을 초청합니다. 바쁘시지만 꼭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지나 시기 바랍니다.

시일 : 1982년 4월18일(주일)저녁7시
곳 : CHINA HOUSE (781-9122)
925 Eglinton Ave. W. (Bathurst 서쪽)

1982년 4월 1일

토론토한인합창단 재단이사회드림

봄철景氣가 안풀린다

2월豫告指標 0·9로 不況
上半期중에는 회복 어려워

消費저조·輸出증가율감소가 主因으로
企劃院조사는 "投資好轉돼 展望 밝다"

봄이되면 피부로 실감할수 있을정도로 경기가 회복되리라던 당초예상과는 달리 국내경기는 계속해서 지리한 침체현상을 보이고있으며 적어도 올상반기중에는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2월중 경기예고지표는 0·9로 연달아 3개월째 같은수준에 머문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예고 지표는 2~3개월후의 국내경기동향을 예고해주는 것이니까 4~5월께가돼도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된다。경기예고지표는 2·0이상3·0이하가 호황(과열)、2·0이하 1·5이상이 상향성 안정권、1·5이하 1·0이상이 하향성안정권、1·0이하가 불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2월중 경기예고지표가 0·9에 머문것은 소비가 저조하고 수출이 부진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지표상 수출증가율은 지난 1월이 3·3%、2월이 2·5%로 80년이래 가장낮은 수준이었으며 수출수요액(신용장내도액)도 연속 6개월째 감소하는 현상을보였다。신용장내도액 감소율은 2월중 6·8%、1월중 3·9%、지난해12월중 4·2%、11월중 11·9%、10월중 7·4%、9월중3·6%였다。

경기예고지표를 구성하는 18개의 개별지표중에서 호전현상을 보이고있는것은 총통화、은행대출금、건설자재생산지수、건축허가면적등 4개뿐이고 나머지14개는 모두 부진현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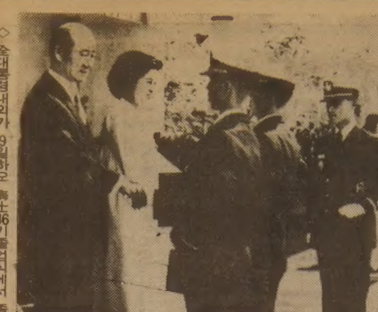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2월중의 경기예고지표를 만들기위해 작성하는 각부문의 개별지표는 경기추세파악을 위해 2월뿐만 아니라 1월과 작년12월의 이전 석달간 月別증가율을 산술평균한것이므로 매월의 경기현황을 민감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

경제기획원이 최근집계한 2월중의「산업활동동향」은 작년10월이래 계속 마이너스의 하향세를 보여온 산업생산과 출하가 처음으로 각각2%및 3·6%의 상향세로 반전했고 투자마인드를나타내는 민간제조업의 기계、건설발주도 작년같은달 대비 28·2%와 1백86·5%가 각각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경기가미약하나마 고개를 드는 기미를 보였다。

생산·투자등 이같은 內需부문의 완만한회복기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계속 부진、경제기획원이 작성하는 경기종합지수상의 2월중 경기동향도 1월보다0·6%감소、더욱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경제기획원당국자는 지난3월중에도 기업의생산·투자활동이 호전세를 지속했고 산업은행과 경제단체들의 최근 기업서베이결과도 경기의 상승세가 전망되고있어 지난2월부터 회복세로반전된 경기추세가 앞으로도지속될수있는 전망이 크다고만 하고있다。

"平和의 擔保는 힘
國力배양이 北韓모험주의 포기케"
全대통령、海士졸업식 諭示



◇全대통령내외가 9일하오 海士36기졸업식에서 졸업생들과 일일이 악수、격려하고있다。【聯】

【鎭海=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9일『國力의 형성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건실하고 근대화된 정치力量의 축적、튼튼한 경제력、그리고 전쟁억지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군사력등에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이러한 國力배양의 노력이 더욱 우렁차게 계속되는 한 南北韓간의 힘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것이며、궁극적으로 北韓도 모험주의와 對決주의를 포기하지 않을수 없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제36기 해군사관학교졸업식에 참석、諭示를통해 이같이 말하고『우리는 대화를통한 평화정책과 통일을 실현하고자하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를 뒷받침하는 國力의 배양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민족화합 民主통일에대한 염원은 절대적인것이며 역사의召命은 엄숙한것』이라고 말하고『유구한 民族史의 脈絡에서 볼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민적의지와 힘을한데모아 이룩해나가야할 최대의 과업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인것』이라고 역설했다。

全대통령은『北韓은 武力으로 赤化통일하고자하는 민족自害의 對南전략을 지금까지 한시도 버린적이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접·간접의 침략수단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허점만을 노리고있는것』이라고 거듭 지적하고『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평화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땅에는 평화가 定着될수없으며 또통일을향해 접근해갈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냉철히 인식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라고 설명했다。

全대통령은 따라서 평화에대한 擔保는 힘이라고 강조하면서『이것은 南北分斷후 30여년간 北韓공산집단의 잔요한 침략위협과 對峙하면서 우리가 체득하게된 교훈인것』이라고 말했다。

韓國重工業 시찰

【昌原=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9일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경남昌原市昌原기계공단에 있는 한국중공업에들러약1시간에걸쳐 공장현황청취및 시찰을했다。

全대통령내외는 이날하오4시25분 현장에도착、상황실에서 朴正基사장으로부터 공장현황을 보고받은뒤 국내외의 受注비율、인사관리문제등에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經協아직異見
마에다駐韓日大使 밝혀

【東京9日聯合】스즈끼일본수상은 韓·日經協문제를 토의하기위해 다음주 마에다駐韓대사와 만날것이라고 9일말했다。

스즈끼수상은 이날아침 다음주에 마에다대사로부터 經協문제에관한 보고를 들을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는데 그는 閣議에서 사쿠라우찌외상으로부터 이문제에관한 브리핑을 받았다。

본국정부와의 정무협의차 도오꾜에 체류중인 마에다대사는 8일 사쿠라우찌외상과 만난자리에서 경협문제에 대한 한일양국간의견해차가아직도 상당히있다고 말했다。

人夫등 4명死亡·6명失踪
地下鐵사고 地盤붕괴위험 시체발굴지연
45명負傷

서울西大門區峴底洞 구치소앞 지하철공사장 대형 붕괴사고의 희생자는 9일하오 서울 강재공 金好經씨(30·충남 燕岐郡全東面松亭里15)등 4명이 숨진것이 확인되고 강재공 金漢奎씨(26·서울西大門區龍頭1洞75의2)등 6명이 실종된것으로 밝혀져 희생자는 모두10명인 것으로 보인다。또 중경상자는 시내버스승객 35명을 포함、현장인부등 모두 45명으로 최종집계됐는데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이날 하오 현재 사망자 4명의 시체를 발굴、서울간호대학부속병원과 西部시립병원에 안치했다。

이날 참사는 지난71년4월12일 서울시내의 지하철공사가 시작된후 첫대형사고였다。

희생자들은 복공판위에서 H빔을 크레인에 실어주거나 발파작업관계로 일단지상으로 대피해있던 현장인부들로 갑자기 복공판과 지반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바람에 미처빠져 나오지 못해 변을당한것으로 추정된다。

대책본부는 9일하오까지도 지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고 지하에 물이 괴어있어 수색작업을 제대로 펴지못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시체발굴작업은 물을 퍼낸후 뒤엉킨 철제를 제거한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4명) ▲金好經씨(39·서울江東區千戶2洞...·착암공) ▲金斗萬씨(30·충남燕岐郡全東面松亭里15) ▲金秀山씨(32·...) ...

◇실종자(6명) ▲강석길(남·착암공) ▲金漢奎(26·西大門區龍頭1洞75의2·강재공) ...

劉총리、現場시찰

劉彰順국무총리는 9일하오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서울시관계자들에게 사고의 조속한 수습과 피해자들에대한 보상등을 지시했다。

社告

'82 미스코리아選拔大会
5월15일 下午5시 世宗文化會館대강당

新綠과 더불어 매년 5월이면 젊음의 환희와 선망이 한 『美의 祝祭』、82年度 미스·코리아選拔大會가 한국일보社·太平洋化學工業株式會社 共同主催·태평양패션 協贊으로 오는 5월15일(土) 하오5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우리記憶에도 생생하듯 世界最大 美의올림픽인「80미스·유니버스대회」도 우리 서울에서 開催되어 전세계 6억 TV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을뿐 아니라 우리 海外동포들의 가슴을 뜨겁게 감동시키고 놀라도록 發展한 우리 한국과 한국 固有의 傳統文化를 소개함으로써 그동안 잘못 인식되었던 코리아를 참모습으로 국위를 선양했다는 사실로 우리 여성外交의 큰 성과가 아닐수없읍니다。

황홀한「美와 知性의 祭典」
서울豫選 5월2일

眞에 留學특전… 1천만원지급
세계 6大 美人대회 파견 榮光

올해 미스·코리아선발대회는 5월2일(일)하오2시에 한국일보社13층 松峴클럽에서 非公開로 미스서울을 선발하고 여기서 서울대표와 全國各市道에서 엄선된 代表들、그리고 美洲 6개도시、일본、캐나다、호주、브라질等地에서 대표로 참가하는 해외동포 미인들이 한 무대에 모여 아름다운 기량을 통해 5월15일 결선을 향하여 정열을 나누며 겨루게 됩니다。여기서 선발된 미스·코리아 眞 1名에게는 국제대회참가금및 유학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드리게 되며 국제대회 참가후에는 海外留學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그밖에 善 1명、美 1명、미스·한국일보 1명、미스·태평양화학 등 5명의 美人을 선발、6개 국제미인대회에 출전하게됩니다。한편 결선대회의 豪華무대는 아름다운 女性만의 것이며 한국을 대표하여 출전할 세계적 美의 사절로서 세계 미인들과 겨루게될것입니다。

서울豫選

▲일시: 5월2일(일) 하오2시
▲장소: 한국일보社 13층 松峴클럽
▲응모자격: ①만18세~23세 미만의 미혼여성 ②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③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유자
▲제출서류: ①소정신청서 2통 ②상반신 명함판 사진 3장
▲준비물: 수영복 1착(형및 색깔은 자유이나 원피스이어야 한)

전국決選

▲응모신청 마감및 장소: 4월12일(월)부터 4월28일(수) 하오5시까지 한국일보社 사업부 및 태평양화학 선전부 및 시내 各美容모상담소
▲심사기준: 미스·서울 선발대회는 수영복심사만하며 비공개로 진행됨
▲일시: 5월15일(토) 하오5시
▲장소: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국제대회 출전경비

「眞」1명: 국제대회 출전경비및 해외유학 장학금 1천만원및 해외유학의특전
「善」1명: 국제대회 출전경비 3백만원
「美」1명: 국제대회 출전경비 2백50만원
「미스·한국일보」1명: 국제대회 출전경비 2백만원
「미스·태평양화학」1명: 국제대회 출전경비 2백만원

응모 상담소

▲태평양화학홍보실(한강로2가) ▲롯데아모레코너(롯데백화점內) ▲신세계백화점 ▲미도파아모레코너 ▲코스모스아모레코너 ▲제일백화점 ▲새로나백화점 ▲지아모레코너 ▲YMCA미용실(명동) ▲세븐미용 ▲구반포아파트 ▲신라미용실 ▲조선호텔미용실 ▲신신미용실 ▲오패션 ▲코스모 ▲제일백화점 ▲사보이호텔 ▲우정미용실 ▲허준뷰티 ▲조미용실 ▲김영미용실(명동) ▲오수미미용실 ▲타자학원 ▲준이미용 ▲아오미용화 ...

한국일보社 日刊스포츠 太平洋化學 共同주최

"자수間諜 罪科不問
李文公 취업도 알선…새생활 적극지원"

◇李文公

정부대변인 李光杓문공부장관은 9일 간첩자수및신고기간을 10일부터 오는5월10일까지 한달동안을 간첩自首및申告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이기간중 자수하는 자에게는 罪科를 묻지 않고 소정의 생활정착금기금과 취업알선등 자유대한에서의 새생활을 적극 지원하기로했다。

李장관은 강조기간설정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이같이 밝히고『모든국민은 투철한 對共안보의식과 自衛정신을 발휘、주변에 숨은 간첩을 찾아서 對共상담소나 가까운 경찰관서、군부대、기타국가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李장관은 담화문에서 특히 북괴는 金日成의 70회 생일을 맞는 금년을 南韓赤化를 위한「혁명투쟁 역사에서 빛나는 해」로 정하고 南韓간첩들에게 金日成에 대한 충성의 생일선물로서 反美·反정부 불온비라를 학원가와 도심지에 살포하고 釜山美문화원 방화사건과 같이 정부기관、美대사관、미군기지등에 방화해 反美사상을 확산시킬 것등을 지시하고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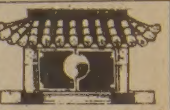
社会漫評

다음 차례…

地平線

「영국병」으로 유명한 영국은 이제 자랑할만한게 별로 없는 것으로 자칫 착각하기 쉽다。한때 세계를 주름잡은 산업혁명의 나라지만、아닌게 아니라 이제는 유럽에서도 가난한 나라로 칠만큼 돼있다。지난 연초 서독의 드레스덴은행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자면 영국의 공업노동자들은 서독의 57%쯤의 소득을 올리고있다한다。▼1시간당소득으로 칠때 서독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나라는 벨기에와 스웨덴、서독 밑으로는 미국、네덜란드、이탈리아、프랑스、일본、그리고 영국이다。그러나 영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소득이 서독의 57%인데 비해 더 떨어져서 50%다。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국의 근로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 서독근로자들 보다 높은 품삯을 받고 있다는 말이 된다。▼가난하지만 그만큼 일도 남보다 덜 하는 국민이 영국사람이다。그러나 세계에서 영국 사람만큼 행복하고、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도 없다。로마교황청이 중심이돼 각국 사회학자들을 동원해서 조사를해본 결과가 지난 연말에 나왔었다。이 결과에 의하면 유럽에서 가장행복하다는 국민은 영국이고、가장 불행하다는 국민은 돈많은 서독사람들이었다 한다。▼「조국을위해 싸우겠다」는 사람도 영국이 62%로 최고였고、프랑스에서는 겨우 28%였다。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즐기되、애국심은 남못지 않은 국민이란 얘기다。『영국기동함대가 포클랜드로 떠나던 부두에는 아주 향수어린 분위기가 감돌았다。병사들은 조국의 명예를 지키기위해 용감하게 항해길을 떠났다』는 워싱턴·포스트의말도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포클랜드 작전은 쪼들리는 영국에 약 3억5천6백만달러(2천5백67억원)의 출혈을 강요할것이라고 한다。그렇다고 포클랜드섬으로부터 아르헨티나군을 몰아내기엔 힘이 부칠것이라고 영국의 전략문제연구소는 내다보고있다。그러기 위해서는 2만명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포클랜드의 해상봉쇄가 고작일 것이고、어느쪽도 군사적승리란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에 밀고올라간 것은 석유때문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지만、미국 에너지성은 이런 의견에 회의적이다。기름이 나올지는 파봐야 안다는 것이다。그보다는 영국이 해군예산을 깎기로 결정하고、아르헨티나에 데모가 일어났기때문일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도 보고있다。영국함대가 현장에 도착하기전에 미국의 협상노력이 성공하기를 빌뿐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본사서 주5일
식품점에 신문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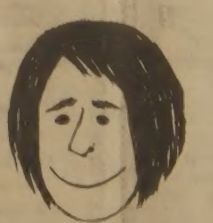
식품점에 가시면

⊙새로나온 〈한국일보〉가 있읍니다.
⊙아내에의 선물〈주간여성〉도있읍니다.

※토론토한국일보사는 토론토 부근 10개 한국식품점에 당일 발행된 신문을 매일 배달, 판매합니다.(단 : 미시사가소재 식품점에는 당분간월·수·금요일만 배달)

—한국일보사—

TORONTO C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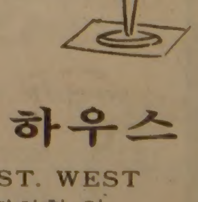


● 토론토 장은 노래를 잘하고 항상 손님에게 친절하다고 그러더군요.
● 토론토 장은 세계명문의 제품을 고루 갖추고있으며 교포여러분의 귀국시 선물을 택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저 염가 할인 제공하고 또한 교통편이 불편하신분을 위하여 항상 차편을 준비시켜 놓고 있읍니다.
● 토론토 장은 미도파백화점은 오리엔탈파레스 건너편에 있어 아주 찾기 쉽고, 뒤에 파킹장이 있읍니다.
● 토론토 장은 귀국선물의 품목을 간추려 알려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핸드백, 화장품, 스카프, 넥타이, 세무코트, 런던포-그바바리, 라이터, 지갑, 벨트, 전기면도기, 전자품, 우황청심환, 녹용, 제부랑티, , 각종 부로친 조대쉬, 각종보석류, 피에르가르뎅 세타및 티샤쓰, 만싱웨어세타및 티샤쓰, 오메가및 부로바시계, 남여 선글라스등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신장개업
동창, 단체회의, 계모임 이라고요?
당연히 크링톤하우스지요.

○회의실(20명~100명)
○댄스룸(디스크·재키)
○게임룸
○식당(스낵바, 주문에 따라 간소한 한식도 써비스함)
○TAVERN



크링톤 하우스
693 BLOOR ST. WEST
크리스티·지하철 앞
☎535—9541 김 영 규 배

헤이그 幕後담판 半은 성공

대처와 5시간會談… 아르헨으로

和解찾는 포클랜드危機

【워싱턴9日=東亞特派員】포클랜드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헤이그 美국무장관은 레이건 대통령의 자메이카방문수행을 취소하고 8일 영국에 갔다.

헤이그는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居中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기자들의 등승수행을 이례적으로 거부했다.

대처수상등 영국지도자들과 8일 5시간회담한 헤이그 장관은「이문제에관한 영국정부의결의에찬 인상을 받고 이곳(런던)을 떠나게된다」고 말했다. 영국측과의 담판이 나쁘지않았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헤이그는 9일 아르헨티나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난다.

헤이그는 그와 대처수상이『우방과 친구로서 아르헨티나 군대의 철수와 외교적해결을 호소한 유엔결의 5백2號의 구현을 돕기위해 어떤일을 할수있을지에관해 매우자세히 검토 했다」고 말했다.

대처수상은 헤이그와의 회답에서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공식협상이 시작되기전에 아르헨티나군대의 포클랜드철수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주장한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위신을 고려해서 단계적철수방안도 협의되었다고 미국과 영국의 관리들은 밝혔다.

또英·아르헨티나 협상이 진행되는동안 국제평화유지군을 협섬, 포클랜드에 진주시키는 방법도 검토되었다는것이다.

단계적 철수나 국제평화유지군 진주는 포클랜드主權문제를 보장받으면 아르헨티나가 어렵지않게 받아들일수 있는것이다.

아르헨티나는 그들이 말비나스섬으로 부르는 포클랜드에 아르헨티나 主權만 인정되면 군대를 철수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두고 있다.

영국이 협상실현을 위해 아르헨티나군대의 단계적 철수까지 검토했다는 것은 군사적 대결보다는 협상을 통한 사태해결에 크게 기울어졌다는것을 뜻한다.

아르헨티나군대의 포클랜드점거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모두 상대방을 과소평가한데서 빚어진 셈이다.

영국은 표면상일지라도 미국의 엄중 중립에 놀랐으며 아르헨티나는 그들의 곡물에크게 의존하는 소련이 냉담한반응을 보인데 역시 놀랐을 것이다.

영국은 군사적으로 포클랜드섬을 재탈환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것으로 평가되나 쌍방간에 피를 흘릴 군사적승리가 영국의 국가이익에 무슨보탬이 되느냐는것이 美국제 정치학자들의 공통된견해인것 같다.

또 美국방성관리들은 40척의 영국함대가 포클랜드를 봉쇄하기는 어렵지않으나 그 봉쇄선을 수주나 그이상 지탱하는것은 보급가능한 아센션섬이 4천마일(6천4백km)이나 떨어져있어 매우 어려울것으로 지적한다.

영국함대가 도착하려면 일주일이상을 더기다려야하는데도 오는12일 아침부터 포클랜드섬 2백마일線을 아르헨티나군함이나 민간보급선이 침범하면 발포하여 침몰시키겠다는것은 두척의 영국核잠수함에 의존하는것이나 모두군사적으로 어려운것으로평가된다.

봉쇄선을 넘어설때는 우선 경고를 한뒤 침몰시키는것이 국제관례인데 잠수함이 경고하려면 물위로 떠올라야하나 그경우 아르헨티나 공군의 좋은 표적이 된다는것이다.

물위에 떠올라 경고하지 않고 적함을 침몰시키는경우에는 강력한 국제여론의 규탄을 받을것이라는것이 美국방성의 관측이다.

함대가 도착하기전에 두척의 核잠수함 실력으로 발포선언을한 영국의 강력한 군사엄포의 참뜻은 협상을 빨리시작하자는데 있다고 풀이할수있다.

군사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에대한 아르헨티나의 主權인정만 받으면 그목적을 달성된다고 볼수 있다.

지난15년간 아르헨티나는 영국과의 유엔협상에서 主權인정을 받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멘데스 아르헨티나외장은 유엔과 워싱턴을 방문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와『포클랜드사태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양측이 협상을통한 해결에 도달하는방법으로는 홍콩의 경우처럼 영국이 포클랜드에서 아르헨티나 主權을 인정하고 25년이나 50년간등 일정기간동안 행정관할을한뒤 아르헨티나에 돌려주는것이 그하나로 꼽히고있다.

다른하나는 우선 포클랜드(헤정관할권을 유엔이나 미주기구(OAS)에 넘겨주고 주권문제는 그후에 해결한다는것이다.

헤이그는 어려운 居中조정길에 나섰으나 이미 반이상은 성공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할수있을것같다.

홍콩式 해결案 가장有力
主權 인정되면 「단계撤收」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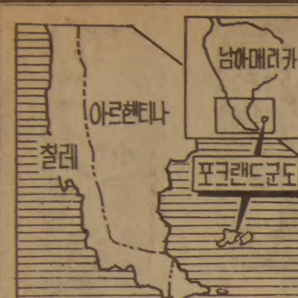
◇영국의 포클랜드군도 침공가능성에 대비 군복무를 지원한 아르헨티나 청년들이 줄지어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8日AP電送=聯合】

국제焦点

國際뉴스 ABC

한국일보는「國際뉴스 ABC」欄을 신설, 주1회씩 3면에 싣기로 했읍니다。이欄은 복잡하며 때로는 이해하기어려운 각종국제뉴스를 독자여러분의 질문에 따라 쉽게풀어 설명해드리려는 취지 입니다。국제뉴스를 이해하는데 궁금한점이있으면 한국일보 편집국외신부에 전화또는우편으로 문의해주십시오。

포클랜드는 어떤곳입니까
2백여개 섬으로 형성된 群島
住民 천8백 거의 英해군후손



―신문에 매일 보도되는 포클랜드군도는 어떤곳입니까。

▲포클랜드는 南美아르헨티나의 남쪽해안에서 1천4백km동쪽 남대서양에 2백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군도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주민은 양을치거나 고기잡이로 살아가는 1천8백여명뿐이고 펭귄이 떼지어 사는곳으로 더유명합니다。주민은 모두 제대한 영국의 해군병사나 선원의 후손이지요。

1백50여년전인 1833년 영국이 이섬을 무력으로점령, 영토로 삼았읍니다。

―왜 시끄러운가요.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가 자기나라땅이라고 주장、지난5일특공대를동원해서이섬을점령했읍니다。그러나 영국은 이포클랜드를 도로 찾겠다고선언하고 함대를 출동시키는바람에 두나라가 전쟁으로 맞붙을 기세로 나가고있읍니다。아르헨티나는 이 섬이 맨처음 영국인에의해 발견된것은 사실이지만 1828년 아르헨티나를 다스리고있던 스페인이 사들였으니까포클랜드는아르헨티나땅이라고 주장해왔읍니다。

―누가 이길까요。

▲영국은 이 섬을 도로 찾기위해 전체해군력의 3분의2인 40척 (항공모함 2척포함) 의 함정을 파견했읍니다。영국의 함대에 실린 화력은 아르헨티나전체해군의 화력보다 더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더구나 아르헨티나해군함정은 대부분 50년전 1930년대에 만들어져 낡고 속도가 느려서 영국함대를 대하기 어렵다고 알려지고있읍니다。출동한 영국해군함정은 오는 17일께나 포클랜드에 도착하겠지만 실지로 전투가 벌어진다면 영국에 승산이 있을것 같습니다。

―정말 싸울까요。

▲영국과 아르헨티나 모두 협상을할수도 있다고말하고 있고 또 두나라와 다같이 친한 미국이 중간에서 전쟁대신 협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영국함대가 포클랜드에 와닿기전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읍니다。

―협상은 어떻게될까요。

▲영국과아르헨티나가서로 포클랜드를 빼앗기지않겠다는 결의를 선언 해놓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美는 臺灣에 무기 꼭 팔아야하나
中共 진짜속셈 아직도몰라
自由 지키려는 政策의일환

―요즘 미국과 중공이 사이가 나쁘다면서요。

▲미국은 79년 중공과정식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중화민국 (대만정부)과는 국교를 단절했지요。

그런데 81년에 레이건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미국은 대만과 다시 가까와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읍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이 대만에 군사무기를 공급하려고 하니까 중공은 만일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주면 다시 외교관계를 끊겠다고 대들고 있기때문에 사이가 별로 좋지않은 것입니다。

―중공은 왜 미국에게 대만에 무기를 주지 말라고 하지요。

▲중공은 원래부터 자기네가 중국을 대표하는 진짜정부라고 주장하면서 대만까지도 완전히 점령해서 중국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말해왔어요。

그런데 미국이 대만에무기를 주고 여러가지지원을 해서 대만에 힘이 강해지면 대만을 국제적으로 외톨박이로 만들려는 자기네들전략이 틀려지니까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중공이 미국한테 대만에 무기를 주지말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글쎄요。미국과 중공은 79년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중공이 군대를앞세워 대만으로 쳐들어가지 않는다면 미국도 대만에 무기를 주지않겠다는 약속을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은 중공을 중국대륙의 유일한 정부라고인정했으면서 국교는없는 대만에 무기를 주려고하다니 이것은 약속을 어기는 일이며 내정간섭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국은 왜자꾸 대만에 무기를 주려고 하지요。

▲미국과 중공이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는하지만 역시 중공은 공산주의국가입니다。미국으로서는 언제 중공이 마음이 변해 미국과 적이 될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아직까지는 중공이 대만을 무력침공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속셈은 알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간디영접받는 마첼모잠비크대통령 사모라·마첼 모잠비크대통령이 8일 印度를 4일간 공식방문하기 위해 뉴델리에 도착 인디라·간디수상의 영접을 받고있다。【뉴델리 8日UPI電送=聯合】

英·아르헨 和戰양면모색
戰爭준비 強化속 外交타결추구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8日聯合·UPI=聯合】영국과 아르헨티나는 8일 포클랜드군도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전쟁수행준비를 본격화하는 한편으로 외교적타결에 대한희망을 각기 표명하는등 和·戰양면을 모색할움직임을보였다。

존·노트 영국국방상은 미국의 ABC방송과 가진회견에서『영국은 아르헨티나 함정들에 대해 이미 경고한바와 같이 12일 하오 1시이후 이작전수역에 들어오는 모든 아르헨티나 함정들을 격침시킬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회견에서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이 이문제와 관련한회담을 갖기위해 런던에 도착한데 언급、『만일 헤이그장관이 어떤생각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이를 경청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타·멘데스 아르헨티나외상은 이날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영·아르헨티나간의 전쟁위험은 협상을통해 해소될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귀국직후 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전쟁의 위험은 사라지고있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을통한 타결가능성에 매우 낙관적인견해를표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협상이『지리하고 복잡하며 어려운』것이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르헨티나는「남대서양사령부」를 창설한데 이어일부 예비군들을 비상소집했으며 남부아르헨티나의 코모도로·리바다비아 항등 일부 전략해안지역에서 등화관제훈련등을 실시했다。

코모도로·리바다비아로부터의 보도들은 허큘리스기등 대형 수송기들이 병력과 장비를 싣고 속속포클랜드군도로 출발하고있다고전했다。

對아르헨 武器禁輪
유럽 4개國이어 이탈리아도

【파리8日聯合·AFP=聯合】프랑스、서독、네덜란드、벨기에등 유럽4개국이 7일 무기및 군사장비의 對아르헨티나 인도를 공식 중단한데 이어 이탈리아도 8일 對아르헨티나 무기금수조치를 발표함으로써 포클랜드분쟁을 둘러싼 영국·아르헨티나간의 전투가 발생할경우 아르헨티나는 무기부족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영연방의 일원인 호주도 이날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무력점령에 대한 보복으로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상품수입을 금지했다。

포클랜드危機 중재
유엔사무總長 준비

【제네바8日UPI=聯合】유럽을 순방중인 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은 8일 英國과 아르헨티나간의 포클랜드위기를 해소하기위한 미국의 중재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자신이 이문제해결에 개입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란副外相 피습 重態
테헤란都心에서 무장怪漢에

【테헤란·런던8日AP·AP=聯合】자바드·만수리 이란부외상이 8일상오 테헤란중심가에서 혁명수비대로 위장한 3명의 무장괴한들로부터 수류탄및 자동소총공격을 받아 부상했다고 이란국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IRNA통신은 만수리부외상이 자동차를 타고 테헤란중심가를 지나던중 저격을받고 팔과다리등에 상처를입었으나 곧 병원으로옮겨져 치료를받았기때문에 위독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통신은 괴한들의 공격에 대해 만수리부외상의 경호원들이 곧 응사했으며 이사건으로 만수리부외상의 운전사가 사망하고 경호원1명이부상했다고 전했다。

이락國境 폐쇄
시리아、武器잠입 非難

【다마스커스8日AP=聯合】시리아는 8일 인접 이라크가 사보타지분자들과 무기를 시리아영토내로 잠입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추후 통고가 있을때까지 이라크와 접한 6백km의 국경선에대해 폐쇄령을 내렸다。

시리아내무성은 이날 시리아정부가 오랫동안 이러한이라크측의 행동을 참아왔지만 시리아의 안보를위해 국경폐쇄조치를 취하게 된것이라고 말했다。

페르시아만 연안산유국들은 야채와 식료품등 수입품의 대부분을 시리아와 이라크를경유하는 육상통로를 통해 유럽과 터키로부터 수입해오고있다。

美 뉴저지號 太平洋 배치

【東京8日AP·AFP=聯合】미국은 소련의 동아시아 군사력증강에 대처하기위한 미방위력증강노력의 일환으로 2차대전과 한국전에 참전했던 초대형전함「뉴저지」號(5만8천톤)를 미태평양함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찰즈·도널리 주일미군사령관이 8일 밝혔다。

뉴저지號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등 신예무기를 장비한 뒤 오는1983년10월경 태평양에 배치될것으로 알려졌다。

1천5백명의 승무원을 태우는 뉴저지호는 1943년에 처음취역、2차대전과 한국전에서 아이오와號、미주리號및 위스콘신號등 3척의전함과함께 활약했으며 1969년에는 월남전에도 참전、1백20일간 작전을벌인뒤 69년 퇴역했다。

메아리
4월의 雪花

「松林에 눈이 오니 가지마다 꽃이로다/한가지 꺾어 내어 임 계신데 보내고저/임이 보신후에야 녹아지다 어떠리」(鄭澈의 松江歌辭)

굽이굽이 雪嶽의 산간엔「4월의 雪花」가 松江의 시정처럼 피어 났다。賞春客들이 한창인데 날씨造化는 정녕 어림잡기 조차 어렵다。

봄은 일기변화가 심한 계절이다。대설주의보와함께 내린 때아닌 폭설이 큰「異變」은 아닙니다。최근 몇년새 4월의 강설은 으레 있었다。서울엔 77년4월18일 눈이 내렸고 멀리 남녘 목포에도 80년4월14일에 눈발이 뿌렸다。

설악의 최고봉엔 5월의 폭설기록도 있다。80년5월17일 초여름 大靑峰엔 60cm의 눈이 쌓였다。69년 5월12일 이후 12년만의「기록경신」이었다。

4월 한파의 異常은 미국에서 극성을 떨었다。눈보라가 치고 1백1년만의 기록적 봄추위가 몰아닥쳤다。희생자가 나오고 주요도시가 꽁꽁 얼어 붙었다。

지구촌의 이상기후현상은 194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暖冬、冷夏、猛暑、酷寒이 엇갈려 가며 세계곳곳을 괴롭혔다。몇전년 일본기상청은 기후이변이 금세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장기전망을 내놓았다。지구 北반구의 寒冷化 경향 탓이란다。아직까지 이상기후의 원인을 속시원하게 꼭 찍어 설명해줄定說은 없다。

세계기상전문가들의「점괘」대로라면 올해도 기상이변은 피할길이 없을것 같다。세계적인 냉해와 한발이 덮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일찍부터 있어 왔다。3년전 제네바서 열렸던 세계기후회의에서도 기상·농업전문가들이 걱정을 나누었다고 한다。

중국대륙엔 冷夏가 예견되고 북미와 유럽은 이상기후가 주기적으로 괴롭힐 조짐이 보인다는 주장이 들린다。소련은 4년째 흉작을 면키 어려울지도 모른다。평균 기온이 섭씨1도만 떨어져도 소련은 한해 4천8백만톤의 양곡손실을 입게 된다。기상의 威力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이 갈만 하다。

「冷夏흉작」을 뼈저리게 체험한 우리 입장도 기후변화에 큰 관심을 쏟지 않을수 없다。우선 모내기철을 앞둔 봄가뭄이 없기를 빌고 싶어진다。4월의 폭설이 논물을 알맞게 채워줄 예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海外토픽

머리칼에 詩句새겨
★中共미술품 擴大鏡감상

중공 동남부 安徽省 省都 合肥시에 있는 한 미술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사람의 머리털에 새긴 詩句와 조그만 상아조각들에 새긴 풍경화등 세밀한 조각품들을감상하기위해 확대경을 소지해야한다고 중공의 관영 신화사통신이 8일 보도.

신화사통신은 이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특히 3mm 크기의 상아조각에새겨진 질주하는 모습의 8마리의 말 조각품이 바늘구멍을 지날수 있을 정도로 미세한데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신화사통신은 이작품을 새긴 명공 양·다케씨(56)는 또 길이 5cm 너비 1cm의상아조각에 故모택동당주석의 37개시귀를 새겼다고 전하면서 양씨의 조각품은 아마세계에서 가장 작은것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중공에서는 약3천년전부터 미세한 소형조각이 유행했다고. 【北京8日AP=聯合】

婚前성교 合法위험
★印尼법무상提案 큰반발

죄수들의 성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필요하다면 죄수의 부인들과 매춘부들의 감옥출입을 허용하자는 인도네시아법무상의 제안이 재야법조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봉착했다.

재야법조인들은 미혼죄수들을 위한 매춘부이용이 혼전성교의 합법화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죄수에게 감옥이 사회보다 좋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더우기 감옥을 출입하는 죄수부인들이 남편을 만나기도 전에 간수들의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반대론도 나왔다. 【자카르타=AP】

◇낙타孃의 키스 탬파 (플로리다州)의 부시공원에서 태어난 새끼 單峰낙타 매기양이 동물간호원 팬디·로빈슨양에게 열렬한 키스를 퍼붓고있다. 【탬파8日AP電送=聯合】

對아르헨 異色항의
★英主婦 닥치는대로電話

영국 웨일즈지방의 랜트리산트에 사는 에니드·먹스워디부인(37)은 아르헨티나군의 포클랜드 諸島무력강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닥치는대로 전화를 걸어『영국통치령이다』라는 한마디만 내뱉고는 끊어버리는 對아르헨티나선전전쟁에 돌입했다。

먹스워디부인은『통화를하고나니 속이 후련해지는것같다』고 말했는데 남편 데이비드씨는『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니 소름이 끼칠정도로무섭더라』고 내뱉기도。【랜트리산트(웨일즈)=UPI】

사마란치 五輪委長
劉총리、午餐서환담

劉彰順국무총리는 9일상오 후앙·안토니오·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三清洞총리공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盧信永외무、盧泰愚체육부장관、朴英秀서울시장、趙永吉 총리비서실장등이 배석했다。

코리아·헤럴드社
신축社屋 기공식

日刊英字紙 코리아·헤럴드사의 새사옥기공식이 9일상오11시 서울退溪路 舊內外經濟자리에서 鄭鎭愚사장、李光杓문공장관、申秉鉉무역협회장、文胎甲신문협회장、李元洪방송협회장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한가운데 거행됐다。

西베를린圖書館
또 爆發사고

【베를린8日UPI=聯合】西베를린의 주요시립도서관인 아메리카기념도서관에서 지난달 서베를린미문화원 폭발사건에 이어 7일하오 또다시 폭발사건이 발생했다고 西베를린경찰당국이 8일 밝혔다。

경찰당국은 이번 폭발사고로 이도서관의 많은 창문들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하고 도서관은 8일 문을 닫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日의 仲裁기대
中共、美와關係

【北京9日共同=聯合】중공全人大상무위원회부위원장 廖承志는 8일 미국의 對臺灣무기판매와 관련、긴장을 더해가고있는 美·中共간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위해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MARVIN STARR

〈취급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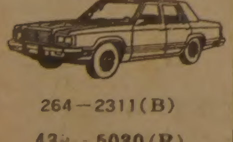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212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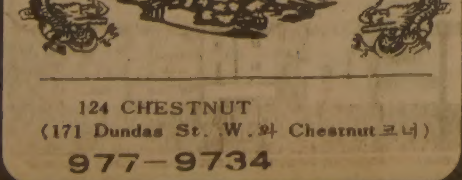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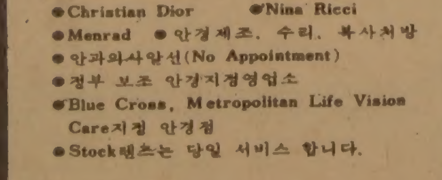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 ~ 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앞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고층 아파트먼트 빌딩들
①12층, 89Unit, 100대의 주차장을 가진 10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2,400,000
②15층, 104Unit, 129대 파킹시설, 3에이커, 실내수영장, 11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3,450,000
③12층, 241Unit, 오타와에 소재
가격 : $5,780,000

이외에 여러종류의 사업체
(버라이어티, 식당, 도넛샵, 기프트샵등)

※메트로 토론토 전역을 카바하는 가옥매매에 대해 문의바랍니다.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少數種族문화가 사라진다

U·S뉴스 엔드 월드리포트紙 실태보도

경제개발·댐건설로 터전잃어

固有언어 버리고 블루진·디스코 즐겨

氷土 라프族은 최신 난방에 포드車굴려

西歐문화 汚染… 성병·마리화나 판쳐

소수종족문화가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지구 최북단 북구권의 라프족으로부터 아마존강 오지의 야노마미인디언, 필리핀의 칼링가족, 보르네오의 비다야족, 아프가니스탄 국경의 고산족, 아프리카 칼라하리사막의 샌족, 콩고강의 피그미족에 이르기까지 소수민족들은 각나라들이 앞다투어 착수한 거대한 경제개발과 댐건설, 나라간의 영토권 분쟁으로 생활터전을 빼앗겼거나 빼앗기고 원시종족문화를 내팽개친채 방황하고 있다.

近着 美시사주간지「U·S·뉴스 엔드 월드 리포트」는「북극권문화의 멸망위기」라는 제하기사를 통해 유목종족인 라프족이 고유언어와풍습을 내던지고 현대문명이가져온 안락과 블루진, 위스키, 디스코음악의 향락적 서구문화에만 탐닉, 종족문화를 상실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파헤치고있다。「U·S·뉴스 엔드 월드 리포트」誌의 특집을 계기로 소수종족문화의 실태를 알아본다。

스칸디나비아반도의북위65~71도에 위치한 라플란드에사는 라프족은 3만명정도。이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보듯 개썰매를 타고 두터운순록가죽옷을 입고 더러운 텐트에사는 것이아니라 최신식난방설비가된 집에서 포드차를 굴리고 지난겨울 파리패션옷들을 입고 산다。

떠돌며 유목인이었던 이들에 무진장한 철광매장량이확인된후 다국적기업과 선교사들이 앞다투어 상륙, 자연神을 의지하며 살던 라프족을 기독교로 개종시켰다。

떠돌이 유목민이었던 이들은 서구식 대량방목에 의해 길러지는 순록의 고기와 가죽판매대금,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제국의 정부가 주는 복지연금등으로 연수입을 2만달러 (약1천4백만원)까지 올려 최신식 난방시설이된집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라프족은 조상이나 자연신을위해 제례를 지내려하지않고 카리브해나 리비에라 휴양지로 휴양떠날 계획을 짜고있다。젊은이들은 고유 라프족언어보다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어나 영어 불어 독어 소련어를배워 이들 나라 사회에 진출하기를 더 갈망하고있다。 모국어 기피현상이 나타나자 문화의식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성병·마리화나 매춘등이 판치게됐다。

이 문화소멸에 제동을 걸기위해 스칸디나비아 3국은 북유럽라프족문화보존기구(NSI)를 세우기까지했다。연간 50만달러(약3억5천만원)의 자금을 사용하는 이 기구는 4천년간 이어져내려온 라프민족예술을 복원시키고 TV·라디오방송을 통해 라프언어를 방송하는 한편 사라져 가고 있는 문자들을 찾아내고 있다。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라플란드에서는 라프언어를 스칸디나비아어와 함께 가르치는 곳은 국민학교뿐이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경제몰락에 허덕이는 브라질국민들의 꿋대를 높여준 아마존江 유역개발계획은 포르투갈 정복자들이 南美에 상륙하던 1500년대에 6백만으로 추정되던 원주민 인디언들을 20만으로 줄이는데 큰 몫을 했다。서구문명의 발달된 장비를 총동원한 아마존 횡단도로건설은 이유역에사는 인디언에게는 못하지않은 문화충격을 가져와 종족자체를 멸망의위기로 몰아넣었다。아마존강지역에 생존해있는 9천명의 야노마미족은 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된 60년대말이후 인부들이나 건설업자들이 가져온 홍역·천연두·결핵·성병으로 지금까지 1천여명이 죽었다。무자비한 삼림벌채로 사냥할 짐승떼를 찾지못하고있는 이들은 문화를 잃은채 정부가세운 인디언 보호지역으로 이주하고있다。그러나 숲과 나무와 강과 들을떠난 이들은 자아상실증에걸려 꿈지 박살된 삶을 영위하고있다。

필리핀 고산족들인 본톡족과 칼링가족10만명도 비슷한 운명。마르코스정부가 세계은행으로부터 10억달러를지원받아 건설할 예정인 4개의 댐공사에 의해 삶의 터전이 수몰될위기에 처해있다。필리핀 정부측은 새이주지역과 보상금을 약속하고 있으나 그들이 7천년에 걸쳐 이룩해 왔던 문화유적지는 고스란히 물속에 잠기게됐다。

필리핀 건너편 보르네오섬의 비다야족도 다를것이없다。이종족의 고유문화가 사라지고 이제는 인도네시아 문화에 동화된 상태。4백년동안 이어져내려온 대가족이 나무집에 함께 사는 생활풍습이나 잎으로엮은 옷, 쌀을숭배하는 의식을 버리고 대신 시원한맥주를 마시며 디스코음악이나 즐기며 게으른생활한다。그들은 1800년대 영국인선교사와 금광꾼을 찾아온 화교들이 들어오기까지 지켜왔던 고유문화양식을 되찾는 것은 쓸데없는 것으로만 여기고있다。

이외에도 뉴기니와 南美가이아나에 이르기까지 소수민족이사는 열대수림에 이나라정부는 수십개의 다목적댐건설을 계획하고 있다。소련군의 아프간진입때 아프가니스탄 고산족 수천명이 본의아니게 총대를메고 죽었다。칼라하리사막의 샌족들은 서남아프리카인민기구와 남아프리카 게릴라사이의 끝없는 전쟁으로 사막에서쫓겨나 유엔、보내주는 죽한그릇을 애타게 기다리고있어 종족문화의 소멸은 시간문제다。

현재 지구상에살고있는 원시소수종족은 약 2억。이들가운데 가장 끈질기게살아가고있는것이 자이레의 피그미족。약15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고유 언어와 풍습을 지켜나가고있으며 그들의 생활근거지 보호능력이 강해 79년중반 자이레반란군이 침입했을때 자이레정부군에 자진가담해서 싸웠다。인류학자들은 피그미족의 강인한 문화보존력을 1m30cm를 넘지않는 특유한 신체구조가 非난장이족에 대한 철저한 배타의식을 낳아 본능적으로 결속하는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피그미족에게도 서구문화가 들어가 이들가운데 마리화나 코카콜라를피우거나 화려한 서양옷을 입는사람이 늘고있다。더구나 자이레정부는 피그미땅에 묻힌 銅, 코발트, 우라늄등 지하자원에 눈독을 들이고있어 경제개발이란 미명하에 땅이 파헤쳐질 날도 멀지않다。【崔成子기자】

◇자전거를 타고 열대장글을 누비는 파푸아뉴기니의 원시종족。댐건설로인해 그들의 생활터전은 수몰될 위기에 처해있다。【뉴스위크誌】

◇오랜 유랑생활에서 벗어나 서구문화의 안락에 정착한 라프족들。현대문명의 혜택을 얻는대신 4천년 고유문화를 잃어가고있다。【U·S·뉴스·월드리포트誌】

"성직자 免責特權없어

교회聖域 實定法 초월못해"

徐廷和내무장관은 9일『아무리 聖職者라도 免責特權은 없다』고 강조한뒤『교회의 聖域化는 告解聖事등 종교적 양심의 한계내이며 국가의 實定法을 초과할수 없다』고 말했다。

徐장관은 이날 국회內務委에서『釜山美文化院放火사건에대한 수사상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이번사건은 불순세력의 배후조종을받은 대학가의 左傾이념서클에의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테러사건으로서 그들은 共産黨식 點조직과 혁명적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이어『종교계가 聖域化의식으로 反국가사범의 은신처화 경향을보이고있다』고 밝히고『保守教團인 예수교장로회 高神派에까지 불순세력이 침투한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었다』고 밝혔다。

徐장관은 이번사건의 배후조종자인 金鉉獎을 숨겨주거나 협조한 관련자는 가톨릭 12명(신부5명、가톨릭농민회 3명、신도4명) 改新教 5명(목사 1명、전도사 3명、집사1명) 일반인 4명등 모두21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가운데 崔基植신부 文吉煥·吳相根·金英愛등 이미 구속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 수사결과 증거가 갖춰지는대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계속 수사중인 사람과 혐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金鳳熙(40·천주교 全州교구司牧국장) 油印物배포 ▲金潤燮(33·천주교鎭安성당 주임신부) 油印物배포및 金鉉獎은닉 ▲姜仁爰(35·천주교井邑성당 주임신부)식사 제공 ▲金在德(62·천주교 全州교구청주교) 油印物배부 ▲李昌馥(44·한국교회사회 협의회총무) 非폭력투쟁방법지시 ▲徐用錫(32·扶安동부교회목사) 유인물작성謀議및제작알선 ▲全祥錫(34·천주교全州교구농민회총무) 金鉉獎을金鳳熙신부에게 소개 ▲文洪根(26·전月村교회전도사) 유인물제작 살포 모의 ▲鄭仁孝(39·천주교原州교구사회개발위원회상담역) 용돈등제공 ▲俞鎭勳(45·平協전국감사및상임위원) 金鉉獎을 崔신부에게소개 ▲韓相烈(32·임마뉴엘교회전도사) 유인물제작비 제공 ▲吳秉權(48·全州중앙교회집사) 유인물인쇄 ▲梁基雲(27·南原商高체육교사) 유인물필경및 제작자금제공 ▲林灤基(54·국악원강사) 金鉉獎은닉 ▲文炳蘭(47·大成학원강사) 유인물초안작성 ▲李境(28·조경업) 유인물제작살포모의 ▲黃一奉(25·全南大제적생) 유인물초안작성

"新製品개발 輸出확대

徐상공 綜合상사 延拂기금확대등支援"

徐錫俊상공부장관은 9일 중화학제품의 수출증대를 위해 연불수출기금의 확대및 융자절차 간소화등은 최대한으로 편의를 제공토록하겠다고 밝히고 요즘처럼 수출이 어려울때 일수록 종합상사들은 종업원 직원 관리자 모두가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줄것을 당부했다。

徐장관은 이날낮 綜合商社대표들과 무역회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40%이상을 차지하고있는 종합상사들의 수출증대 노력여부가 우리나라 전체수출신장을 좌우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세계적으로 불황 이지만 기본적인 수요는 있는것이므로 기존시장에대한 관리와아울러 아직 개발되지않은 시장개척과 신규상품개발에 힘쓴다면 아직도 수출잠재력은 있으므로 정부도 적극지원할 터이니 종합상사들도 더욱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종합상사대표들은 해외의 대형프로젝트 수주에있어 외국의 대기업과 경쟁할수 있도록 2~3개 종합상사가 공동으로 콘소시엄을 형성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업계는 안정된 수주활동을 할수있도록 연불수출 금융의 규모및 지불조건등을 변화된시장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운영해줄것과 앞으로 경기회복시에 대비한 시설투자를 할수있도록 자금및 융자절차 등을 실효성있게 지원해줄것을 건의했다。그런데 올들어 10개 종합상사들의 수출실적은 21억2천5백만달러로 전체수출실적 48억2천9백만달러의 44%를 차지하고있다。

수배자 自首때 최대 관용조치

釜山 放火사건수사 더이상 擴大않기로

3黨총무 合意

徐廷和내무장관은 9일 국회내무위에서『釜山 美문화원 방화사건관련된 수배자들이 자수한다면 법의테두리안에서 최대한 관대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民正·民韓·국민등 3黨 총무들은 9일상오 모임을갖고 釜山 美文化院 방화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이상 확대하지 않고 이사건을 과거의 光州사태나 학원·종교문제와 분리해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李鍾贊民正黨총무는 이날『사건이 다른방향으로 엉뚱하게 번지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고 林鍾基民韓黨총무도『釜山방화사건을 光州사태 또는 종교문제와 결부시키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과거의 光州사태 또는 종교문제와 결부시킬경우 국민총화를위해 바람직하지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3黨총무들은 이날 徐廷和내무장관、安應模치안본부장에게 수사를 더이상 확대시키지 말아달라는 뜻을 전했다。

주산·簿記·타자·速記등 국가技術검정試에 포함

문제도 公開키로

국무회의는 9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고쳐 기술자격검정분야에 주산·簿記·打字·速記등 사무관리기술을 포함시키고 기능 및 實技시험문제를 공개할수 있게 했다。또 이밖에 개정령은 기술자격검정의 年間시행계획을 年度개시 20일전까지 공고、국민들이 미리 검정실시시기를 알수있게했다。

개정령은 또 기능사2급자격검정에 있어서 실업계高校와 직업훈련시설의 졸업예정자또는 수료예정자에대해 필기시험을 면제、실기향상에 전념할수있게했다。

우리는 콤비

작곡가 吉屋潤

가수 혜은이

"7년간을 실과 바늘처럼…"

賞福도 많고 앨범13집 百50曲 발표

부녀같다。여학교의 자상한 담임선생과 제자같기도하다。7년을 실과 바늘처럼만나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吉屋潤·혜은이 콤비。70년대후반 혜성같이 나타난 혜은이의 길잡이는 누가뭐래도 작곡가 吉屋潤씨다。무명가수였던「金永珠」를「혜은이」로 변신시켜 정상의자리에 올려놓은 은사다。

75년、일본에서 활동하다 귀국한 吉씨는 한 매니저의 소개로 혜은이를 만났다。나팔악극단장 金翔潤씨(72)의 딸인 혜은이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음을 알고 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이때 취입한 노래가 吉屋潤작사·작곡의「당신은 모르실꺼야」。吉씨가 성공률50%로 보았던「당신은…」은 예상을 뒤엎고 크게 히트했고「당신만을 사랑해」가 MBC 서울가요제(77년)에서 그랑프리를 차지、콤비는 영광의길에 들어섰다。또「영원히 당신만을」이 제1회 태평양가요제(78년)에서 금상을 받는등「상복많은 혜은이」가 됐다。

지금까지 앨범만도 13집에 발표곡은 1백50여곡。7년간 연속히트를 기록했다。14집으로「연인의 마음」「당신은 구름처럼」을 준비중이다。

吉씨는 혜은이를『李美子、패티·金을 이어주는 좋은 가수』라고 평한다。한편 혜은이는『좋은 선생님의 좋은 작곡으로 오늘의 혜은이가 태어났다』며 감격어린 표정。이들 콤비는 한국 가요발전을 위해 혼신의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한다。【基】

팝토픽

「아이러브…」다시 首位에

「불의전차」는 7위서 4위로

지난주 1위에서 밀려났던 존·제트& 블랙하츠의「I love rock'n roll」이 이번주 다시 미국싱글판 레코드 베스트 셀링의 톱을 차지했다。「I love…」는 2주간 톱을 지키다 2위로 밀려난지 1주만에 다시 1위를 되찾았고 지난주 1위였던 스티비·원더의「That girl」은 3위로 처졌다。

지난주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불의전차」의 주제곡은 2주전 9위에서 7위로 이번주에는 7위에서 다시 4위로 껑충뛰었다。J·게일즈밴드는 이번주에도 6、7위등 2곡을 랭크하고있다。【AP】

英 텐톱팝 順位

「착각이야」1位

이번주 영국의 베스트셀링 싱글차트에 톱은 영국 3인조남성솔그룹 이미지네이션이 노래한「착각이야」가 2주간 톱을지킨「Seven Tears」를 밀어내고 차지했다。지난주1위의「Seven…」은 2위로 밀려났으며 3위의「Layla」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AP】

◇싱글베스트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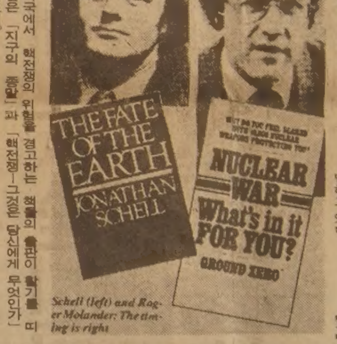
<美캐시박스선정·괄호안은 지난주순위>

▲1(2)「I love rock'n roll」(존·제트&블랙·하츠)
▲2(3)「We got the beat」(고고즈)
▲3(1)「That girl」(스티비·원더)
▲4(7)「Main theme from chariots of fire」(반젤리스)
▲5(5)「Make a move on me」(올리비어·뉴튼·존)
▲6(4)「Centerfold」(J·게일즈밴드)
▲7(8)「Freeze flame-flame thrower」(J·게일즈밴드)
▲8(9)「Key largo」(베르티·히긴스)
▲9(12)「Don't talk the strangers」(리크·스프링필드)
▲10(6)「Open arms」(저니)

美출판계 휩쓰는 核戰공포書籍

4月만 8種발간 상반기 25種예상

"戰後 美國은「곤충과 雜草共和國」"경고



◇현재 미국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경고하는 책들의 출판이 활기를 띠고있다。사진은「지구의 종말」과「핵전쟁-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인가」의 저자와 책표지。

핵전쟁의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을 다룬 책의 출판이 미국에서 붐을 이루고있다。美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이번호 보도에따르면 4월 한달동안에만도 이런 책이 8종이나 출판되며 금년 상반기중에 약 25종이 나올 예정이라는 것。「출판관계자들은 최후의 전염병」이나「다가오는 핵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등 제목만보아도 섬뜩한 이런 책들의 판매상황도 꽤 좋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출판이 예고됐다가 이번 4월에 나오게된 조나단·쉘의「지구의 운명」은 원래 3만5천권이 예약됐다가 최근 7만5천권으로 예약이 늘어났다。

한편 로저·몰랜더와 얼·몰랜더 共著인「핵전쟁-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인가?」는 22만5천부의 부수가 나갔다。

「지구의 운명」은 원래 3부작시리즈인데 첫권이 지난2월말께 나오자 反核主義활동분자들이 이를 사진으로 복사하여 동료들에게 돌리기까지했다。

이 책의 제1장은 소련이 미국의 군사및 산업시설이나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전면핵공격을 취했을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것인가를 상세히 설명하고있다。

제2장은 미국과 소련이 핵공격을 주고받을 경우 종국에는 인류가 멸종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의 도덕적, 철학적의미를 규명하고있다。제3장은 핵전쟁을 저지하는 방법에 관한것인데 결론은 전세계를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주권국가를 없애고 세계정부를 세워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고있다。

쉘은 이런 획기적인 저지책을 강구하지 않을경우 핵전쟁이 일어나 인류는 모두 죽어버리고 미국은「곤충과 雜草共和國」이 될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핵전쟁-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인가?」는 핵무기경쟁의 과정、전략이론등 핵전쟁에 관한 모든 지식을 총정리 한것으로 누구나 쉽게 얻을수있는 교양서의 성격을 띠고있다。

출판계 인사들은『한때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를 읽듯이 핵전쟁에 관한 책을 읽게됐다』며 핵전쟁의 논란이 열기를 띨수록 독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平】

流星의 賦 <354>

孤獨한 英雄 ⑨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그런데 이광의 군으로서 한성 공략이 가능한것 보이던가』

계남이 물었다。

『병력 5만이면 당당한 것 아닙니까。그런데다 군기와 물자가 풍성한 것으로 보았읍니다』

조인식의 대답이었다。

『사기는 어떻던가』

『사기 또한 왕성했읍니다。그러나』

『그러나 어떻단 말인가』

『이광이란 사람이 너무 고루하고 거만해서 어딘지 불안하였읍니다』

『우릴 푸대접했다고 사람을 함부로 말해서야 쓰나。솔직이 말하면 나 홍계남이 충성은 남 못지 않다 하더라도 관작이 낮고 아직 무명의 인사가 아닌가。일도의 순찰사가 어찌 상대를 하겠는가』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또 뭔가』

『선봉장 백광언이 사리에 맞는 진언을 하는데도 듣지를 않고 외고집을 부린다고 하니 그것도 걱정입니다』

조인식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이광이 수만의 대군을 전군、중군、후군만으로 나눠 4·5십리에 걸친 대열을 짓고 진군하고 있는데 그 모양은 흡사 양떼를 모는듯 하고 그 질서는 말이 아니었다。이를테면 전쟁하러가는 군사의 대열이라기보다 장마당으로 향하는 장꾼들의 무리와 같았다。그래서 선봉장 백광언이

―우리 군사가 비록 많기는 합니다만 모두 열읍(列邑)에서 모은 오합지졸(烏合之卒)에 불과합니다。그러니 병력의 다소를 막론하고、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그 고을의 병사를 지휘하게 하여、이처럼 한꺼번에 거동하지말고 십 여대로 나눠 각각 분둔(分屯)하게 하면、혹여 일진(一陣)이 패한다 하더라도 다른 진이 후원할 수 있게 되고、또한 적이 공격목표가 분산되어 당황하게도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결정적인 대첩(大捷)은 어렵더라도 전군이 일시에 패하는 위험은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진언했는데 이광은

―나는 나대로 생각한것이 있네。하고 그의견을 묵살하고 종전대로 양떼를 몰듯 진군하기도하고 한군데서 밀집주둔을 하기도하는 것이다。

계남이 이얘기를 듣자 얼굴이 참배하게되어 신음하듯 했다。

『모처럼의 대군이 또 궤멸되고 말겠구나。그러한 오합지졸로서 무책(無策)으로 싸워 어찌 간교한 왜군에 대적할수가 있단 말인가。비통한 일이다。지금이라도 늦지않으니 무슨수를 쓸수가 없을까』

『자기 선봉장의 말도 듣지않는 이광을 다른 누가 어떻게할수 있겠읍니까』

『그렇다고해서 패배는 명약관화한데、이걸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겠는가』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책만을 취할 뿐입니다』

조인식의 말이 지당하다고 생각한 홍계남은 지형도를 꺼내 놓고 군사의 배치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광주、양주 지역에서 양동작전(陽動作戰)으로 나와 적의 이목을 그쪽으로 끌고 이광의 대군이 단 일보라도 가까이 한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民俗음악 연주회

15일 국립극장서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은 15일、16일(하오3시、하오7시30분)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민속음악연주회를 연다。기악합주·가야금병창·경기민요·판소리·산조합주등이 연주되는데 흔히 선악으로 불려지는 새타령 강강수월래 뱃노래 까투리타령등 남도민요를 기악으로 구성연주한다。

成文永、徐龍錫、朴鍾善、金茂吉、池美子、沈相南、金熙淑、朴天澤、金慶福、李金美、趙炳熙、鄭然化씨등이 출연。

와따나베 챔피언에

페드로사에 判定勝 WBA J밴텀級

【東京8日AP=聯合】日本의 와타나베·지로(渡邊二郞)는 8일저녁 오오사카(大阪)에서 벌어진 프로복싱 WBA(세계권투협회) 주니어밴텀급 타이틀전에서 챔피언인 파나마의 라파엘·페드로사를 심판 전원일치의 판정으로 누르고새챔피언이되었다。

제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미녀들의 출전 환영!

캐나다 전역의 교포미녀들의 다수 출전을 바랍니다.

입상미녀들은 토론토에서 실시되는복합문화 축제 캐라반 행사에 참가하며.

최고미녀「진」은 모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선」은 캐라반 미녀선발대회에 출전할 영광이 주어집니다.

때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시청뒤)

●응모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혼 한국계 여성
●연　령 : 만17세부터 만25세까지
●신청서류 : (1)신청서 1매 (2)사진 2매(명함판)
●제 출 처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신청마감 : 1982년 4월10일 하오 5시
●의　상 : 수영복·이브닝드레스·한 복
●문 의 처 : 한국일보사 (416) 533-2361~4
●기　타 : (1)미스코리아 "진"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스코리아 전국결선대회에 출전하여야 함. (2)입상자 전원은 82년도 캐라반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입 장 료 : $30.00(디너·쇼, 댄스포함)

주 최 : 토론토 지구 한인회

후 원 : 한국일보사

1982년도 MISS KOREA OF CANADA

참가신청서

1. 성　명 :
2. 주　소 :
3. 전　화 :
4. 생년월일 :
5. 특　기 :
6. 학　력(최종학교명) :
7. 직　업 :
8. 신　장 : 인치
체　중 : LBS.
바 스 트 : 인치
웨이스트 : 인치
히　프 : 인치

상품기증

ㅇ. 아시아나 항공권 (제일여행사)
ㅇ. 로렉스 여자용손목시계(은하보석상)
ㅇ. 진주목걸이, 진주반지, 진주귀걸이(14K Gold) 고급화장품 3세트(미도파)
ㅇ. 고급여자용 썬글라스2개(불란서제) (블루아안경점)
ㅇ. 녹용($150상당), (동양한약상사)
ㅇ. 홈·세트($100 상당)(블루아 하드웨어)
ㅇ. Webster 사전 (3권) (신용목)
ㅇ. 고급벽시계(김종조 종합보험)
ㅇ. 금일봉 ($100) (황재필)
ㅇ. 참가자 전원에게 꽃다발(코리아타운 번영회)
ㅇ. 20" Panasonic Color TV 1대 (아카데미 TV및 파나소닉사제공)
ㅇ. 이태리안 3 Colour 금목걸이 (Young-Sook's Jewellery)

※상품기증 하실분은 한인회로 연락바람.

☎ : 755-9288

補強작업않고 發破강행

——地下鐵工事場 붕괴원인 三湖 관계자등 4명拘束검토

이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9일하오 공사현장 화약관리 기사 張勝元씨(39)의 진술과 현장조사결과▲파일을 제대로 박지않은데다 보강작업을 하지않았고▲파일과 빔외에 흙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설치하게 돼있는 나무판막이를 설치하지않아 취약한 부분에서 흙이 아래로 흘러내리다가 이날 다이너마이트 발파진동으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완전히 박히지않은 파일이 떨어져나가 붕괴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냈다。

이같은 결론에따라 경찰은 시공주인 주식회사 三湖사장 趙容時씨(32·해외체류중) 현장소장 朴仁華씨(53) 서울시 지하철공사현장감독 權萬洙씨(37) 현장화약주임 張勝元씨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구속 여부를 검토중이다。

경찰에 의하면 趙씨와 朴·權씨등은 감독책임을물어 입건했으며 張씨는 사전에 붕괴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도 발파 작업을 감행, 사고를 낸 책임을 묻는것이다。

이에앞서 경찰은 8일하오 현장화약주임 張씨로부터 10여일전부터 공사장한쪽벽 일부분이 무너져내렸고 사고당일에도 상오7시 구멍뚫는작업을 시작하기전 현장주변을 둘러보자 지상에서 23m지점의 바위틈이 20㎝가량벌어지면서 흙이 흘러내리는것을발견, 현장소장 朴씨에게 보고 작업을 해줄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발파작업을 계속했다는 진술을받아내고 암반돌출부분에 불완전하게 박힌 철제빔이 사고의 원인의 하나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또 이같은 불완전한 지반상태에서 발파작업을 하고있는 가운데 복공판위에서 강제 1백20톤과 25톤·20톤짜리 크레인 2대가 작업을 하는 바람에 많은 하중을 버티지 못한데다 때마침 버스가 이곳을 지나다 한꺼번에 하중이 몰려 사고가 불가피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줄곧 발파작업을 해왔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인부들의 증언을중시, 지금까지 발파일부들이 그동안 과다한양의 화약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조사결과 일주일 전까지만해도 발파작업을 할때는 교통통제를 해왔는데 이날은 대형크레인 2대가 작업을하고있었음도 밝혀냈다。

도로開通 빨라야 4~5일후
危險은 여전…百여상점 撤市

속보=많은 시민들에게 큰불편을주고 10명의 인명피해를낸 지하철공사장 대형 붕괴사고는 경찰수사결과 시공업자가 무리하게 다이너마이트를 발파한것이 붕괴사고의 그원인이며 공사전반에걸친 여러가지 안전수칙 무시와 서울시의 감독소홀이 「피해」를 가중시켰음을 확인했다。

◇必死의 救助 붕괴사고 직후 동네청년들이 밧줄을 가지고 지하로 내려가 탈진한 버스승객 한사람을 구해 끌어올리고 있다。

送水管터져 한때 물바다
대피住民들 여관서 지내

…현장… 연세붕괴사고가 난 현장은 철제H빔과 버스 두대의 크레인, 흙더미등이 뒤엉켜 지진이 휩쓸고 간것 같았으며 8차선 도로가 움푹 주저앉아 폭격을 당한것처럼 웅덩이가 생겼다。 또 7백㎜송수관에서 약30분간 물이 쏟아져 온통 물바다를 이뤘다。 또 지하에 묻힌 폭약이 터지면서 연기가 사고현장일대에 1시간30분이나 뿌옇게 뒤덮였다。

또 獨立門과 毋岳재 사이의 간선도로가 전면통제, 차량이 金華터널과 洗劍亭쪽으로 우회했고 일대의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단수되는 바람에 이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했다。

사고현장부근 2백40여세대 주민9백40여명은 지반붕괴위험으로 대피, 인근 여관등지에서 불안하게 하루를지냈으며 근처 1백여 상가도 철시했다。

수습대책본부의 신속한 복구작업으로 9일하오현재 일부 전화와 전기가 다시 개통됐다。

그러나도로개통은빨라야 4~5일이걸릴것으로보인다。

버스乘客 모두無事

…사고버스… 양여객소속 서울5사2550호 운전사 林貞鎬씨(42)에 의하면 이날 승객35명을 태우고 독립문쪽으로가던중, 갑자기 「쿵」소리와함께 차가 뒤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

버스는 처음 큰 충격없이 스르르 지하5m까지 흙더미와함께 밀려내려가다가 90도로 멈춰섰는데 이위에 흙더미가 덮치면서 앞유리창이 깨지고 승객들이 차뒤쪽으로밀려 아수라장이 됐다。

다행히 승객들은 동네주민들과 인부들에의해 구조돼 치명상을받은사람은없었다。

10大建設社에 들어

…三湖… 시공업자인 주식회사 三湖(대표 趙容時·서울江南區方背洞810)는 70년대건축붐을타고 아파트건축회사로 부상, 급성장한 종합건설업체。

三湖는 82년도 국내공사도급한도액이 2천1백9억1천3백43만원으로 5백여개 국내건설업체중 8위를차지, 80년도이래 최상위 10대건설회사중의 하나로 꼽히고있다。

지하철 모든工區 뒤늦게 安全진단
서울市

◇숨진 金두만씨 ◇숨진 金好經씨 ◇실종 劉時初씨 ◇실종 金漢奎씨

한편 서울시는 이사고를계기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지하철2·3·4호선84개공구에 대한 안전진단에 나섰다。

서울시는 관계공무원및 전문가들로 안전진단반을구성, 각공사장에대한 정밀진단을 실시, 사고위험이 높은곳은 공사를 즉각 중단, 안전대책을세우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질때는 관계자를 엄중문책키로했다。

사망자에 千백만원 三湖선 아직 未定

서울시는 이번사고의 사망자에대해 장례비및 유족보상금으로 1인당 1천1백만원을 지급해주기로 했다。

유족에대한 회사측(주식회사三湖)보상비는 아직 미정이다。

서울시는 또 부상자의치료비는 전액회사측이 부담토록하고 이중 생활곤란자는 완치퇴원할때까지 생계비 전액을 지원키로했다。

감독 소홀·안전守則도 안지켜
李揆學 防災學박사 분석

◇사고원인을 말하는 李揆學박사。

사고발생과 함께 본사는 防災學박사 李揆學씨(41)를현장에 파견, 하오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에걸쳐 사고원인을 현장에서 분석했다。

李박사는 이번사고가 한마디로 발파작업을 하지말아야 할 시점에 발파를 했기때문인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는 「착암기」에의한 드릴작업으로 해야함에도 이곳에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발파를한것같다고 말했다。 그는 왜발파작업을 했는지 그사정을알수없으나 『아마도 공기단축을위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한것같다고 말했다。

착암기 쓸곳에 爆藥쓰다니…

이번사고직전의발파지점으로 확인된 지하바위는 H빔파일과 파일사이에 돌출돼 나와있는 부분으로 이돌출부분을 제거하기위해서는 당연히 착암기를 사용해야 한다는것。 그는 첫사고지점을 사고현장 한가운데인 (弘恩洞쪽에서 18m거리) 대형크레인 추락지점이라고 분석하면서 폭파에 따른 진동으로 H빔 파일이 흔들려 밑부분이 빠져나가있다고 말했다。 즉 H빔 파일의 방향이 그옆에 돌출돼있는 바위의 발파충격으로 수직 방향에서 심히 기울어지면서 그위의 25톤짜리 대형크레인(Halla American)과 엄청난 토압(土壓)의 하중을 못이겨 무너져내렸다는 설명이다。 요컨대 파일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측면발파는 지하철현장처럼 밀폐된곳에서는 가장 주의해야할부분이며 가능하면 안하는것이좋고 하더라도 정량의 폭약으로 완벽한 안전수칙하에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李박사는 또 발파작업당시 10개공까지 허용되는 1회폭파량을 늘렸거나 각구멍에 투입되는 화약의 양도정량을 지켰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붕괴지점이 커진 또다른 결정적인 원인은 상수도관의 파열이었던 것같다고 지적하면서 상수도관에서 쏟아져나온 막대한양의 수량이 토압을 배가시켰다고 말했다。

"地下서클 申告하면 不問"
文教部 각大學에 陽性化방침 示達

문교부는 9일 전국대학의 미등록 용서클를 양성화방침에 따라 대학별로 지하서클 일제신고를 받고 신고한 서클이나 회원에 대해서는 과거의 활동 내용을 포함한 일체의 잘못을 묻지 않기로 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 지하서클 가운데에는 과거의 행적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문교부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전국 97개 대학에 긴급 시달하고 10일 大田에서 학생처·과장회의를 소집, 이를 강조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각대학은 내주까지 일제신고를 받아 건전한 활동을 할수있다고 판단될경우 지도교수를 지명, 정식등록을 받도록할 계획이다。

문교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설정된 이번 등록기간중 등록하지 않았다가 활동이드러날경우에는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하기로했다』고밝혔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主教委등 연속召集
天主教「崔신부拘束」대책마련 부심

천주교 原州교구의 崔基植신부가 구속된후 전국의 가톨릭교계는 이사건의 추이를 관망하는한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의장 金壽煥추기경)는 9일 오는14일 거행할예정이었던 충북堤原郡鳳陽面九鶴2里 베론성지축성식을 무기연기했는데 협의회측은 梁基涉신부의 별세때문에 연기한다고발표했지만 실제로는 崔신부구속과 관련이있는 조치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주교측은 오는14일 상오10시 천주교 중앙협의회 사무실에서 중앙협의회 산하상설기구인 사회주교 위원회(위원장 尹恭熙 대주교)를 소집키로 했다。

이사회 주교위원회는 池學淳주교등 6명의 고위 성직자들로 구성돼있어 崔신부의 구속에대한 대책이 논의될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15일 하오2시에는 천주교 최고 의결기구인 한국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장 金壽煥추기경)도 개최될 예정이다。

原州교구 對策논의

한편 崔신부가 소속된 原州교구 池學淳주교는 8일하오1시 주교관에서 堤川성당 李규영신부를 비롯한 30여명의 신부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며 崔基植신부의 구속에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가운데 열린 이날회의의 내용은 일체 알려지지 않았는데 신부들은 하오4시30분 야간 성유축성미사를 집전키위해 모두 임지로 돌아갔다。

어제 崔神父면회 釜山교구 主教등

【釜山=方政俊기자】 9일상오10시 10분께 釜山南部경찰서 서장실에서 천주교釜山교구 李甲秀주교등 신부10여명이 구속된 崔基植신부와 20여분간 면회를 했다。

崔신부를 수사하고있는 釜山시경대공과로부터 면회허가를얻은 李주교와 외국인신부 4명을 포함한 신부들은 이날 李在福部경찰서장이 안내한 서장실에서 崔신부를 만났는데 「건강이 좋으냐」고 묻는 등 20여분간 코피를 나누며 주로 건강에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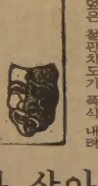
雪嶽山·大關嶺에 때아닌暴雪
嶺東·中部지방 零下기록

철늦은 꽃샘추위가 극성을부려 雪嶽山과 大關嶺등 영동산간지방에 때아닌 눈폭풍이 휘몰아쳤다。

중앙기상대에 의하면 8일하오부터 전국의 기온이 급강하, 비가 내린 영동지방과 중부지방은 최저기온이 영하를 기록했고 雪嶽山과 大關嶺엔 큰눈이 내려 17~32㎝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기상대는 주말인 10일에는 전국이 맑고 기온이 다소 높아져 최저 기온이 0~6도, 낮기온은 14~15도가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일요일인 11일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에 최저 2~7도, 최고 15~18도의 기온을 보일것으로 예보。 동서해안의 폭풍주의보는 계속 발효중이다。

無名의「英雄」
30여人命 구출한 金甲成씨



서울峴底洞 지하철공사장 붕괴현장에 뛰어들어 버스승객 30여명을 구해낸 金甲成씨(35·사진·西大門區峴底洞63)는 이름없는 서민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훌륭한 시민이었다。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살려낸 그의 행위는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고귀하고 값진것。

사고현장 바로 길옆에서 떡방앗간을 하는 金씨는 사고가나던 8일하오5시반께 평소에도 요란했던 발파소리가 유난히도요란스러워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니나다를까 공사장위를 덮은 철판차도가 폭삭 내려앉았고 땅속에는 버스가 곤두박질쳐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날려 버스가 떨어진 곳으로 뛰어내려갔다。 이때까지만해도 버스는 인도에서 5m아래 흙더미에 처박혀있었다。

金씨는 깨진 버스앞 큰유리창을 뜯어내고 차안으로 들어갔다。 버스속에 갇힌 승객 35명은 서로 먼저 나오려고 아우성을 질러대고 다친 사람들은 신음소리를 내 바로 아수라장이었다。

버스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모두들 침착하십시오。 우왕좌왕하다간 다 죽습니다』고 외치면서 한사람씩 차례로 구출하기 시작했다。 두사람을 구해냈을때 주민들과 공사장 인부들이 밧줄을 내려주어 구조속도가 빨라질수 있었다。

네사람째를 구해냈을때였다。 버스는 다시 요동을치며 25m아래 땅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비명소리가 더욱 커졌다。 때마침 상수도관이 파괴돼 쏟아지는 물은 곧 흙탕물이 되어 버스안으로 몰려들었다。 金씨는 자신이 지금 생명을 잃는 순간이란 느낌을 가졌다。

그러나 침착성을 잃지않고 기지를 발휘, 승객들에게 좌석을 사다리로 이용하여 밟고 위로 올라오도록했으며 여자승객들에게는 밧줄로 손목을 매 끌어올리기도했다。

자신도失神…"내가 살아있는 겁니까?"

동네주민들은 길위에서 흙더미가 내려앉은것을 보고 金씨에게『위험하니 그만 올라오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소리를 듣는 순간 2살짜리 사내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린이를 남겨두고 나만 살수 없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를 가슴에 안은채 밧줄을 잡고 길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그는 정신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뒤에야 제정신을 찾은 金씨는『내가 살아 있는겁니까』농담을 던지며 밝게 웃었다。 【鄭在龍기자】

三和회장 金智泰씨

三和그룹 金智泰회장이 9일새벽1시5분 釜山市凡一洞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75세。 유족으로는 미망인과 장남 榮球씨등 6남3녀가 있다。 발인은 12일상오9시 장지는 경남梁山郡下北面草山里선영 연락처 釜山⑥1200 서울(713)0131。

尹노파 殺害혐의 高피고인 抗訴審

서울龍山區元曉路 尹貝花씨 피살사건과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高淑鍾피고인(46)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9일 하오4시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金永振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Y—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오리엔탈 · 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64 K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명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가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 금, 토, 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블론디

딘·영 作

"여보, 뒷문 언제 고쳐 주시겠어요?" "당신은 지난 3주동안 연달아 토요일만 되면 그문 고쳐달라는 소리로군" "그럼 왜 안해 주셨죠?" "일관성을 잃지않고 싶어서지!"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745-8236

88 서울올림픽 內實있게

"體育지도자養成 돕겠다"

"많은會員國참가토록 노력 憲章따라 아마스포츠 살려야"

사마란치 IOC委員長 회견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한국의 성공뿐만아니라 IOC올림픽운동의 성공이다』 방한 3일째를 맞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환·안토니오·사마란치위원장은 9일하오 서울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서 이같이 말하고 『全斗煥 대통령을 비롯, 盧泰愚체육부장관등 많은 인사들이 서울올림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돕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하고 88년 서울올림픽이 올림픽사상 가장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다해 돕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아마추어와 프로스포츠사이에서 일어나고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IOC헌장및 정신에따라 아마스포츠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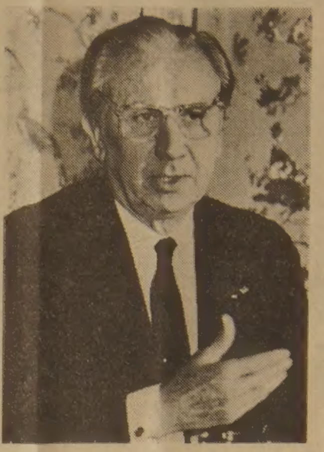
사마란치위원장은또 『88년 서울올림픽 때에는 많은 IOC회원국들이 참가할수 있도록 적극 도울것이며, 정치적 문제는 88년에 가서는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예견된다』고 말했다.

또한 IOC는 올림픽 솔리더리티 기금으로 88년 서울올림픽이 원만히 치러질수 있도록 체육지도자 양성, 레프리 강습등 제반문제를 도울것이라고 밝혔다.

사마란치 위원장은 88년 서울올림픽서는 테니스와 탁구가 올림픽 경기종목으로채택되며 태권도가 시범경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재확인했다.

사마란치위원장은 中共과 北韓의 88년 서울올림픽참가여부에 관해서는 『우선 그들이 84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미리 이야기할수없으나 中共은88년 서울대회에도 참가하게될것으로 확신한다』고말했다.

이날 사마란치위원장의 회견에는 기요가와·마사지(淸川正三) IOC부위원장과 金溶植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金澤壽IOC위원, 曺相鎬KOC위원장, 李源京서울올림픽조직위 사무총장등이 배석했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기자회견서 88년 서울올림픽등에대해 소신을 밝히고있다.

한국銀4·銅1 킹스컵 복싱

【방콕8日=本社국제전화】한국 아마복싱대표팀은 8일 泰國에서 폐막된 제8회 킹스컵 국제복싱대회 결승전에서 4명의 선수들이 모두 패배, 銀메달4·銅메달1개를 따내는데 그쳤다.

이날 첫 경기에서 미들급의 李南儀는 강호 예고르·일린지르(소련)에게 초반부터 강타를 허용, 1회RSC패했으며 밴텀급의 文成吉은 홀링의 완차이·퐁스리에게 심판전원일치 판정패를 당했다.

라이트 플라이급 金光善은 한국 선수중 가장선전, 왼쪽잽과 3라운드서의 적극공세등으로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이브라힘·빌라리(케냐)의 빠른 발놀림을 잡지못해 4―1로 판정패했다. 한국팀은 9일 귀국할 예정이다.

金永洙 4強에 진출

亞洲사이클 千m스프린트 豫選1위

【방콕8日=聯合】한국의 金永洙(기아산업)는 8일 이곳서열린제10회 아시아 사이클선수권대회 남자1천m스프린트 3차예선서 中共·日本선수를 제치고 11초70으로 1위를 차지, 4강이 겨루는 준결승에 진출했다.

한편 남자4천m 개인추발에서 한국의 金仕錫(동아대)도 예선을 통과했다.

朴鍾八·黃忠載등 이달중에 防禦戰

◇黃忠載

◇朴鍾八

◇柳煥吉

朴鍾八·黃忠載·柳煥吉등 3명의 OPBF(동양태평양권투연맹) 챔피언이 4월중 타이틀방어전을 갖는다.

페더급의 柳煥吉(20)은 11일하오 文化체육관에서 동급8위인 泰國의 수반·무앙수린과 첫방어전을 갖는다. 지난해 12월 黃正漢으로부터 왕좌를 뺏은 柳는 현재 16승(8KO) 3무1패를, 무앙수린은 17승(10KO) 3무2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WBC 주니어밴텀급 10위인 裵錫哲도 이날 日本의 오야마·기요시를맞아 재기전을 갖는다.

웰터급챔피언 黃忠載(22)는 18일 全州실내체육관에서 동급1위 黃俊錫과 14차방어전을 갖는다.

"감독소홀·安全관리 무시"

民韓·국민, 地下鐵붕괴사고 聲明

民韓黨과 국민당은 서울무악재의 지하철공사 붕괴사고에 대해 9일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民韓黨金珍培대변인=이번사고는 시공책임자인 서울시당국의 감독소홀과 안전관리를 무시한 업자에게 그책임이있다. 우리당은 이번 惨事를 계기로 수도서울의 여러곳에서 한꺼번에 벌이고있는 지하철공사의 안전문제를 철저하게 추궁한 것이며 당국은 지하철공사의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당李成一대변인=이사건은 감독관청의 직무유기와 업자들의 안일한 작업태도로 빚어진 불행한 사고로서 당국은 차제에 모든 지하철공사작업의 瑕疵여부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 철저한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태권도 월드컵大會 창설

내년1월 스페인서 첫대회開催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 월드컵대회를 창설키로 결정, 제1회대회를 내년 1월7일부터 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서 개최키로했다.

세계연맹은 9일 국기원에서 美國체육협회장인 조시아·헤슨씨를 비롯, 케나국무장관 카리우키씨 유럽태권도연맹 헤인즈·막스씨등 8명이 참석한가운데 집행위원회 회의를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金雲龍총재는 월드컵대회는 초청대회로 치르며 6개 대륙대표 16개국이 참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詩壇

풀씨

李秋林

하나도 귀하지 않은 풀씨
풀밭의 풀씨
귀하지 않아서 날 잘선 낫날로
마구 베고
쯤야 짓밟고
마구 버리지만
더러는 추운 어둠의 얼음안개 안
하늘 날으는 물떼새 뭉텅한 물가슴 안
더러는 떼도둑놈같은 河馬 속마음 속
빗근길 어긋버긋 엇물리어
피달아 숨어지내다가
의뭉히 죽어지내다가
바윗속 귀머거리 장님으로 팔베개 베다가
빗살무늬 잔잔히 실뿌리 내리는
하나도 귀하지 않은거 없는
풀밭의 풀씨
가는이과리 끄터리 세로 가로 뻗치는
비단달팽이 기지개같은
빼거덕거리는 발간 물그림자.
지진의 에스파(地震S波)로 물갈퀴장
물갈퀴를 엮질러 섞이는
바다·하늘·구름
나팔수 입술 발갛게 물집이 잡혔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82>

明暗 ⑯

朴婉緒 作 金光培 畵

『그러니까 그 동생이 제 남자친구 험담을 늘어놨겠군요?』

수지는 별안간 발끈했다. 구렁이 담너머가듯 슬금슬금 그들 사이가 비록 입담으로라도 합동결혼식으로까지 발전하게끔 방심하고있던 자신을 뒤늦게 단속하려는듯 그녀는 허둥지둥 도사렸다.

그러나 그렇게 공격적인몸짓을할수록 마음으로부터 화가 나지는않았다. 수지를 사로잡은건 이미 분노가아니라 한물간 의무감이었다.

이런 수지의 마음을 꿰뚫어본것처럼 기욱은 여유있게 능글댔다.

『천만에요。제 동생이 요새 저를 똥차취급하고 있어서 비록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지고 있긴해도 형제간의 의리에 금이 가있는 정도는 아니랍니다。제 동생을 모함하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실속없는 연애를 하고있다고는 누가 그러던가요?』

『실속 없는 연애란 소리에 무관심한 척 하면서도 꽤나 신경쓰이나 보죠?』

『그런 식으로 묻는 말을 피하지 말아요』

『그건 순전히 소문이었을 겁니다。물론 그 소문은 대학가란 한정된 고장내에서의 소문이니까 그걸듣고 전해준역할을한건 동생입니다。수지씨 커플이누가 보기에도 기우는 커플이란건 수지씨자신이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을텐데요。지금 새삼스럽게 여론에 신경을 쓰다니 우습군요』

『남이 뭐라든지 상관안해요。그 속된 인간들의 비위 맞추려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렴요 그랬겠죠。능히 그랬을 겁니다。그만한 오기 없이 그런 요란스러운 사랑놀음을 하진 못했을 겁니다。그렇지만 속된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상식이라는 거 아닙니까?상식을 벗어나기가 점점 숙스럽고 어려워지는게 나이 든다는 거고, 철 든다는 거라면 저 역시 속된 인간이 되겠죠?』

『전은 그전부터 속됐어요。참 사랑놀음이라고 했던가요?』

『왜 그말이 잘못 됐나요?』

『우리가 마치 남들보란듯이 놀아난것같군요。실은 남의 눈을 의식한적도 없는데』

『아무렴요。능히 그랬을겁니다。남의 눈을 의식한행동은 결코 남의 눈에 띄지도 않는 법입니다。남의눈을 의식하지않았기 때문에 남의 눈에 띈겁니다。그렇게 공개적으로 한 사랑놀음이 무슨 실속이 있었겠읍니까? 그러니까 수지씨는 이중으로 실속 없는 사랑놀음을 한데 지나지않습니다。실은 그래서 찍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한번찍어서 넘어간 적이 있는나무를 무슨재미로 또 찍겠읍니까? 나도 자존심이있지…』

『댁은 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군요。찍었는지는 몰라도 그점은 인정해야할까봐요』

『혹시 혼란스럽지는 않습니까?』

『그게 그거죠 뭐』

『그럼 됐읍니다』

『되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첫번 찍어서 그만큼 흔들렸으면 앞일은 낙관할만하잖아요?』

『좋아하지 말아요。나는아직 까딱없으니까』

『그야 남기욱한텐 아직 안찍혔을지도 모르죠。그렇지만 실속이나 상식한테 찍혔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까딱없다고 큰 소리 칠수 있나』

美中西部 한인卓球대회 오는17일 시카고市內서

【시카고支社】시카고에서 오는 17일 한인탁구동호인들의 탁구잔치가 열린다.

美중서부한인탁구협회와 한국일보시카고支社는 시카고 시내 로렌스가의 시카고 탁구장에서 82년 미주 한인탁구대회를 개최한다.

2단1복식의 단체전과 연령별 남여개인전으로 진행되는 이대회는 崔元碩대한탁구협회 회장이 특별히 기증한 우승기와 트로피를 놓고 각부문의 챔피언을 가리게된다.

李德姬 탈락 국제女子테니스

【힐튼헤드 (美사우드캐롤라이나주)聯合=聯】한국의 李德姬는 8일 이곳에서벌어진패밀리 서클컵 여자테니스대회 3회전에서 US오픈 주니어챔피언인 지나·개리슨(미국)에게 2―0 (6―4, 6―0)으로 패해 탈락했다.

이날경기에서는 미국의 크리스·에버트·로이드를 비롯하여 한나·만들리코바(체코) 미마·야소베치(유고) 지나·개리슨등이 각각 이겨 준준결승전에 올랐다.

Factory Special Sale

(기간) Apr. 12～Apr. 24 (2주간)

한국영창악기제

Wagner (와그너) 피아노

월～금 : 9: 00A.M.～7: 00P.M.
토 : 9: 00A.M.～5: 00P.M.

G- 157

그랜드피아노

Reg. $7,732
Spec. $5,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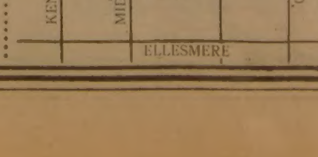
제한수량이므로 선착순세일합니다

각 유명업체및 대학교에서 애용중입니다.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McGill University (Montreal)
Humber College (Toronto) Columbus Centre (Ontario)

DISTRIBUTED EXCLUSIVELY IN CANADA BY
YOUNGSTAR INTERNATIONAL INC.

주 소 : 315 PROGRESS AVE.
☎ : 298－2134



OWNER : 최 덕 준

John Krautwurst Furniture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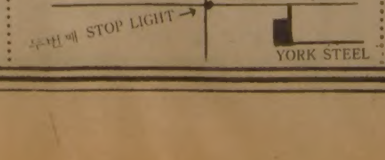
월～수 : 9: 00A.M.～5: 00P.M.
목～금 : 9: 00 〃 ～8: 00 〃
토 : 10: 00 〃 ～5: 00 〃

◎Life-time 가구
◎주문생산(Custom made)
◎금년 토론토가구쇼에서 인기집중
◎카나다유일의 최고급 Contemporary 가구
◎Meister Collection

◎다이닝·룸 set
◎ Buffet Hutch
◎Living room set
◎베드·룸 set

매니저 : Mrs. Gertrud Krautwurst

◎고급가구점(로버트·심슨등)에 공급하고 있음.



JOHN KRAUTWURST
주 소 : 67 Ingram Dr.
☎ : 249－8261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새 연재

한국일보 事件기자는 말한다

신문에 안난 現場

<취재放談>

사회부의 경찰서 출입기자들은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24시간 발로 뛴다。단순한 안전사고이건 잔인한 살인사건이건간에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는 사건기자의 눈과 발, 그리고 볼펜이 있다。

사건현장을 취재, 보도하는데는 물론 고된 훈련과 초인적인 인내가 요구되지만 명석한 두뇌야 말로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되고 있다。

24시간 서울시내 23개 경찰서에서 취급되는 각종 사건·사고는 그 건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것이다。사건기자는 이 많은 사건중에서 『이것은 기사가 된다』고 판단되는 것만 골라서 취재에 들어간다。때론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도 독자들의 제보등으로 미리 알고 현장으로 달려간다。

이들이 작성하는 기사는 1면머리에서 12면의 1단기사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에 실린다。그러나 워낙 기사가 많다보니 신문에 실리지 못하고 취재노트에 메모로만 남아 있는 사건도 많을수 밖에。

큼직한 특종기사로 특종상이라도 받는 날엔 『이맛으로 기자를 한다』는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상대지에 특종을 뺏긴 날이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는 것이 사건기자다。24시간을 뛰는 사건기자인만큼 애환도 많다。결혼기념일에 야근을 하는가하면 생일날 취재가 미진하다고 선배기자한테 질책을 당하기도 한다。때론 자기가 쓴 기사로 꺼져가는 생명을 구해주는 계기가 됐을땐 온 몸의 피로를 잊고 생기를 되찾기도 한다。

週刊한국은 사건기자들이 못다쓴 사건기사를 방담형식으로 이번 주부터 매주 연재한다。

방담에 참석한 한국일보社사회부 사건기자는 다음과 같다。

▲方政俊 ▲朴珍列 ▲鄭崇鎬 ▲裴秉泰 ▲金宗來 ▲鄭在龍

◇사건을 좇아 24시간뛰는 사건기자들이 신문에 안난 사건기사를 방담형식으로 엮어나갔다。

□特種 고수하라

▲A=지난주에도 큰 사건이 많았지만 기사를 쓴 기자나 독자들이 눈시울을 붉히지않곤 못배겼던 기사는 사미승 慧哲스님기사를 들수 있을 거야。

▲B=심부전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慧哲스님기사(한국일보24일자11면)가 보도되자 31일까지 각계에서 성금이 몰려들어 1천9백53만8천원에 이르렀어。이 성금으로 慧哲스님은 1일 세브란스병원에서 李檗求박사의 집도로 수술에 들어갔지。우리 모두 수술이 성공하길 빌지。

▲A=지난주는 특종기사도 많았었어。九老공단 여공들의 장티푸스 예방접종 중독사건, 九老洞살인강도미수사건, 종합병원에만 몰리는 환자, 漢江直江저수로공사등의 기사가 한국일보 지면을 장식했어。

▲C=漢江直江저수로공사의 문젯점이 보도되자 서울시는 공사계획의 미비점을 전면 보완키로 하지 않았어。역시 지적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

▲B=큰 사건일수록 뒷얘깃거리가 많지 않겠어。장티푸스예방접종 중독사건과 살인강도미수사건이 터진 날은 정말 눈코뜰새 없이 바빴었지。

▲C=데스크와 동·서쪽의 두 야근팀 그리고 특별취재팀까지 호흡을 맞춘 팀웍의 개가였지。

▲D=정말 기분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 하루였어。

▲B=특종을 뺏기지 않은 아슬아슬한 날이었는데 특종을 고수하기위해 난 상대지기자를 따돌리는 바람잡이를 했었어。토요일 야근땐데 슈퍼마킷에서 살인강도 사건이 났다는 전화제보를 데스크에서 연락받고 현장엘 뛰었지。나가보니 슈퍼마킷이 아니고 가정집이더군。다행히 피해자도 숨지지는 않았지。현장에는 박형사가 도착, 주인의 진술을 받고 있었어。

『어떻게 알고 왔는냐』기에 『다아는수가 있단』고 능청을 떨었더니 『안가르쳐줄수 없게됐군』하며 털어 놓더군。기사를 송고하려고 데스크에 전화했더니 『장티푸스 예방접종부작용사건이 생겼으니 다른기자를 현장으로 보냈다』고말했어。

『신문은 독자와 함께 만든다』는 張基榮사주의 말씀이 생각나기도했지。바람을 잡아 J紙가 냄새를 못맡도록하자는 지시가 내게 떨어졌어。

살인강도사건을 송고해놓고 서쪽 야근기자의 출발점인 西大門署에 가서 J紙 야근기자를 기다렸지。

어떻게 해서든지 따돌려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어。눈치못채게 마크하면서 끌고다녀야 하니까。

<삽화·權大雄>

□밤새도록 바람잡이

이윽고 J紙기자가 나타났고 무난히 永登浦署까지 같이 갔어。혹시 九老署에서 마구 붙지 않을까해서 J紙기자옆에서 짐짓 미리 전화를 해봤더니 변사가 있고 초저녁에 있었던 강도상해사건이있다는 대답뿐, 골단 장티푸스백신중독사건얘기는 안나와 속으로 다행이라며 겉으로는 그저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어。

그랬더니 J紙기자도 평소대로 九老署에 전화를 걸었고 역시 강도상해사건얘기를 들은듯이 얼마나 털렸나고 묻더니 알았다며 그냥 끊더군。내가 취재를 안하니까 그도 안해버린거지。

이래서 속으로 야 두건이나 특종이 되는구나며 쾌재를 불렀어。

나란히 취재차를 몰아 다음코스인 江西署로 가서는 다시 가슴이 조마조마했어。

내가 전성으로 한 형사에게 뭐 별일이 없느냐고 물어 없다는 대답을 듣자 옆에 서있던 J紙기자가 형사반장은 어디갔느냐고 물었어 그 형사는 江西聖母병원에 갔다는 대답을 했고 이에 J紙기자는 왜 갔느냐고 물었으나 그형사는 모른다는 대답을 했지。

난 관심없는척 딴전을 피웠지만 여공들이 입원해있는 江西聖母병원 얘기가 나올때는 진땀이 다 나더군。다행히도 그 기자는 그래요라면서도 웬일인지 확인할 생각을 안했어。

난 혼자쾌재를 불렀지。귀로에 남부순환도로를 달리는데 그 聖母병원앞에 이미 도착, 취재중인 우리 회사차가 서있더군。이래서 아차 드디어 여기서 탄로가 나고 마는구나 하면서도 행여 뒤에따르는 J紙취재차에서는 못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차 속력을 갑자기 올려 고속으로 그 병원앞을 통과해 달렸지。

이 숫법에도 그 기자는 속아 역시 고속으로 우리를 뒤쫓아오느라고 미처 병원앞에 서있는 우리취재차를 보지 못했어。결국 두건의 통쾌한 대성공이었어。

▲D=바로 그날 나는 동쪽 야근이었어。초저녁 파일로트 회사전무부인피살사건현장에서 데스크에 전화를 했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밤새도록 바람잡이역할을 하느라고 바쁘게 뛰었지。우리는 비록 동쪽팀이지만 그래도 서쪽사건정보가 입수되는수도 있는만큼 이를 막는 방법은 J紙기자를 불안케 만들어서 서쪽일에는 신경이 가지않도록 해주는수밖에 없잖아。다행히 J紙기자는 신참이었어。그래서 청량리에서 城東으로 또 漢陽大부속병원으로 번질나게 달리곤 했더니 J紙기자는 우리차를 찾아 좇아오기에 정신이 없을지경이더군。이런와중에서 바로 어린이대공원에서 어린이가 코끼리코에 떠받쳐 다친 사건을 캐내기도 했지。

이 기사를 부르고 나니 2시가 넘어 마감시간도 다 되었고 해서 J紙기자에게 슬쩍 뭐 없었냐고 물어봤지。그랬더니 서쪽에 강도상해가 있는 모양이라고 했어。

변호사 집서 課外수업 정보

어마어마하게 큰집에 사나운 개…

課外단속후 제일 많은 학생수

□한 學父兄의 提報

나는 야근출동전에 이미 안일이면서도 일부러 모르는척하며 뭐냐고 다시 묻자 그도 아차싶어서였던지 어물어물했어。이때 우연히 만나 옆에 서있던 S紙기자가 『아 그거 우린 이미 초저녁에 해 보냈어』라지 않아。이래서 나는속으로 아이쿠 우리 특종하나는 놓쳤구나 했었지。그런데도 아침에 J紙를 보니 안나왔더군。S紙도 겨우 2단기사더군。

▲C=역시 그들은 깊이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이야。

▲F=江西聖母병원 현장취재도 드릴 있었지。J紙와 S紙기자를 그곳서 마주쳤는데 J紙기자를 떼어 버릴 수 있었어。

▲E=그 이튿날 J紙는 초상집 분위기였을 꺼야。

A=자 또 지지난주에 특종했던 鍾路署관내의 모여고생들의 집단과외수업이기도 해보지。

▲B=과외수업단속은 사실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로 알고 있어。사실 기자니까 취재해서 보도하지만 그렇게 마음 동하는 기사는 못돼。

▲C=그 사건은 한 학부형의 제보에서 비롯되었지。

이보다 훨씬 전 鍾路署에는 H洞에 있는한 변호사집에서 과외수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적이 있었지。이때 수사관들은 이를 적발해내려고 했으나 현장을 덮칠수가 없어 놓쳐버리고 말았어。

집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개가 사나와 어쩔수가 없었던거야。

이번 사건은 현장을 덮치기 쉬운곳이어서 적발에 무난했던 셈이야。

□禍부른 行政미스

내가 학부형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갔을때는 선생한사람과 여학생 한명밖에 없었어。형사대가 덮친것은 밤이었다는데 과외선생 한명과 여학생 15명을 적발했어。

그 선생은 당황해서였던지 첫말이 걸작이었어。한 사무실에 있었음에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했어。상식적으로 통하지가 않을수밖에。

▲B=예능은 현직교사가 아니면 할수있게 되어 있잖아?

▲C=할수 있어도 추천서가 있어야되는걸로 되어있어。하나 역시 예능과외도 과외다해서 공식적으로 공인할수는 없어선지 그저 묵인해서 숨통을 터주고 있는 모양이야。예능은 국가적으로 우수한 특기자를 양성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좀 예외로 해줬다고 할까…。

▲A=하여튼 그사건은 과외단속후에 제일 학생수가 많은 큰 사건이었어。

▲D=뒤에 얘기론 선생만 구속되고 학생들은 특별히 큰 처벌은 받지 않았데。

교장·교감에대해서는 시교위에서 학교재단측에 몇개월의 감봉처분을 종용한걸로 알려지고 있어。애매하게 범거지를 쓰게 되었다더군。사립학교인만큼 재단에서 징계위를 열도록 종용하고 있는 모양이야。

▲B=그 학교측에서는 한필 멀리도 있지않은 한국일보가 가장 크게 넬수있느냐며 매우 섭섭해한다는 얘기까지 있어。

C=당국의 방침이 과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만큼 자연히 기사비중도 큰것이었고 또 우리가 먼저 보도하는 바람에 편집에서 단수가 커질수 밖에 없지。

▲D=징계얘기가 나왔으니 얼마전의 G大교수면직사건얘기도 해야겠군。

한 女中生 생후3일 아기 안고 署에

돈훔친 中學生들 태연히 "옷사입었다"

문제의 교수는 여러 비리사건에 연루돼 학교당국에서 면직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었지。결과적으로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꼴이 되게 되었어。

그런데 기획실에서 큰 행정미스를 저질러버렸어 1백90여명에 이르는 교수들에게 재임용서를 보낼때 문제의 교수것은 빼놓고 보내야할것을 사무착오로 그대로 다 보내버린거야。

뒤늦게 보고를 받은 학교당국은 얼마나 난처했겠어。『야 이거 큰일났다』며 하는수없이 문제의 교수를 불러 명예로운 자진퇴직을 종용했어。

그 교수는 아예 면직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재임용서를 받고는 놀랐을테고 이어 자진퇴직을 종용받고는 다시 놀랐겠지。잘못 간거다, 도로 내놔라지。이래서 화가 치민 그 교수는 문제로 들고 나왔어。

기자실의 기자들이 와 몰려가 취재에 요란했어。

이때 학교측이 다시 한번 중대한 미스를 저지른 거였어。

□棄兒유기 많아

행정상 착오로 한장을 빼놓아야 할것을 잘못해 보내버린것이라고 솔직이 발표했으면 될텐데 그저 사무착오라며 얼버무리기만하는 바람에 크게 보도가 되고 이 결과로 그 교수의 재임용이 기정사실화되어버렸지。

사회에서 큰 물의가 되는 바람에 교련측의 지원도 있어선지 재임용되었으나 좀 씁쓸한 사건이었어。결국 기획실장등 엉뚱한 두직원 목만 달아났지。

G大측은 올해는 좀 조용히 보내나했는데 결국 또 터져버린 꼴인 셈이지。

▲E=봄철인만큼 계절적인 사건도 많아졌어。

특히 영아유기도 많은것 같아。이 아이들은 아마 작년 한참 봄바람이 불때 생긴 아이들이겠지。

지난달 26일에는 南大門署에 15세가량밖에 안되는 한 여중생이 생후 3일쯤되는 영아를 안고와 형사들이 울지 네가 바로 미혼모구나 싶어 『네가 낳은 아기냐』고 물었더니 그 여중생이 울고 나간적이 있었어。

나중에 안 사연인즉 여중생은 이날아침 10시께 친척을 마중하러 서울역에 가 새마을호 대합실에서 열차 도착시간을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30대 여인으로 부터 기차표를 사는동안 아기를 잠깐만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어느새 그 여인은 행방을 감추어버려 하는수없이 경찰서로 데려온 것이었어。

이런 사정도 모르고 농담 비슷한 『네 아기냐』는 말을 던졌으니 그 여중생은 부끄러움을 견디다못해 울음보를 터뜨린거지。

결과적으로는 좀 너무한 꼴이 되었지만 15세 소녀 미혼모도 많은게 요즘의 세태이고보면 좀 경솔한 판단이었을뿐 지나친 짐작은 아닌 셈이지。

▲F=폭행사건도 유난히 많아진것 같아。특히 요즘은 청소년 폭행사건이 대부분이고 또 하급생이 상급생을 때리는 위계질서 완전 파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것이 [illegible]기 없었던 점이라고 볼수 있겠어。얼마전 남한산성에서 중학생 6명이 고등학교 2학년생 3명을 때리고 돈을 빼앗아간 사건도 날 정도야。

▲D=정말 요즘들어 그런 한국상사건이 부쩍 늘어나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많았어。이건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 같아。

▲F=여기에 범죄자 연령이 날로 낮아지고 있기도 한것 같아。

지난 31일 관악경찰서에는 중학생 9명이 특수절도혐의로 붙잡혀 왔어。

지난해 8월부터 7개월동안 8차례나 밤에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일부는 남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도합 몇 천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장들과 현금 80만원을 훔쳐 오락실등을 누비고 다녔다는 것이었어。

가정도 괜찮은 편인 데… 경찰에 잡혀와서도 모두가 태연히 옷들을 사입었노라고 말할 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

□理由없는 自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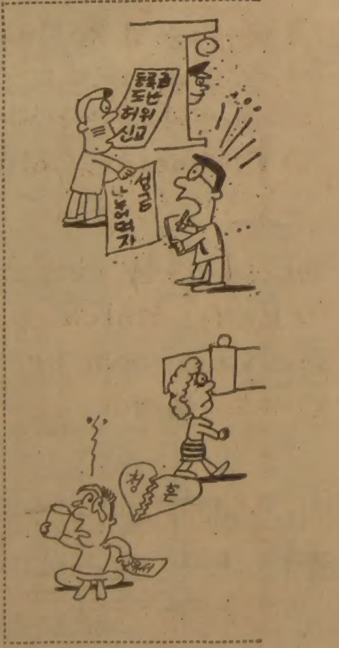
▲B=최근들어 신문사로 전화가 걸려오고있는 편이야。좋은 현상이지만 엉뚱한 케이스도 많아。

▲E=요즘 강도도 꽤 많은 모양이야。신고안하는 케이스가 상당수 인것 같아。언젠가 永東의 한동네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아주머니 말이 요즘 이곳을 자주 찾는 강도는 아예 현금만 요구해 어떤 집에서는 미리 현금 10만원쯤은 준비해 놓고 있다고 했어。

▲A=마치 美國 우리교민 비슷한 얘기군。

▲D=또 신문사에 아니 이용을 해보겠다는 케이스도 부쩍 많아져 골치야。

지난 2월말 여대생등록금 도난사건, 그리고 최근의 사미승스토리로 성금이 꽤 많이 들어오자 이런 사회의 동정심을 노리는 파렴치인간이 많아졌어。



그 대표적인 케이스는 얼마전 청량리서에 H大生이 허위로 등록금을 도난당했다며 신고해온 사건이었어。

등록금철도 아닌데 준비했다가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식이었어。처음 이친구는 東大門署를 찾아왔다가 별 효과가 없자 다시 청량리경찰서에까지 간거야。H大生으로 확인까지 된 그는 끝내 허위로 밝혀져 오히려 처벌을 받았지만 D紙기자를 찾아 성금이 들어오게 해주면 절반씩 나눠 가지겠다는 제의까지 해 어이없게 했다는 거야。

▲A=이거 정말 야단났군。정신 바짝 차리자구。

▲C=봄철들면서 변사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처음엔 긴장해 취재해보면 대개 자살사건들이야。이래서 D경찰서는 아예 노이로제에 걸려있어。얼마전 D洞의 동직원이 목욕을 하고 길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을 때 보안계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며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더군。

현금 強盜 찾아 집에 10만원쯤 준비

大學生 신문덕보려 虛僞"등록금도난"

불과 얼마전 4대독자살인사건이 나 홍역을 치른 이 경찰서는 관내 전경찰관을 모아놓고 사건대비책을 특별교육시키기까지 했지。

▲B=정말 최근들어 인간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생긴것 같아。특히 20대 젊은이들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걸핏하면 자살해 버리는것 같아。지난 28일밤11시께 永登浦의 Y모방인근길에서 한 청년이 청산가리를 먹은 자살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처음에는 말썽많던 Y모방이고 해서 긴장했지。지문조사로 신원을 알아내고, 손바닥에 쓰여진 여자이름의 주인공인 Y모방의 여공 K양(23)을 찾아낸결과 두사람은 교제해온 사이로 이날밤에도 자살 두시간전까지 두사람이 만나 맥주도 마셨다는 거야。그런데 K양이 결혼하자는 청을 거절하자 그청년은 바로 헤어져 자살해 버렸다는 거였지。

▲D=며칠전에 있었던 마포서관내 파출소에서의 청년 변사사건도 그랬어。

처음엔 파출소 안에서의 분신자살이라고 해서 잔뜩 긴장했었지。

釜山美文化院 방화사건 뒤인데다 그청년이 불온한 말도 했었다는 것이어서 신경이 곤두섰었어。

자세히 알아본즉 그 청년은 살롱종업원으로 이날밤 술에 만취돼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마구 지껄여 택시운전사에 의해 신고돼 파출소서 조서를 받고 있었는데 언제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켜댔던지 갑자기 온몸이 불덩어리로 되더라는거야。

그 파출소는 그 사건으로 곤치께나 아팠을꺼야。그야말로 날벼락이었고 한때 지옥같은 장면이 연출된 셈이야。

□할아버지·아가씨 變死

▲A=22살된 미모의 아가씨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어。이 아가씨는 원래 캐나다에서 대학에 다니다 귀국해서 다시 형제자매들과 캐나다로 가기위해 이민수속을 밟고 있었는데 입국비자 얻기가 까다로와 2년간이나 기다리고 있는동안 참지못해 자살한 케이스였어。아마 고국에서의 적응이 어려웠고 비자도 잘안나와 세상을 비관, 자살한것같아。

▲D=청량리서 관내에서는 한 건강한 할아버지가 아가씨와 여관에서 자다가 변사체로 발견된 일도 있어。경찰은 사인을 수사하기에애를 먹다가 뒤늦게 아가씨를 찾아낸덕에 사인을 밝혀냈지。

C=참 별 자살변사사건도 다많아。그렇지만 아마 신문에 보도되는것은 30%도 안될거야。

▲A=사람목숨이 마치 파[illegible]같이된 한심한 현상이야。

<기록·정리 鄭允久 기자>

어디 구경좀 합시다

다이아반지 한개가 아파트 2채값

7년간 적발된 密輸品들 國際公賣

◇朴永復이 홍콩에서 59년 당시 선원생활을 하며 밀수했던 16·9캐러트의 다이어먼드반지。

단 4g짜리인 다이어먼드가 여의도의 50평짜리 아파트 두 채값과 맞먹는가 하면, 가날픈 여자 손목시계 한개가 소형 승용차 두 대값이다。허리까지만 걸치는 털옷은 한벌에 3백만원—。서울永東에있는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 7년동안 감시의 눈을 속여 국내로 들여 온 보석 20만1백52개, 손목시계 1만2천6백66개, 모피 2천2백54등벌을 한꺼번에 팔기 위해 16일 국제입찰에 들어갔다。입찰에 앞서 지난 12일까지 3일간 입찰등록을 마친 응찰자들에게만 물건들을 구경시켰는데, 열람의 主題는 역시 보석류였다。차갑고 날카로운 光輝를 뿜는 16·9캐러트의 朴永復 밀수품 다이어먼드는 사연이야 어떻든 가장 많은 눈길을 끌었고, 루비·새파이어·에머럴드·캐츠아이·오펄등 보석들이 한 자리에서 연출하는 赤·靑·綠의 色調는 진열장속에 들어앉은 小銀河와 같았다。

★관련화보 4면에

◇韓銀 지하금고에 保管

20만개도 넘는 보석들을 75년부터 지금까지 보관했던 장소는 한국은행의 지하금고다。

세관에선 몰수한 보석에 일일이 고유 번호를 달아 비닐로 포장하고 도장을 찍어 개봉 절차를 밟지 않고는 누구도 포장을 뜯지 못하도록 한국은행에 맡긴다。물론 금고사용료는 무료다。

시계는 서울역뒤 서울세관 별관에 있는 특수창고에, 모피는 永東에 있는 서울세관 본건물 4층 보관실에 조심스럽게 들어가 있었다。

朴永復밀수 16·9캐리트 다이어 새主人 찾고

국제입찰에 들어간 보석들 가운데 10%정도만이 통관장치기간 4개월을 넘겨 국고귀속이 된것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몰래 숨겨들여온 밀수품이다。이 때문에 다이어먼드, 루비, 새파이어, 오펄등 값다가고 구경하기조차 어려운 형형색색 보석들은 그 개성과 찬란한 빛깔이 다르듯 모두 다른것과 마찬가지로 밀수와 은닉의 사연들도 제 각각이다。

20만개의 보석가운데 16·9캐러트나 되는 最大의 져몰은 朴永復이 59년 외항선 기관사로 있을때 홍콩에서 몰래 사들여왔던것。은행돈 부정유출로 구속된뒤 병보석으로 풀려나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사람을 시켜 이를 처분하려다 경찰에 걸려든 사연이 있는 다이어먼드다。粒다이어 64개가 細工된 백금 테에 박혀 그 한가운데 4개의 백금기둥위에 턱 올라 앉은 거물 다이어는 최대직경이 1·8㎝에 높이가 1·4㎝, 무게 3·38g—청백색의 날카로운 광채가 좌갈고 흠이 없어 싯가 1억원은 족히 된다고 한다。

이 밖에도 10캐러트, 6캐러트짜리를 비롯, 0·01캐러트에 이르기까지 다이어먼드만 6만7천3백여개가 새주인을 찾아 팔려나가게 됐다。

경매될 보석가운데 다이어 다음으로 많은것은 새파이어다。2만8천4백여개나된다。

같은 새파이어라도 색깔에 따라 불루새파이어, 색이 없는 화이트새파이어, 황금색의 골든새파이어가 있고, 새파이어 알로만 있는것, 반지틀만 든것, 브로치·귀엣고리·목걸이등 장신구에 박은것등등 형태가 아주 다양해 서양 귀부인들의 사치와 호사를 보는듯하다。

23·5캐러트짜리 블루새파이어도 있는데, 국내 싯가로 낮게잡아 2천5백여만원은 된다고 하나 이렇게 큰것은 거래된적이 없다고 한다。이 사파이어는 明洞의 모 귀금속상통을 자주 드나드는 여자 중개상 「짜분이」를 통해 東氷庫洞의 「귀부인」에게 넘어가기 직전 세관직원에게 적발됐던 보석이다。

25캐러트짜리 루비알도 있다。신비스런 赤色을 띤 밤알만한 이 보석은 흠이 없고 색이 만족스러워서 제대로 임자만 만난다면 1억원은 받을수 있다고 한다。

이번 경매에 들어간 루비는 1만4천2백70개나된다。

◇껌속에 다이어먼드

다이어등 보석류는 공항에서 통관검사를 할때 세관원이 몸 수색을 못하게 돼있어서 X레이 투시로 검사하고있는데, 금속류가 아닌 보석 알만을 주머니에 넣고 들어올경우 이를 적발하기가 어렵게 돼있다。이같은 검사의 맹점을 알고있는 밀수자들은 전처럼 껌 포장 속이나 화장품 속, 치약 속에 숨겨오는것보다 아예 주머니 속에 감춰 들여오는 숫법을 써 보석류 검색망을 빠져나간다。

그러나 세관원의 육감과 정보망을 통해 족집게로 집어내듯 밀수품과 밀수자들을 잡아낼 때도 적지 않다。

세관 수사관들은 공항세관통을 빠져나간 보석들을 찾아내기 위해 호텔이나 귀금속상통을 부단히 추적한다。

3년전엔 세종호텔에 투숙중인 중국인 한 명을 급습했는데, 창밖으로 씹고 있던 껌을 내 던져버리곤 시치미를 뗐다。

수사관은 이 호텔옆의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 냉방순환 기계장치등으로 어지럽혀진 옥상을 몇시간이나 뒤진끝에 껌을 찾고 껌속에서 1캐러트짜리 다이어 (3백만원~5백만원)를 발견했다。

이사짐에 숨겨온 밍크 재킷 乘用車1대값

귀금속 살롱도 밀수품들이거쳐가는 주요 경유지。

귀금속 살롱은 쇼 윈도를 1층에 갖고있는 일반 점포와는 다르다。주로 忠武路와 明洞 골목의 허름한 빌딩 2층에 자리잡고 있는데, 안에 들어서면 두툼한 카피트와벽에 붙여 만든 진열장, 조명등이 고급스럽고, 주인 차림새부터가 흔치않은 멋장이다。

고객은 장안에서 소문난 부자집 마나님도 있고, 요정마담, 여사장도 있다。

아뭏든 내노라시는 「귀부인」들이라서 일반점포는 우습게 여기는 것이 살롱 고객의 생리다。살롱의 보석 진열방법은 일반점포와는 달라서 아주 잘 생긴 물건 딱 한개만을 돋보이게 내거는 곳도 있다。明洞일대에만 이런 곳이 20여개소나 되는데, 얼마 전 세관 수사관이 정보를 입수하고 들어서자 바닥으로 뭔가를 던지는것 같았다。

그러나 바닥엔 실오라기가 4㎝는 되는 잔디밭같은 카피트를 깔아놓아서 팥알만한 다이어 알을 찾아내는데 수사관 두 명이 동원돼야 하는 등 법석을 떨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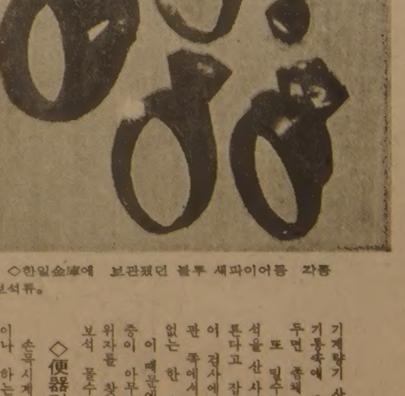
밀수자를 찾아내도 밀수품을 찾아내지 못하면 수사는 허사다。그것도 부피가 작아서 감추기는 쉽고 찾아내기는 어려워 애를 먹기 일수다。

테이블 밑에 보석을 테이프로 슬쩍 붙여두거나, 전기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기계량기 상자속에, 또는 쓰레기통속에 휴지로 싸서 던져두면 좀체 못찾는다。

또 밀수보석만 찾아내도 보석을 산 사람이 판 사람을 모른다고 잡아떼면, 증거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수사관 쪽에서 판 사람을 댈수 없는 한 수포가 된다。

이 때문에 밀수품이라는 심증이 아무리 강해도 밀수행위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한 보석 몰수는 불가능하다。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됐던 각종 보석류가 공매에 들어가기 앞서 조심스럽게 개함됐다。



◇한일金庫에 보관됐던 블루 새파이어등 각종 보석류。

◇便器밑의 秘倉

손목시계 한 개가 8백만원이나 하는 파텍을 비롯해서 피아제, 카르티에, 타워등 한국엔 몇개 안된다는 고가품 18개와 롤렉스 1백35개, 오메가 6백53개, 불로버 1천6백14개, 카쇼 2천1백7개등등 23종의 시계 1만2천4백24개가 공매에 들어갔다。

수량이 가장 많기로는 세이꼬로 2천3백74개。그 다음이 카쇼, 라도(1천8백20개)순으로 나타나 7년전까지만 해도 압도적이었던 타도가 카쇼에 밀린 듯하다。

시계 밀수는 한 두개씩 손목에 차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외항선원들이 선박에 숨겨 대중품을 대량으로 들여오는 일이 흔하다。

1만t급의 외항선 크기는 운동장만 하다。손목시계를 몇개 또는 몇십개를 숨기기는 마음만 먹으면 간단한 일이고 몇 백개를 숨겨온 일도 있다。

배가 입항하면 일단 세관원의 검색이 있게 되는데, 배는 온통 철판과 쇠로 돼있어 금속탐지기는 제 구실을 할수 없다。세관원이 눈으로 검색을 하는 방법 외엔 별도리가 없는데 배의 엔진 크기만도 사람 키의 3배나 되는게 보통이다。배의 맨 밑바닥 피스톤 크기도 두 아름은 넘는다。엔진 오일 탱크도 목욕탕만 한데 이 속에 비닐봉지로 밀봉한 손목시계들을 대량으로 숨겨왔다 적발된적도 있다。

배의 화장실 변기 밑은 한때 秘倉의 대종이었고, 철판을 조그맣게 살짝 떼어내고 다시 닫아 두면 그것으로 흔적도 안 남는 秘倉이 된다。선원실 벽·침대밑같은 곳을 산소용접기로 도려내고 시계를 넣은 다음 다시 덮고 그위에 바닥과 똑같이 몰타르를 바르거나 시멘트로 발라버리면 세관원과의 숨박꼭질은 일단 선원의 승리다。

이 때문에 선박 서치(검색)라고 불리는 세관원들의 비창찾기는 한 두시간으론 어림도 없다。

철판 밑의 또 철판을 뜯어 낸 2중비창이 있는가 하면, 사람 키 한길이 넘는 오물폐기장에다 슬쩍 숨겨 둔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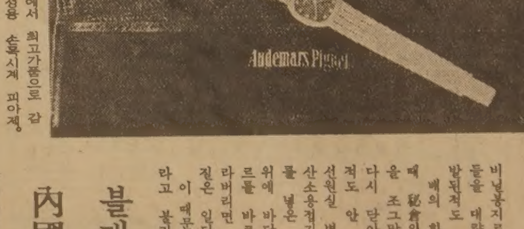
노련한 세관원은 철판 위에다 소금물을 뿌려 일부러 만든 쇠녹이나, 몽키로 나사못을 돌려 생기는 나사못의 마모상태등을 관찰해 밀수품을 찾아낸다。

블래지어속에 감춰들여온 時計도 競賣

대량으로 밀수를 했던 홍콩 교포 C여인은 브러지어 속에 시계줄없는 여자시계 1백여개를 숨겨온적이 있으며, 중개상 「노랑머리」(37)는 釜山에 들어온 시계를 3백여개나 몸에 띠를 만들어 차고 그 위에 콜세트를 착용한다음 헐렁한 원피스를 걸처입었다가 붙잡혔다。

8백만원짜리 파텍은 혁대 안쪽 가죽속에 지퍼가 달린 주머니를 만들어 숨겨오다 적발된것이고, 넥타이 매듭속에 숨겨온것, 오버코트까지 입은 사람의 와이셔츠 칼러 목뒷부분에서 3백만원짜리 카르티에가 나온것등등 희상품 밀수는 은닉방법도 여러가지였다。

內國人에겐 안팔아…豫定價미리 알리고



◇공매에서 최고가품으로 감정된 여성용 손목시계 피아제。

◇낙찰되면 국외로 반출

밍크는 허리까지 오는 재킷이 3백만원이나 하는게 있고, 코트는 승용차 한대 값이나 되는것도 있다。돌쥐 2백마리로 만든다는 돌쥐 모피는 밍크코트보다 비싸다고 한다。

경매에 들어간 밍크모피는 1천9백51점으로 가장 많으며, 토끼 1백30점, 여우 66점의 순으로, 양, 족제비, 너구리등 8종류를 모두 합치면 2천2백54점이나 된다。

모피류의 밀수는 APO를 이용한 것이 대종。미국의 한국인 교포와 주한 미군간에 은밀한 약속만 이뤄지면 한미행협규정상 APO로 보내지는 물건은 그 10%만을 검사하게 돼있는 발췌검사의 맹점을 악용할수 있는것이다。밍크류 밀수 가운데 머려는 이삿짐 이불속에 솜인양 숨겨오는것도 있다。또 선원방에 있는 이불속에서 밍크가 발견되기도。

아뭏든, 숨기는 재주도, 또 이를 찾아내는 솜씨도 만만치 않아 물건마다 사연과곡절이 없는게 없는 보석과시계, 밍크등 호화의 극치들이 재수출돼 새 주인을 찾아가게 됐다。

이번 공매는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가진 나라의 외국인이나 이들 외국인의 위임을 받은 미국인이라야 응찰할수있게 돼있다。공매의 명칭도 「국제공매」다。

75년까지만 해도 2~3년간 모았던 몰수품을 매각예정가격을 발표하지 않고 공매했지만 이번엔 7년간 모은것이라서 물량도 많고 낙찰자의 기대이익을 고려, 아예 예정가를 발표한것이 특징이다。예정가는 보석류가 12억9백78만3천2백1원이고 손목시계가 3억2천4백17만9천9백56원, 모피가 1억4천6백90만5천2백47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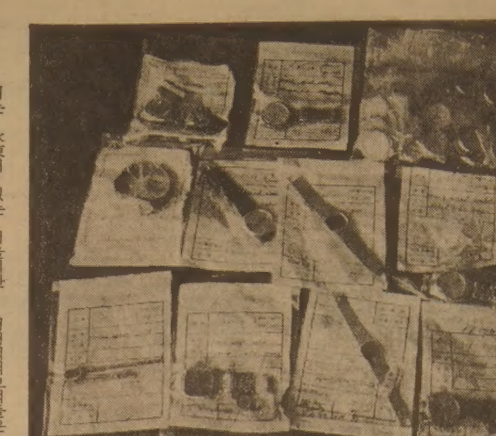
또 입찰은 물건 몇개씩을 선정해 응찰하는것이 아니라 보석류는 몽땅 한 사람이, 시계도 모피도 마찬가지로 전물량을 대상으로 한 사람에게 몰아서 팔게 돼 있다。

몰수품을 국내인에게 팔지 않는 이유는 부질없이 사치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 물건들이 팔려 흩어지면 공매품과 부정품의 식별이 어려워 혼란이 염려되며, 돈이 생산적으로 회전돼야겠다는 시의에 맞춘 것이다。

앞으로 몰수품이 낙찰되면 대금을 결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량을 낙찰자가 비행기로 싣고 떠나도록 규정돼 있다。

입찰 날짜는 16일부터 오는 4월17일까지 7차례로 나누어서 실시하는데, 유찰될 경우 3회 입찰때부터는 예정가격의 10%이내로 체감한다。원체 비싼 귀중품이라서 낙찰자가 국외로 싣고 나갈때에는 짐을 다 싣을때까지의 보세운송등로는 서울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만으로 가게돼있다。그 시간이나 통로 호송관계등은 극비라 한다。

〈張紫灌기자〉



◇8백만원짜리 파텍을 비롯해 카르티에, 피아제, 타워등 세계적으로도 값비싸기로 유명한 손목시계와 세이꼬등 대중품 1만2천4백24개가 공매되고 있다。

◇한벌에 5백여만원이나 되는 밍크코트를 비롯한 각종 모피 2천2백54점이 예정가격 1억4천6백90여만에 국제입찰에 붙여지고 있다。

첫情·첫男子

한국의 妓生 ⑮

글 全完吉
그림 李良友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 인연을 매우 중시한다. 여염여자도 그렇지만 路柳墻花로 일컬어지는 기생 역시 첫 정을 나눈 남자를 잊지 못한다. 이처럼 첫 정을 나눈 첫 남자를 잊지 못해 하면 節妓라 하여 칭송하지만, 그런 칭송의 뒤안에서 妓生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속성이 생겨났다. 기생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손해라 여겼던 것이다.

첫 因緣을 목숨보다 重視하는것이 韓國여성의 特徵

恨품고 죽어 背信한 男子에게 復讐하는 이야기많아

♥첫사랑 背信의 業報

한국인이 첫 인연과 그 약속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그리고 첫정을 저버린 업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뭇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일화가 있다.

洪宰相(원문에는 洪宰樞라고만 기록되어 있어 누구인지 모름)이 벼슬에 오르기 전에 있던 일이다. 길을 가다가 비를 만나 굴속으로 달려갔는데 굴속에 작은 집이 있고 나이 열예닐곱 되어 보이는 어여쁜 여승이 홀로 앉아 있었다. 홍재상이 어째서 혼자 있느냐고 물었다. 여승은 세 사람의 여승이 함께 사는데 두 사람은 마침 시주를 얻으러 갔기 때문에 혼자 있다고 대답했다. 홍재상은 그 여승의 아름다움에 이끌리어 정을 통하고 단단히 약속했다. 모월 모일에 그대를 맞아 집으로 데려가겠노라는 것이었다.

여승은 홍재상의 말을 철석 같이 믿고 그 날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 날이 되어도 홍재상은 나타나기는 커녕 소식조차 없었다. 여승은 상사병을 앓다 죽고 말았다.

뒤에 홍재상이 출세를 하여 남방 절도사로 鎭營에 머무르던 어느 날 밤이다. 도마뱀 같은 것이 이불깃을 스쳤다. 홍절도사는 기급을 하여 아전을 불렀다. 아전은 그것을 잡아내어 죽였다. 그러나 이튿날 밤에 또 그와 같은 짐승이 기어들었다. 또 죽였다. 그러나 그 다음날 밤도, 그다음날 밤도 여전히 그것은 밤만되면 기어들었다. 그제서야 홍절도사는 전날 여승의 조화가 아닌가 하여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나 자신의 威武만 믿고 번번이 죽여없애라 하였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짐승의 몸뚱이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는 큰 구렁이가 되었다.

홍절도사는 營中의 모든 군졸들에게 칼을 들고 사방을 경계하게 하였지만 구렁이는 여전히 포위망을 뚫고 들어왔다.

장작더미에 불을 지펴 놓고 구렁이를 집어 불속에 던져도 구렁이는 죽지 않았다. 홍은 구렁이를 함 속에 넣어 방 안에 두기로 하였다. 변방을 순시할 때도 사람에게 함을 지워 앞서 가게 하는등 뒤늦게 정성을 보였지만 그는 점점 정신이 흐려지고 얼굴빛이 파리해지더니 마침내 병들어 죽고 말았다.〈慵齋叢話〉

홍재상과 여승의 비련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자에게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첫사랑을 잊은 사나이는 화를 입고 만다는 한국인의 俗信을 보여주고 있다.

♥女子와 첫정

기생이 첫 정을 준 사나이, 그 사나이의 언약을 굳게 믿고 죽은 예를 李羲發의 愛妓에게서도 본다. 이희발은 관찰사의 신분으로 安邊에 이르러 나이어린 妓生의 童貞을 차지하고 뒷날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희발은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고 세월을 보냈다. 기생은 죽을 즈음 情表로 받은 부채에 시를 적어보내 왔다.

當年의 기둥에 금 긋던 은혜 가슴에 새기며/安陵에서 이별할 때 넋도 사라질듯 내마음 어두워/시험삼아 상자 속 임의 부채 살펴보니/반은 향기에 젖고 반은 눈물에 젖었네.

그러나 그 동기는 죽어서 여승처럼 복수하지는 않았다.

이보다 더 절절한 이야기도 있다. 笑春風이란 기생이 늙어 妓業을 마치자 崔國光이 첩으로 삼았다 (고려·조선시대에는 官妓가 늙어 퇴역하면 결혼하도록 허락하였다. 모든 기생이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재주와 용모가 뛰어난 退妓라야 더러 벼슬아치나 부자의 첩이 되었다). 소춘풍은 한창때 선비 李秀蓬과 첫사랑을 맺었었다.

어느 날 소춘풍의 병이 위독하여 죽음이 임박하여 오자 최국광은 자기의 무릎을 베게 하며

『자네 병이 무거우니 소원이나 말하여 보게』했다.

소춘풍은 『수봉을 보고 싶어요』하였다.

최국광은 아무 말도 않았다. 그가 죽자 고양군에 묻었다.

京妓 上林春의 경우도 그러했다.

상림춘은 거문고 잘 타는 기생으로 이름이 높았는데 참판 申從濩(1456~1497)와 첫 사랑을 맺었다. 신종호는 신숙주의 손자로서 병조·예조·이조참판을 지내고 1496년에 병을 무릅쓰고 正朝使로 明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개성에서 병사했는데, 상림춘은 72세가 되도록 節義를 지키고 신종호가 써준 시를 안고 살았다.

다섯째 다리 머리에 버들이 휘늘어지고/느지막이 바람부는 날 화창도 하다/담황색 주렴 열 두 난간에 사람은 옥 같아/靑鎖門 글하는 신하는 믿는 말 가는 대로 지나간다 (第五橋頭楊柳斜 晩來風日轉清和 緗簾十二人如玉 青鎖詞臣信馬過)〈稗官雜記〉

당시 사대부들이 상림춘의 재주를 아까와하고, 신종호와의 첫정을 기리며 사는 그를 위하여 다투어 시를 지어 주었다.

李晬光의 芝峰類說에 이런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다.

어느 선비가 새로 첩을 얻었다.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와보니 첩의 눈에 눈물자국이 있었다. 선비가 까닭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자 이번에는 가족에게 까닭을 물었다. 그랬더니 여종이 『아씨께서 경대 서랍속에 흰 머리카락 한 뭉치를 두고는 주인이 계시지 않을 때마다 꺼내어 보고 우십니다』하였다.

이 말을 듣고 경대 서랍을 열어 보니 여종의 말대로 머리카락 뭉치가 있었다. 선비는 그녀의 전 남편이 노인이었음을 알아내고 그를 잊지 못해하는 여인을 돌려 보냈다.

童貞바친 男性위해 守節…「貞女」라 기림받은 妓生많고

燕山君은 질투 끝에 寵姬의 첫 남자 깡그리 죽이기도

그리하여 우리나라 남자들은 과거가 있는 여자를 꺼린다. 지금에야 양상이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해도 옛 애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파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예가 많았다. 최국광처럼 껍질만 데리고 살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불가피하여 재혼하더라도 후처는 조강지처처럼 신뢰하지 않는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는데 누가 어떻게 믿나는 것이다.

여인의 과거를 지독하게 싫어한 사람은 연산왕이었다. 지울래야 지울수 없는 여인의 과거를 그는 지우려 들었다.

♥燕山王과 男子의 마음

연산왕은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못잊어하는 옛 애인을 깡그리 죽여버렸다.

生員 黃允獻의 첩이 얼굴이 아름답고 가야금을 잘 타 具壽永이 빼앗아다가 연산에게 바쳤다. 연산이 그녀를 사랑하였는데 그녀가 말도 잘 않고 웃지도 않으므로 그전 남편을 잊지 못해서 그런다하여 황윤헌을 죽였다.

또, 총애받던 기생 하나는 동료 기생에게 『지난 밤 꿈에 예전 주인을 보았어. 이상해』라고 말했는데 그말이 연산에게 알려졌다. 얼마 후 宮人에게 시켜 은쟁반에 무엇을 담아 그 기생에게 내렸는데 그 기생이 열어보니 그 쟁반에는 옛날 남편의 머리가 담겨 있었다.

연산은 마침내 그 기생마저 죽였다.〈燃藜室記述〉

연산 10年(1504) 8월17일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기생들에게 풍악을 잡히고 옛 성균관 下輦臺에서 활쏘기를 하던 연산은 느닷없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기생 笑紅粒은 항(衎)의 첩이었으니 항에게 禁內(궁궐)의 일을 누설하였을것이다. 더우기 항이 서인이 되어 먼 지방에 있으니 이 기생은 반드시 원한을 품고 있을것이다. 대저 기생을 가리켜 路柳墻花라 하고, 혹은 東家食西家宿한다 하는데 소홍립은 노래 부를때 항상 수심에 찬 얼굴이고 노래도 화한 음성이 아니다. 아마 전 남편을 생각해서 그런 모양이다. 궁중일을 누설한 죄를 刑訊하고 변방으로 귀양 보내라』〈燕山君日記〉

연산왕, 그는 욕심도 많아 여자의 몸과 마음을 몽땅 가지려 하였지만 끝내 모든 여성의 마음을 독점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연산의 잔인성은 탓할지라도 연산의 욕심마저 탓할 수는 없다. 연산과 같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이다. 그러므로 한가닥 淫心이라도 품지 않은 여인을 남성들은 가지려 하였고 그런 여인을 貞女라 기렸다.

첫 정을 나눈 첫 남자를 잊지 못하는 우리나라 여인의 특성은 칭찬할만하지만 이 특성이 한국의 많은 여인들, 특히 기생을 불행의 수렁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관념은 지금도 여전하다.

오늘날 기생은 사라지고 없지만 기생과 유사한 직업 여성들이 많다. 소위 「아침에 퇴근하는 여자」들이다. 아침에 퇴근하는 여자들 가운데는 일시적으로 발을 내딛고, 순정을 간직한 이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東家食西家宿하는 노리개 혹은 路柳墻花로나 여길뿐 순정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설사 그 순정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려 하더라도 친지나 가족이 그녀의 진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과거가 없더라도 과거가 있으려니 여기고 과거가 있는것 이상 마음을 산산 조각낸 꺾진 뿐이라는 것이다. 이때문에 옛날에 많이 여성들이 버림받았지만 오늘날에도 유흥업소에서 남자를 상대하는 여자들이 한없이 운다. 울지 않으면 안된다. 〈계속〉

TV저널

스튜디오 & 로케이션

익살과 권법 보여줘

MBC 史劇·수사물 「암행어사」

어사 李正吉과 갑봉이 林賢植이 熱演

몰매맞는 장면서 가발벗겨져 NG도

…MBC-TV가 매주 월요일밤 내보내는 「암행어사」는 사극이면서도 일면 수사물로서의 긴박감을 잃지않아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는 프로다.

드라마 「암행어사」의 매력은 여러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어사 李正吉과 갑봉이 林賢植이 만들어내는 서정어린 분위기. 여기에 林賢植 특유의 익살이 가미되면 암행어사의 분위기는 고조되게 마련이다.

지난 3월29일 방영된 「잃어버린 任置標」편의 녹화현장 역시 林賢植의 극중 익살이 녹화의 지연으로 짜증스레 가라앉던 분위기를 풀어주고 있었다.

갑봉이 林賢植이 보부상인 金周英·朴相祚등에게 뭇매를 맞는 장면이었다. 스튜디오의 아스타일바닥의 잇점을 최대한 이용, 특유의 비틀걸음을 보여주던 林이 마침내 바닥에 깔려 발길질을 당하고 몸부림을 치는 대목에서 갑봉의 머리에 씌워진 가발이 계속 벗겨져나가 NG를 연발하는것. 입으로는 「아구 아구 갑봉이 죽네」를 외치면서도 손으로는 연신 가발을 붙잡고 늘어져 뭇매를 때리던 보부상들은 물론 주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엑스트러들까지 배를 쥐게 만들었다. 촬영실의 트릭을 이용, 무사히 끝내기는 했지만 수십여분간 바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딩군 林賢植은 『극중의 종놈신세도 따분하지만 내 신세도 과히 나을건 없다』고 푸념…。

○…한편 보부상패거리의 하나로 나온 탤런트 朴埰樹는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태권도 솜씨를 보여주어 주위를 놀라게했다. 예쁘장한 얼굴에 아담한 몸매로 무력이나 폭력과는 거리가 멀 것처럼 느껴지던 朴이 높은 담위에서 사뿐히 내려서는 유연한 낙법을 보여주고 절도있는 권법을 선보였을때 동료탤런트들은 입을 모아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르는 것』이라며 탄성을 질렀다.

○…악역전문의 洪性民. 여기서도 역시 여우같은 객주집 늙은이로 등장, 시청자의 분노를 샀는데….

바람둥이 40대사업가, 사기꾼사장, 능글맞은 부자영감, 반신불수의 폐인, 약한자를 등쳐먹는 악덕고리대금업자등 순전히 악역만을 전문으로 해온 洪性民은 평소의 눈초리도 야비해져가는것만 같아 걱정이 태산이라고.

주위에선 『덕분에 배역이 끊이지않으니 그나마 다행이 아니냐』고 조크。

高層건물의 火災에 도피는 이렇게

먼저 發火지점부터 확인

출입문·창문꼭닫고 피난

가능하면 커튼등 연소물 제거도

화재사고는 조금만 방심하면 일어나기쉽다. 어쩌다 화재사고가 났다고 할때 당황하기쉽다. 한국소방안전협회가 밝힌 도피요령은 다음과 같다.

빌딩이나 지하가에서 『불이야!』하는 소리를 들었을때 마구뛰쳐나가려고 해서는 안된다. 빌딩이나 지하가에서의 화재는 발화초기에는 산소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길이 세차지 않고 燃燒도 완만하다.

그러나 위층에 있을때는 피난하는데 시간이 걸릴뿐 아니라 많은 연기를 분출하기 때문에 자연히 피난이 어렵게 된다. 무엇보다도 연기로 부터 빨리 도망치고 혼란에 휘말리지 않게하기위해서는 정확한판단과 기민한동작이 필요하다.

우선 단 몇초라도 침착을 되찾아 연기가 뿜어대는 상태나 주위의 상황을 살펴 발화장소는 몇층이며 지금자기가 있는 장소는 불이나고있는 층보다 위인가 아래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백화점같은곳에서는 발화장소를 방송하게되는데 이때 당황한 나머지 귓전으로 흘려버려서는 안된다.

빌딩등의 自家에서 발화한 불길이 약할때, 잡지못했을 때에는 출입문이나 창문을 꼭닫고 난후 피난해야한다. 창이나 출입문을 연채로 피난하면 그자리에 산소의 공급이 왕성해져 불길이 더욱 강해질 뿐아니라 火煙이 복도쪽으로 분출하여 화재를 더욱 확대시키고 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대피를 곤란하게 한다. 또 발화장소이외의 사람들이 대피할때도 반드시 창이나 문을닫고 커튼을벗기며 타기쉬운물건은 창에서 되도록 멀리떨어지게 옮겨 延燒를 막는다.

자기가 있는곳이 발화장소보다 아래층일때는 덤비지 말고 주변을 정리, 귀중품을 갖고 나갈준비를 한다. 위층에서 불이났을 때 아래층으로 연소하는예는 드물다. 그러나 소화작업때 물벼락을 맞기쉬우므로 덤비는것도 안좋지만 너무 늑장을 부려도 곤란하다.

미스터 펀치

海外걸작漫畫

『…코치의 입을 다물도록 해』
"…to let their Third Base Coach … you."

海外 걸 작 만 화

◇잃은 물건은 여기 와서 찾아보아요.

◇◇네가 세관에 신고할 물건은 쿠키뿐이야, 이 꼬마야.

◇너한테도 초청장을 보내줄까?

◇포크에 전기라도 통하니, 왜 그렇게 떨어.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M NOT MYSELF TODAY.

오늘따라 typist(타자수)인 Betty의 행동이 이상하다 "평상시같으면 금방 되는 typing도 30분 이상이나 걸리고, 그것도 오자 투성이다. coffee를 엎지르고 곁에서 누가 무슨말을 걸어도 엉뚱한대답을한다。

What's the matter with you? (무슨일인가?) 라고 물어 보았더니 My father had a heart attack last night and he is in the hospital. I'm not myself today. (저의 아버님이 간밤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병원에 계십니다。오늘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라고대답하였다。

I'm not myself. 란 이같이「내정신이 아니다」라고할때 사용하는표현이다。I'm under the weather. 란말도있다。이말은 날씨밑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not feeling well physically (몸이 좋지 않은것) 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몸이 좋지않다」라는 말이다。

I'm feeling a little under the weather today, so I'd like to go home early. (오늘은 몸이 좀 좋지않아서 일찍 집에 가봐야겠읍니다) 이같이할수있다。같은말로는 I don't feel well. 이있다。

A : We had a meeting at 10 o'clock. Where were you?
B : I'm sorry. I guess I forgot.
A : Forgot? How could you forget?
B : I don't know. I'm not myself today.
A : What's wrong?
B : Maybe I'm just tired. I haven't been getting much sleep.
A : 10시에 모임이 있었는데 어디 있었니?
B : 미안해。잊었던 모양이야。
A : 잊었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지?
B : 모르겠다。오늘은 내 정신이 아니야。
A : 뭐가 잘못됐니?
B : 아마 피곤한 모양이야。요즈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
※ heart attack : 심장마비 (=heart failure) heartache 마음의상처

I'M ON MY WAY.

한번은 미국인 친구와 한국식당에서 점심약속을 했었는데 30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모처럼 한국요리를 자랑하려고 하였는데 도대체 나타나질 않는 것이다。

하다못해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마침 시외전화를 받느라고 늦었다고 변명하면서 「지금 갑니다」라고 하였다。이때 그는 I am going now. 라고 한게 아니라 I'm on my way. 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지금 곧 간다」「가는 중이다」할때는 이렇게 on my way 표현을 사용한다。

「집에 가는 중이다」I'm on my way home. 이때 home앞에는 to라는 전치사가 붙지 않는다。「학교 가는 중이다」I'm on my way school. 하면 된다。

A : Hello, John.
B : Hi, Jack.
A : What happened to you? I've been waiting for twenty minutes.
B : Oh, I completely forgot about our meeting. I'm on my way. Please wait for me.
A : O.K. I'll wait for you at the main entrance.
B : Fine. See you in a few minutes.
A : 안녕, 잔。
B : 안녕, 잭。
A : 무슨일 있었어? 이십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B : 우리의 모임이 있다는것을 깜박 잊었어。지금 가는중이야。미안하지만 기다려 줘。
A : 알았다。정문에서 기다릴 께。
B : 그래。좀 있다 만나자。
※wait for : ~를 기다리다。약속에 늦은 경우
「오래 기다리 셨어요?」
Have you been waiting long? 할수있다。
그때 대답은 「저도 이제 방금 왔읍니다。」
I Just got here myself. 라고 하면된다。
main entrance : 정문
completely : 【컴프리트리】라고 t를 파열시키지 않고 【컴프릿】을 발음한 후 순간적으로 쉬었다가 【리】를 발음한다。【컴프릿—리】。

민병철생활영어
책、카세트、비디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連載小說

스물세살의 자서전 ⑲

金洪信 作
崔然石 畵

지난줄거리

모처럼 다혜와 촌찬은 하루를 즐기기 위해 신문을 사들고 계획을 세웠다. 제일 먼저 음험한 광고 문안대로 극장부터 들어갔다. 여자의 육체를 팔어파는 영화를 보고 나와 촌찬은 본전 생각이 나서 표값의 반값을 되돌려 달라고 떼를 썼다. 기도와 젊은애들이 구석으로 데려가 때리려다가 혼이 난다. 극장 주인에게 젊은이 무시하면 혼난다는 걸 가르쳐주고 나온다.

우리는 덕수궁까지 걷기 시작했다. 화창한 날씨였다. 봄 날은 거리의 표정에서부터 시작되는게 도시의 봄맞이인 것 같았다.

『피카소의 애들 그림같은 걸 꼭 봐야 되니?』

『애들 그림이라니?』

다혜가 반문하듯 물었다.

『나도 그 정도는 그리겠다. 서양 녀석들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 코를 뒤통수에다 그리고 눈을 이마에다 그리는 그런 해괴망측한 것에 미쳐가지고 떠드는걸 보면 개들은 확실히 정신분열증 국민일지 모른다니까.』

『정말 같이 다니다 챙피 곱배기로 먹겠네.』

『곱배기는 언제나 배 불러서 좋지.』

『가서 본 뒤에 애기해. 저런 남자를 애인이라고 델구 다니는 내가 처량하다니까.』

다혜가 어이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델구 다니다니?』

『취소, 끌고 다니는 걸로.』

『말 다했니?』

『잔말 말고 따라 다녀 봐. 찬이가 얼마나 무식의 대명사인지 가르쳐 줄께.』

『나 가는 수가 있다.』

나는 돌아서는 시늉을 했다.

『안따라와 봤자야. 꿩 저만 추울테니까.』

나는 할수 없이 다혜의 뒤를 따라갔다. 우리는 키득거리며 웃었다. 나는 꿩이 되기 싫었고 다혜는 자꾸 나를 꿩처럼 생각하려고 했다.

꿩 저만 춥지 잠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것 같다.

어떤 순박하고 또 순박하기만한 농부가 살았읍니다. 얼마나 순박했는지 동짓간에 가서 바지 까내리고, 앉아 있다가 똥통의 오줌에 비친 아랫도리가 부끄러워 얼른 바지를 추스리는 그런 양반이었읍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순박한 농부는 꿩 한 마리를 잡았읍니다. 뒤꼍에 날아온 꿩이 겨울 날씨에 먹을게 없어서 그 창피를 당한 거였읍니다. 이 순박한 농부는 성질 하나는 급해서 그 자리에서 털부터 뽑았읍니다. 반쯤 털을 뽑다 생각하니 뜨거운 물에 처넣어 털을 뽑는다는 데 원칙을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그는 꿩을 그 자리에 놓고 뜨거운 물을 가지러 갔읍니다. 뜨거운 물을 들고 와보니 반쯤 털 빠진 꿩은 도망가버리고 없었읍니다. 순진한 이 아저씨는 꿩이 도망간 산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읍니다.

『꿩, 저만 춥지.』

표를 사들고 전시실 안으로 들어갔다. 첫눈에는 피카소란 늙은이가 동네 꼬마들하고 장난하던 작품같이 느껴졌다.

『눈 똑바로 뜨고 잘 봐둬. 장난한 건지 해탈한 건지.』

다혜가 내 등을 밀어 앞세우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다.

『거나게 잘 그렸는데.』

『이런 데선 조용히 하는 게 예의야.』

『나두 에어로빅 댄스하러 온 놈 아냐. 너무 주눅들게 하지마.』

전시실 안에는 피카소가 생전에 남기고 간 도예품들이 도난방지를 위한 유리관 속에 가지런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나는 차츰차츰 부끄러운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부끄러움을 감추기는 힘 들었다.

그게 파면 내가 생각해왔던 애들의 장난같은 것이 아니라고 믿게 되는 내 믿음일까? 모르겠다. 피카소인지 피에르·가르뎅인지 보통 늙은이가 아닌 것만은 확실했다. 양코배기들이 그 늙은이 앞에 넙죽넙죽 절할 수 밖에 없었을 것 같았다. 코가 이마에 붙었거나 눈이 턱 밑에 붙었거나 아름다운 건 확실했다. 그 늙은이는 동심 속에서 그런 것이지 결코 이 땅의 일부 늙은이들처럼 전위와 근친상간적 비평과 일부 소갈머리없는 돈 많은 여편네들이 조작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예술이니 미술이니 하는 건 모른다. 다만 봐서 뭔가 찌릿하게 오는게 있거나 내 눈에 보기 좋으면 그만인 사내였다.

『약올라 미치겠다.』

『갑자기 왜 이래?』

『저걸 집어다가 술병이나 됐으면 좋겠다. 저건 전시하고 저건 세수대하고 또 저건 우리집 화장실바닥에 깔고… 제 예술을 아예 돈 많이 하는 여편네들 발딱 자빠졌다가 석달 열흘만에 깨어나는 꼴좀 봤으면 좋겠다.』

나는 갖고 싶은게 많았다. 몇천, 몇억대의 미술품이지만 그런걸 마구 쓸 수있는 배짱을 갖고 싶었다.

『뭘 아는 거야? 아는 채하는거야?』

다혜가 내 툴번한 태도가 의심스러운지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엔 왜 저런 늙은이가 안 나오는 거니?』

『좀 잡느라고 그러지. 사회적 여건도 안됐고.』

『넌 유식해서 배꺼나 고프겠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배가 고파.』

『먹어 주는 건 끝내주니까 염려마.』

『이거 한번 털어볼까?』

『에그머니, 기쁘기도 해라. 저 접시는 나 주는 거겠지?』

다혜는 아까부터 접시가 욕심나는지 자주 뒤돌아다 보고 있었다.

『별로 어렵지 않겠어. 경비도 허술하고, 기동력과 치밀한 작전만 세우면 감쪽같이 해치울 수있겠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이래?』

『피카소가 시켰다고 하지 뭐.』

나는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다. 몇가지 작품을 정말 갖고 싶었다.

『정말 털어낼까?』

밖으로 나와서 내가 한 말이었다.

『재주 있으면 한번 해봐. 다른건 말리겠는데 그것만은 말릴 생각없어. 대신 나 한개 준다면 말야.』

『저런 거 털다가 들키면 몇년쯤 살게 될까?』

『왜 잡힐 궁리부터 해? 감쪽같이 털어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 귀신같은 미술품 애로가가 있다는 걸 만방에 알려야지.』

『진짜 딱 두개만 털어낼수 없을까?』

다혜의 아쉬움은 그 런식이다. 얼마나 욕심이 나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려주면 안되겠니?』

『똑같이 웃겠어.』

『요샌 볼감도 웃니?』

우리는 똑같은 미련을 등뒤에 남기고 덕수궁 뜰을 걸었다. 확실히 봄이었다. 짝을 지은 사람들이 다정하게 붙어 다녔다.

『하나님이 애써서 만든 게 사람인건 확실해. 저렇게 악착같이 붙어다니게 만들기도 어려울 거야. 우린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

『어쭈, 잘하면 천당 가겠네.』

『난 그쪽에 별로 취미없어.』

통금이 없어진 뒤에 생긴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것은 사람들의 발걸음이었다. 느긋해진 발걸음은 사람의 마음에도 여유를 주는것 같았다.

야간관광버스는 꽤 사람이 들어차고 있었다. 되도록 뒷자리서부터 자리잡는 것이 상식이었다. 보통 버스를 타면 앞자리서부터 자리를 잡지만 젊은 사람들만 타는 이상스런 야간관광버스는 그와는 반대로 뒷자석부터 자리가 찼다.

혀를 깨물고 죽는한이 있어도 절대로 안돼
속옷을 벗기고 뜨거운 입김 불어넣자 순간 윽!소리가

오징어 두 마리를 샀다.

『목마를 때니까 귤도 사십쇼.』

장사꾼의 충고였다. 꽤 설득력있는 말이었다. 나는 귤을 봉지째 사서 넣었다. 버스는 종로통을 빠져나와 청계천을 한바퀴 휘돌아 광화문으로 꺾어 돌았다.

하나님, 밤도 늦었고, 분위기도 있고, 성숙한 육체도 가졌으니 이 좀에서 눈 딱 감으면서 다혜를 울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체면이 있잖습니까. 대학교 졸업했겠다. 만져볼 건 다 만져봤읍니다. 다혜를 내게 주십쇼. 저 나이까지 숫처녀로 놔둔다는 건 모독이 아닐까요? 오늘밤, 딱 한번만 봐줘요.

세검정 가는 고갯길을 올라선 관광버스는 오른쪽으로 휘어졌다. 북악스카이 웨이로 들어서는 길이었다. 밤의 시가지는 불빛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나라 길이 분명한데도 길 이름은 양코배기 이름을 사용하도록한 이 영명이에 불만·친구들아, 양놈을 이타도 퍼마시고 정신 좀 차려라. 양잿물도 외제니라.

관광버스는 정신 못차리게 용을 쓰며 내달렸다. 팔각정을 한바퀴 돌아 다시 내려 꽂히듯이 길을 따라갔다. 정말 신기운 질주였다. 차창으로 야경을 보는 것 뿐이었다. 차에 탄 애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저희들끼리 소곤대는 것만이 구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버스는 사직공원 옆을 돌아 독립문에서 좌회전했다. 남산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서울역을 돌아 남산으로 올라섰다.

남의계집 데리고 놀면 공동묘지 간다는것 쯤은 알텐데
도덕선생 같은 얘기를 하니 도덕적으로 뼈를 추려줘라

버스는 식물원 앞에서 정차했다.

『십분간 휴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떠납니다.』

운전사가 의미있게 한마디를 던졌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내렸다. 십분 후에 버스는 텅텅 빈 채로 떠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우리는 어슬렁거리며 내렸다. 차에서 내린 애들은 잽싸게 그늘 속이나 으슥한 곳으로 숨어 들어갔다.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를 일이었다. 그들은 십분 뒤에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었다.

『어딜 자꾸 가려고 그래?』

다혜가 으슥한 골목에서 눈치를 챘는지 이렇게 물었다.

『으슥한 데 가서 다혜를 해치울까 하는 거야.』

『난 평일이구.』

『오늘은 좀 어려우실 걸.』

『풀어든고 소리칠텐데.』

『암내난 고양이나 그런 거겠지.』

『뭐라구?』

다혜는 내 등짝을 때렸다. 나는 재빨리 다혜의 두 손목을 잡아 뒤로 꺾었다. 다혜가 주저앉았다. 나는 그녀의 턱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꿈틀거렸다. 그러나 분명한 저항은 아니었다.

『소리칠 거야.』

다혜가 입술을 오므려 피하며 말했다.

『마이크 빌려다 줄까?』

『미워 죽겠어.』

『난 이제 살겠어.』

『강제로 이러는 법이 어딨어.』

『여기 있잖아.』

『정말 이럴 거야?』

『야, 좀 봐줘라. 남들은 만나자마자 발발 떨고 일어서는데 난 이게 뭐니? 어차피 결혼할 거아냐?』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나는 다혜를 적어 눌렀다. 가슴이 벌떡거리며 뛰었다. 아랫도리가 갑자기 기립했다. 다혜의 입술에선 껌향기가 짙게 풍겨왔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받아주고 있었다.

『넌 갖겠다. 넌 내꺼야.』

내 손이 비집고 들어갔다. 다혜는 억세게도 내 손목을 잡았다.

『이것만은 안돼.』

『왜?』

『나한테 장가올 거야?』

『몇번이나 말해야 하니?』

『그게 진실이라면 참아 봐. 난 이런데서 이러고 싶진 않아.』

그녀는 여전히 내 팔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한번 속지 두번 속진 않아. 가진거야. 오늘은 용서못해.』

『비겁하게 왜 이래? 나하고 진말 결혼하려면 이래선 안돼. 내가 강제로 빼앗긴다고 해서 찬이 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야.』

『날 잘못 봤어.』

매몰찬 말투였다.

『넌 호기심도 욕망도 없니?』

『있어. 그러나 난 지킬 거야. 차라리 혀 깨물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맘대로 해. 가질테니까.』

다혜가 뭐라고 사정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오직 내 가슴 속엔 낮에 본 영화 장면과 내 욕망의 끄트머리에 서있는 승부욕 뿐이었다.

그녀는 나를 물어뜯으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두 팔을 모아 꼼짝 못하게 한 채 그녀가 그렇게도 질기게 버티던 속옷을 벗겨냈다. 그녀는 반항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부끄러움의 표현이 그런 저항으로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결코 그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생각도 했다. 나는 저항없이 누워있는 그녀의 몸에 내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고 바지의 허리띠를 풀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았다.

윽!

순간이었다. 다혜는 제 손가락을 깨물었다. 나는 얼른 바지를 추스리고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다. 끈적끈적한 피가 흘러 나왔다.

다혜는 울고 있었다.

『잘못했다.』

나는 다혜의 가슴을 끌어안았다. 게 몸을 지키려는 다혜의 의지에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넌 정말 갖고 싶었어. 강제로라도 말야. 참을 수가 없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다혜는 누운채 흐느끼기만 했다. 나는 강제로 벗겨내린 다혜의 속옷을 그녀의 발치에 끼어주었다. 앙증맞게 예쁜 속옷이었다. 내가 다혜의 속옷을 본것은 처음이었다.

『네가 허락한 때까지 다시는 이런 짓 않을께. 내가 잘못했다. 맹세할께.』

다혜는 옷을 추스려 입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말없이 걸어 내려갔다.

그녀는 숲 속으로 자꾸 들어갔다.

『내가 잘못 했다잖아.』

나는 울고 싶었다. 다혜는 듣지못한듯 자꾸만 숲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쫓아가 다혜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는 아직도 울고 있었다.

『잘못했다. 다신 안그래. 정말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랬어. 내 심정도 이해해 줘야 한 거 아냐? 생각해봐. 난 병신이 아니란 말야. 봐줘라. 나도 건장한 동물이란 말야. 미워해도 좋아.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이렇게 소리 질렀다. 다혜의 그 몸 사림이 얄밉기도 했다. 나는 돌아서며 말했다.

『날 용서한다면 날 불러 세워. 그렇지 않으면 꺼져줄께.』

내가 뒤돌아 걸었다. 그녀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한참을 걸었다. 나는 모든게 끝났다는 걸 알았다. 가슴이 통통해지기 시작했다.

『거기 서있어. 이 도둑씨야.』

다혜의 목소리였다. 투정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뒤돌아서 뛰었다. 그리고 다혜를 번쩍 안아 짭짤한 눈물을 마구 빨았다. 다혜가 내 따귀를 철썩 때렸다.

『이젠 속 시원하니?』

『몇대 더 때릴 거야.』

『좋다. 때려라.』

다혜는 내 따귀를 때렸다.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의 매질이었다.

『입술만은 언제든지 개방해 줘라.』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상은 안돼. 맹세할 수 있지?』

『유행가 가사같다.』

나는 다혜가 내민 손가락을 걸어주었다. 정말 다시는 그녀에게 조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성질대로 안되는 게 있읍니다. 내 호적초본이 그런 겁니까 내 팔자가 그런 겁니까.

숲 속의 봄날은 약간 서늘했다. 우리는 끌어안은 채 도란도란 다혜의 손가락 얘기를 했다. 피는 멈추었지만 아픔을 참기는 어려운지 자꾸 나를 때렸다.

『이봐, 남의 구역에 들어왔으면 인사를 하셔야지. 점잖은 체면에.』

갑자기 사내 녀석 다섯명이 나타나서 우리를 둘러 쌌다. 숲 속에 들어와 속삭이는 데이트족을 털어먹는 녀석들이었다. 나는 말없이 일어나서 녀석들을 주욱 훑어보았다. 험악한 말투와 꽤 세련된 야구방망이의 손놀림을 쳐다 보았다.

『임마, 남의 계집 델구 놀다 공동묘지 간다는 것쯤이야 알았겠지.』

다혜는 떨지 않았다. 그 정도의 데이트족이나 털어먹는 형편없는 사내들 쯤은 내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다섯놈 뼈다귀 수리하려면 그동안 털어먹은 거 죄 토해야 되겠구나.』

『저 자식 아가리부터 뭉어줘라.』

한 사내가 말했다. 다섯 녀석 모두 야구방망이를 치켜 들었다.

『이놈들아, 젊은애들 사랑할 때가 없어서 여기 숨어 들어왔으면 보호는 못해줄망정 방해는 말아야지. 젊은 놈들이 무슨 할짓이 없어서 데이트족을 털어 이놈들아.』

『어쭈, 도덕선생인데. 도덕적으로 뼈를 추려줘라.』

야구방망이가 휘휘 날았다. 나는 두어바퀴 뒹굴며 녀석들을 걷어찼다. 사내들이 죽 뻗어 누웠다. 논바닥에 내던진 개구리같았다. 야구방망이를 자신 부러뜨렸다. 그리고 한 녀석씩 잡아 일으켜 관절을 꺾어 앉혔다.

『형님, 제발.』

두목인 듯한 사내가 애원했다. 나는 녀석의 관절을 두 마디나 꺾어 앉혔다. 녀석들은 엉금엉금 기어서 뒹굴며 내려갔다. 밤새 내려가야 겨우 새벽녘에 택시를 타고 접골원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다혜와 나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길고 뜨거운 입맞춤을 했다. 그것밖에 우리가 할 짓은 없었다. 이 아름다운 밤에.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품점

한발식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서울식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동양식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일식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복식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고려식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신용조합

한인신용조합
641A BLOOR ST. W.(2nd Fl) TOR. ONT. M6G 1L1
전화 : 533-938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상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수웅

약국

돈밀약국
전화 : 429-4117 이요한

SUPER × DRUGS
전화 : 368-2746 조남오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문정

양장점

샘터의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황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전화 : 746-3840~1(B) 493-9945(R) 김봉균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진환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여행사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동주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창범

천우여행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현두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지원, 신용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태호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운전학교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대표 : 이인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호중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종대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전화 : 746-0675

이삿짐및 운송

나라운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세환

장의사

장의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기덕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43, (R) 493-8792 송창섭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화삼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이락, 김한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CENTRAL AUTO SERVICE 길창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달원
전화: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세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용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영철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W. WINDOW SHADE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박

학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호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743-0752 서춘봉

서울한의원
한의사 김장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영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화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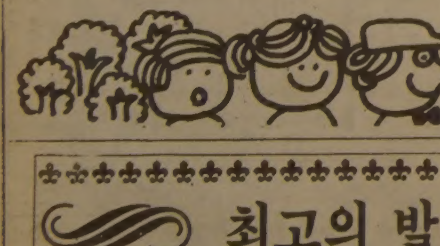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의문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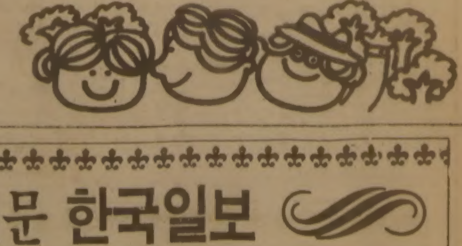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현명한 광고의 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 사업확장을 계획하십니까?
* 광고국에 문의하십시오.
533~2361~4 (월~토)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일요일에 가게 캐쉬어 하실분
(유경험자 원함) 미씨사가 지역
전화 : 828—0242

남자 주방 헬퍼와 여자 웨이트레스 구함.
628 BLOOR ST. W.

Baby Sitter (베이비 시터) 구함
전화 : 638—6380, 598—2210 Mr. 김

한국음식(밑반찬)에 조예가 깊으신분 연락바랍니다.
Full Time과 Part Time 가능
전화 : 749—0579

맥스 밀크에서 일하실 캐셔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8—4867

Full Time 매니져 혹은 가게를
맡아서 하실분 구함. 스카브로지역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 281—5730

매니저 구함
1174 Morning Side Ave. Scarboro. (세파드 × 모닝사이드)
흥미계신분 내방 바랍니다.

지렁이 잡이 경험이 많은, Mrs. 윤 이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합니다. 특별우대함.
전화 : 291—4547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남.녀관계없음)
서부지역 전화 : 742—0800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톰), 531—0773(김)

81년도 7, 8월경에 아버지와 같이 이민온 서현주씨를 찾읍니다.
전화 : 633—5231, 669—6714 (유 선 옥)

유경험자 캐셔구함(남녀관계없음)
다운타운지역
전화 : 598—2546

구 혼

독신남, 대졸, 해군장교예편, 신장 175cm
체중 70kg, 재산있고 회사 중견사원역임.
독신녀(미혼 혹은 이혼녀) 원함. 기독교인이거나
앞으로 기독교를 믿으실분. 사진, 이력서 동봉.
연락처: 955 WARWICK CRT. #402.
(BURLINGTON, ONT. MR. LEE)

매매및 양도

틀림없는 이윤을 보장하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4,000, 아스킹: $35,000+스탁
전화 : 465—4385

여자 혼자할 수 있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급매. 시설비만 받고 매매할 예정임.(꼭히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61 Main St.

아파트 4채가 있는 집수리 끝낸 건물팝니다.(서쪽끝) 아스킹 : $199,900
전화 : 465—2073 오전 10:00 — 밤12:00

BECKER MILK 후렌차이즈 매매
꼭히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4746 Dundas St. W. (Islington)

★코너에 위치한 상업.가정집 포함한 드라이크리닝 사업. 13% 물개시.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드라이크리닝에 필요한 일절 장비 팔고자 함. 중앙지역.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Call. Tony ☎ : 751—1947 7 a. m— 7 p. m.

성업중인 그로서리 및 버라이어티 딸린
건물 급매
전화 : 532—8260

Soft Icecream기계팝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랍니다.
전화 : 279—8871

가게 급매(4 베드룸 건물포함)
주매상 : $3,500~$4,500
가격 : $84,000 + 스탁 (First Mortgage 13.5%,$51,000
Second Mortgage, Bank에서 $20,000 가능)
전화 : 1—383—8232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2베드룸 포함한 건물 팝니다. Four Unit, Commercial(Two Unit Rent 하였음). 번화한 지역으로 오타와에서 35Mile 서쪽.(Arnprior).
가격 : $135,000 Mortgage : 12¼%
전화 : 1—613—623—6896 (월~토)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소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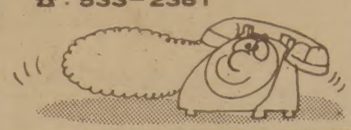
MODERN CLOTHING STORE FOR SALE
중앙지역,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저 함.
전화 : 465—2073 10:00a.m.—12:00p.m.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Good Location, Good Lease,
Asking Price : $12,000
전화 : 652 [illegible]617 (Mrs. Maria)

하우스 렌트

1베드룸, 한국인으로서 미혼직장여성원함
월세$200 Don Mill지역
(언제라도입주가능)전화:449—3071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 업 인 협 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 외 환 은 행 : 364—2890
- K A L : 862—8250
- 코리아타운 번영회 : 532—2727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R) 298—855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준성)
전화:633—7892(R)497—8900(B)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248—2437(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ANNIE'S BEAUTY CARE CENTER
6093 Yonge St. (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김 종 조 종합보험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2R1 전화 : 759—9505 (5시이후)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전화 : 281—1677 이 영 화 (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11 Dawson Ave. Tor.Ont. 전화 : 463—8998

불 광 사
288 Hownslow Ave. 전화 : 223—9152

선 련 사
46 Gwynne Ave. 전화 : 532—3491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메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전화 : 535—7772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무 지 개 칼 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 × 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복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전화: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식 당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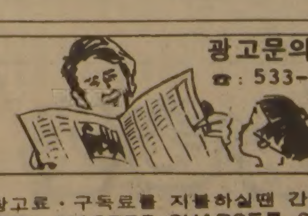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클 링. 턴 하 우 스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김 영 규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 한국일보 안내광고 ＊

2ND CLASS MAIL NO. 5248